

목 차

Part1. 강의안

1. 여성주의로 나의 존재, 세상과 다르게 관계 맺기
: 새로운 인식론이자 정치학으로서의 여성주의
2. 총여학생회와 대학이라는 공간을 둘러싼 여성주의 운동사
3. 여성의 몸이 인식되고 보여지는 방식 돌아보기

part2. 세미나 읽을거리

1. 여성노동

- 『여성과 일』, 제2장 '노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이해'
- 『여성과 일』, 제6장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
- 『여성과 일』, 제7장 '여성노동시장 이론 : 여성들은 왜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가'
- 『노동과 페미니즘』, 제1장 '노동개념 새로보기 : 감정노동의 이해를 위한 시론'
- 『노동과 페미니즘』, 제8장 '대졸 여성의 노동경험과 직업의식 신화'
- <새만금 그곳엔 여성들이 있다>, 일다 연재기사

2. 가족

- 『여성주의 학교 '간다』 7강 가족을 넘어서 페미니즘-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미래
-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함께 살 수 있을까'
- 『나, 독립한다』, '도시사막 한가운데서'
- 『나, 독립한다』, '이사하던 날'

여성주의로 나의 존재, 세상과 다르게 관계 맺기

: 새로운 인식론이자 정치학으로서의 여성주의

0. 여성주의와 나 - '여성주의'에 대한 평소 생각 나누기

① "여성주의는 과격하다?"

②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중후군

③ "여성주의는 여성 편만 드는 편파적인 것?"

④ "여성주의보다는 양성평등?", "페미니즘보다는 휴머니즘?"

- 여성주의의 관점은 '인권'이 특정 지배집단(남성-이성애자-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정의되어 온 역사를 비판하는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

- 여성주의는 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이다.

- 여성주의의 지향은 여성의 '지위 향상'이 아니라, 지위의 위계를 구성하는 게임의 룰을 질문하고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 여성주의는 남성 중심의 기존 인식, 언어, 법, 제도, 규범 등을 '여성 중심으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했는지를 질문하고 그러한 역사적 과정에 개입하는 새로운 인식론, 정치적 상상력이다.

1) 여성학 강사, 저서로 『오빠는 필요 없다 - 진보의 가부장제에 도전한 여자를 이야기』 (2008), 공저로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2』 (1998), 『페니스 파시즘』 (2001),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2003), 『직장 내 성희롱의 적극적 예방제도 도입방안 연구』 (2004), 논문으로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 (2000), 『길에서 사는 법 터득하기』 (『여성과 사회』 12호, 2001) 등이 있다.

1. 우리가 세상을 봐 왔던 방식을 의심하기

"지금까지의 객관성이라 남성들이 자신의 주관에 붙여 온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 기존의 여성다움/남성다움을 틀짓고 우리 자신을 '여성'/'남성'으로 구성해 온 '자연스러움', '당연함', '익숙함'들에 대해 질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껏 우리가 누구의 시선으로 세상을 이해해 왔는지 의심해보아야 한다.

-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gender role)'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거나 도달 불가능한 '이중 메시지'인 경우가 많다.

ex 모성 이데올로기(제도로서의 모성)는

열심히 해도 비난받고 안 해도 비난받으며

성역할을 다할수록 오히려 더 취약해지는 딜레마를 대표한다.

ex "섹시하되 순결을 지켜라?"

"여자들은 지나치게 감성적이다" vs "여자가 너무 딱딱하게 굴면 피곤하다?"

→ 게임의 룰 자체가 누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가능하지 않다

→ 여성주의는 기존의 고민에 대한 '정답'을 제시해 준다기 보다는, 왜 여성만 그런 고민을 하는지, 게임의 룰을 '질문'할 수 있게 해준다.

2. '여성의 눈으로 본다'는 것 : 새로운 인식론으로서의 여성주의

- 여성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를 파악하자 시각에서 다시 질문하는 것을 의미. 여성주의는 기존의 언어와 해석틀이 남성 경험을 특권화/보편화한 것임을 드러내고, 이를 비판하고 상대화하여 새로운 시각/언어/해석틀을 추동함으로써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힘을 주고 지지해준다.

→ 새로운 인식론으로서의 여성주의

: 배제되어 왔던 타자들의 시선에서 세계를 다시 보는 것은, 기존의 '객관'이 특권집단의 '주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하고 보다 덜 왜곡된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 기존의 언어/해석틀로는 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변화시키기 어려우며, 남성사회에 대해 다른 언어/해석틀을 가져야만 여성억압을 문제화할 수 있게 된다.

(1)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가? : 위치성을 질문하기

1) '객관성'의 신화

: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러저러하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

: 우리 사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객관성'의 의미는, '참'과 '거짓'을 가르는 인식론, 현실이 단 하나이며 그것은 누가 봐도 똑같은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 '단 하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라는 신화가 존재한다.

→ 그러나 인식자의 사회적 위치와 무관한, '주관'을 배제한 것으로서의 '객관성'이란 존재할 수 없다.

2) 객관성과 주관성은 반대일까?

: 주관을 배제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 지금까지의 '객관'은 지배집단의 '주관'에 붙여져 온 이름에 불과하다.

: 주관을 배제하는 것이 언제나 옳고 이로움인가?

⇒ 때로는 주관과 감정(공감)이야말로 약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침묵당해

온 인권침해를 문제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3) 세계는 단일하지 않으며,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

: '가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경험되는가?

: '어두운 시골 밤거리'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경험되는가?

⇒ 사회적 약자, 여성(장애인, 레즈비언...)의 시각에서 보는 것은 '편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각의 편파성을 드러내는 새로운 인식을 산출한다.

4) 언어는 중립적이지 않다

: "우리가 아는 언어는 누구의 언어인가?"

: '정의'하는 힘은 지금까지 누가 갖고 있었는가?

: 명명의 정치학 - '부부싸움'을 '가정폭력'으로, '윤락'을 '성매매'로 다시 이름붙이는 것은 그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다른 지향을 가지고 문제화할 수 있게 해준다.

→ 여성들이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정의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2) 무엇이 '심각한' 문제인가? : 압상을 정치화하기

1) 세계관(입장)이 '문제'를 구성한다

- 어떤 억압이나 고통이 '인권 문제'로 설정되는 것은 특정한 패러다임 안에서만 가능하다.

ex.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인권 침해'로 인식되기 시작했는가?

- 무엇이 '심각한' / '사소한' 문제인가? : 여성억압이 '사소한' 보이는 것 자체가 권력의 효과이다.

→ 심각한/사소한 문제는 누구의 입장에서 정의되는가를 물어야 한다.

2) 피억압자들(주변인들, 사회적 약자들)의 인식론적 장점

- 지배집단의 '특권'을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기계 중 하나는 바로 특권이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가시력이라는 점이다.
- 주변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비가시화되고 당연시되어 왔던 특권의 체계를 드러낼 수 있다.

(3) 질문을 어떻게 던질 것인가? : 새로운 질문을 구성하기

- 질문 자체가 남성집단의 시각에서 구성되고, 성차별에 대한 해석이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질문은 그 자체가 어느 정도 답을 품고 있는 힘을 지닌다.
- 우리는 기존의 남성 사회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기 보다는, 기존의 질문이 어떤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물으면서 새로운 질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3. 새로운 인식론이자 정치학으로서의 여성주의

(1) 누가 '인간'인가?

- 왜 남성은 '인간'이고 여성은 '여성'인가?

- '인간' ('사람', '학생', '시민', '국민...')이라는 '보편 명사'는 사실상 특정한 집단의 경험과 시각만을 반영해 왔다.

ex.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

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 1948년 유엔총회 <세계인권선언> 1조

- 어떠한 사회적 위치도 가지지 않은 '초월적 주체', '보편적 인간', '추상적 개인'은 환상이다.
- '인간'/'인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과정은 유동적이며 정치적이다.

→ 휴머니즘이 아니라 페미니즘 : '휴머니즘'으로는 일부 집단만 '휴먼'으로 정의되어 온 역사를 바꿀 수 없다.

→ 인권은 항상 누가, 어떤 맥락에서, 누구를 향해 주장하는가를 통해서만 논의될 수 있다.

(2) 여성주의가 열어주는 차별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

1) 특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다 : 주변인의 인식론적 장점

- 특권은 비가시성을 통해 유지된다.
- 100% 특권만을 가진 사람도, 100% 주변인이지만 한 사람도 없다.

① 특권에 대한 성찰 ← 타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듣기

② 주변성을 자원으로

: 주변성은 '극복'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 위계로서의 차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해온 여성주의에서, 연대로서의 차이라는 상상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상성'의 변화로

- 사랑-폭력의 연속선: "왜 불평등해야 로맨틱할까?"

- 상역함과 폭력의 연속선

ex. "맛을 짓"이 있다? 남편 노릇 수행으로서의 폭력?

- 여성의 성이 자원되면서 동시에 억압이 되는 것

ex. 성매매-대매혼-결혼정보회사-중매혼

(3) 모순을 건디는 풍요로운 상상력으로서의 여성주의

- '여성'의 입장에서 가부장제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여성을 '여성'으로 묶는 것을 비판하는 것.

- '차이와 평등의 딜레마'는 가부장제 사회가 제공한 조건

- 페미니즘은 하나의 역설로서 의미있다(J. Scott).

1) 참/거짓이 아니라, 참/거짓을 논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맥락적 인식

-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은, 고정된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맥락에 맞게 변
화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답'과 '모색'을 가능하게 해준다.

2) 여성이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자기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

- "여성의 경험을 여성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못할 때 우리가 자주 겪은 일이면서도 그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억압상태를 지속
시킨다." (정희진)

- 여성주의는 여성이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지식화할 수 있는 인식론을 제공한다.

3) 권력 정위가 아니라 권력구조의 해체

- "여성운동은 사회 내 여성의 지위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억압받는다", 여성의 시각으
로 역사, 사회, 정치를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정희진, 2006)

-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지 간다."

- 여성주의는 기존의 지배집단이 행사해 온 권력을 상대화하고 새로운 시각/언어/해석틀을 가능
하게 하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힘을 주고 지지해준다.

4)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할 때 그 여성은 누구인가?

- 여성들 사이의 차이의 가시화

- "여성으로서의 차이"에서 "여성들 사이의 차이"로 시선의 이동

: 지금까지 누가 '여성'을 대표해 왔는가?

: 그 동안 여성주의 의제가 여성애-비장애-기혼여성 중심이었다는 점에 대한 성찰

- '여성의 눈'은 개별 여성이 주장하는 바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 경험은 해석된 것이며, 또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 '순결상실감', '아들 낳은 시어머니의 권력'...

- 여성주의는 여성 개인들의 이해관계의 총합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계를 비판하고
해체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저항을 갖는 '입장'이다.

- 여성주의는 '여성'의 이름으로 남성중심적 지식, 관계, 제도 등을 비판하는 것이면서,

- 동시에 '여성'이라는 동질적 범주로 환원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여성/남성의 젠더 이분법을 해
체하고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다루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총여학생회와 대학이라는 공간을 둘러싼 여성주의 운동사

0. '여성주의' 운동의 '역사'를 생각한다는 것

(1) 기억과 역사쓰기의 정치성

- 누가 누구를 향해 말하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 역사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기억되고 다르게 쓰여진다.

ex. 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집단지 기억상설' (전순옥)
ex.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광주 민주화 항쟁'의 명칭 문제 등.

1980 ~ 87년 형성
1980년대 이후, 점차

(2) 여성운동의 역사를 안다는 것

- 제도교육이 가르쳐 온 '세계사'의 '세계'는 누구의 세계인가?
- '진보운동' 안에 있었을 때 서구 사회주의의 역사, 남성 진보주의자들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여성운동의 역사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왜일까?
- 여성운동의 역사를 아는 것은, 불안을 건다야 할 이유와 힘을 준다.

(3) 무엇이 여성주의 운동인가? - 끝나지 않을 물음

- 여성운동 정의에 대한 견해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① 여성운동은 여성주의 이념(feminism)을 지닌 조직적인 운동이며 '여성이 하는' 모든 사회적 활동이 여성운동은 아니다.

② 여성해방운동만을 한다고 표방하지 않더라도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되는 다양한 활동을 할 경우 광의의 여성운동에 포함해야 한다.

③ 여성의 모임은 여성운동의 잠재성을 가지므로 여성운동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 '여성이 하는' 운동/ '여성을 위한' 운동/ '여성주의 운동'은 한국사회의 특정한 맥락 속에서 공존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 연속선 상에 있다.

2. 키워드를 통해 그려 본 여성주의 운동의 역사

(1) 80년대 여성운동의 키워드 - '진보성'과 '근본적 변혁'

"여인의 목표는 다양한 여성운동들 간의 조직적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의 민족적 독립을 완수하고 민족민주운동들과의 단결을 통해 여성해방을 이룩하는 것이다." (1989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중 간담회보고서 중)

- 80년대의 '새로운 여성운동'(new feminists)

: '주부', '어머니'로서 국가에 의해 동원되어 온 관변여성운동에 대한 비판

: 체제 내적으로 제한된 운동 범위를 넘어서서 '총체적 변혁', '사회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 "성이 먼저냐, 계급이 먼저냐" 회 / 북 논쟁

: 여성억압을 '총체적/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

→ 여성억압의 기원과 본질, 여성운동의 '주력부대'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

: 여성 이슈는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인가? 라는 논쟁

: '독자적으로 포함되기'라는 딜레마

(ex. 총여학생회는 "좌파의 인망"? 총여 존엄에 대한 '회/부 논쟁')

<대한민국을 말한다>

(2) 90년대 여성운동의 키워드 - '독자성'과 '일상의 정치'

"문화제의 같은 두 쪽을 찢었다. 한 쪽은 말할 것도 없이 공권력이었고, 다른 한 쪽은 우리가 우리
권이라고 믿어왔던 사람들 - 남성 통치들 - 이었다. 전경에 의한 한층한층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역시 그들은 정말 나쁜 놈이다. 하지만 우리는
남성 통치들에게 우리를 지켜주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운동권 역시 남성중심적 문화나 성폭력에서
우려한 공간이 아니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욱 가능한 공간이었다." (<달라 입술>
2000, 145-147쪽.)

1) 여성주의의 '독자성'이 쟁점화되었던 배경

- 사회적 변화와 80년대 여성운동의 성과: '평등'의 가치가 대중화된 세대
- "말 아들 구별 없이" 키워지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경제'를 드러내며 세력화되기 시작함.
- 이전의 여성운동이 성취해 온 민주주의의 제도화, 확장된 시민사회, 여성학 이론의 성장이 만들어낸 지평 위에서/ 이전의 여성운동과 어느 정도 단절하면서 출현한 이중적 위치
- 독자적 정치학으로서 '여성주의'를 전면으로 내세움

: 남학생 조직과의 차이, 이전세대 여성운동과의 차이

- 내부의 외부인(outsider within)이라는 위치가 가능하게 했던 밀도 높은 긴장과 비판의 날카로움.

2) '진보'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 '말'에서 벗어나 '시민'이 되고자 했던 90년대의 여성들은 '시민'의 집단성을 대표하는 사회운동에 매혹되었지만 사회운동 안에서 만난 것은 '오빠'들의 길서 '시민됨' 자체가 성별화된 방식을 통해 구성되어 있었음.

- 진보가 당연시해왔던, 그리고 때로는 선택적으로 활용했던 것들

: 군사주의, 가족주의, 공/사구분, 집단주의, 위계적 성별분업 등

: 가치와 규범의 남성중심성

① 운동기다움의 남성중심성, 평가와 인정 체계의 남성중심성, 언어의 남성중심성

② 여성혐오: '여성적인 것'의 타자화, '여대생'에 대한 타자화

- '오빠'들의 여성운동에 대한 비난 ("부르주아적이다", "서구적이다", "분리주의적이다")

- '진보'의 오빠짓, 가부장적 운동주의 전략들

① 흡수와 포함의 논리: '중심모순'이 존재한다는 발상, '중심운동/부운동'의 위계, '보편적 노동해방, 특수한 여성해방'?

② 후원자노릇 (patronizing): 다른 목소리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동원'하려는 시도

3) 불타는 도전의 연대기

- '영 캐미니즘'이라는 새로운 기운

: '오빠'의 인정을 받거나 '오빠'를 비판/개조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여성들의 집단적 등장

: 한편으로는 '진보'의 가부장제에 대한 '집없는' 문제제기를 직접 제기

: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운동'의 '내부자'로서의 여성활동가들에게 '진보의 바깥'이 생겨남.

- 1999년 11월, 여성활동가모임이 주최한 '킵 제기 행사': 진보의 일상을 떠받치는 위계적 성별분업

- 은폐되어 온 운동사회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의의 가해자 실명공개운동

4) 독자성, 그리고 일상의 정치

- '분과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론이자 세계관으로서의 여성주의

(‘가르치려드는/가르쳐달라는’ 오빠들로부터의 분리)

- 삶의 원리로서의 여성주의 :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

: 여성주의 문화 혁신들 (나이주의 거부, 별명문화, 일상의 정치화 등)

: ‘집회’에서 축제 문화제 퍼포먼스, 공연으로

- 여성이 남성(집단)과의 관계 바깥에서 ‘개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 여성주의의 독자성 주장이 가져온 효과는...

: 진보는 “진보하고자 하는 예토스”(이박혜경)이며, 특정한 이슈나 세력으로 고정될 수 없다는 것

: ‘중심 모순’이 존재한다는 발상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 차이와 연대에 대한 상상력 촉발

: 기존의 진보운동의 언어와 논리 안에서 다루어질 수 없었던 여성주의 의제를 촉발

(ex. 성폭력, 가족 안/밖, 성정치와 이성애중심주의 비판)

(3) 2000년대 여성운동의 키워드 - ‘차이’와 ‘연대’

- 여성들 사이의 차이의 부상 (‘페미니즘’에서 ‘페미니즘들’로)

: 여성주의자들 사이의 입장의 차이, 경험의 차이, 세대의 차이, 문화의 차이 등 가시화

: ex. 호주제폐지 이후 가족법 편제 관련 논쟁

ex. 모성보호법 관련 논쟁

ex. 여성의 정치세력화 논쟁 (박근혜 논쟁, 이계경 前여성신문사장의 한나라당 행)

ex. 이성애주의 논쟁 (한국여성학회 강숙자 논문발표)

ex. 성매매 방지법 이후의 논쟁

- ‘순수한’ 젠더이슈는 존재하지 않는다.

: 시대-나이-계급-성별-성정체성-장애여부-색수열리티위계...가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무수한 위치의 차이들

3. 누구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

- 지금, 누구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

- 여성들 사이의 세대 간 연결에 대한 고민

- 차이에 대한 사유의 변화 : 위계로서의 차이에서 연대로서의 차이로

- 신자유주의에 전유되어 버린 ‘개인’의 의미 → 개인 ‘이상’일 수 있는 상상력과 방법론이 필요하다

- ‘우리가 누구인가’는 ‘그들’과의 경계짓기를 통해서 보다는 또 다른 ‘우리’들과의 접속에 의해 유동하고 확장된다.

- 연대와 접속,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으로서의 맺집

• • •

소개할만한 글들

<20세기 여성사전사>, 길밖세상, 여성신문사

<오빠는 필요없다 - 진보의 가부장제에 도전한 여자들 이야기>, 전희경, 이매진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달과 입술, 동녘

“왜 젊은 여성이 더 보수적인가”, <일상의 반란>, 글로리아 스타이닝, 현실문화연구

김현미, 2003, “한국 페미니즘의 세대간 변화”, 『한국의 문화변동과 문화적 정체성』, 한국 정 신문화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윌간 언니네 (www.unninet.co.kr) 2004년 11월 특집 “영 페미니스트?”

언니네트워킹 채널[넷] 2009년 1월 특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

언니네트워킹 채널[넷] 2010년 봄 특집, “대학 줄고 페미 각!”

여성의 몸이 인식되고 보여지는 방식 돌아보기

1. 권력과 젠더

(1)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차이를 구성해낸다

- '양성평등'이라는 '안전한' 말

∴ 여성/남성이 있고 이들 사이의 평등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
여성/남성의 차이를 구성해내는 권력구조를 문제화할 수 있어야 한다.

- 평등 vs 차이? : A와 A사이의 평등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

-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 ① 언제부터 강조되었는가?
- ② 불변하는가?
- ③ 개인 차이보다 큰가?
- ④ 유사성보다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차이 → 차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즉, 성차별주의를 작동시키는 기본 범주로서의 젠더가 존재하고,
젠더에 의해 텍스트생물학적 성이 탄생된 것.

-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작동시키는 권력구조가 어떤 차이를 사회적으로
의미있고 중요한 차이로 구성해 낸다.

(2) '여성'은 생물학적 범주가 아니라 정치적 범주이다

-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이 된다.

- 여성/남성의 구분 자체가 남성 권력이다.

∴ "'여성'은 하나의 계급이며, '여성'을 만드는 것은 남성과의 특정한 사회관계다."
(Wittig) 우리는 여성/남성의 차이를 구성해 내는 권력구조를 문제화할 수 있어야 한
다.

- '여성/남성'이라는 범주는 정치적/경제적 범주이지 자연적 소여, 영구적 범주가 아니다.

- 젠더는 ① 생물학적 실체가 아니고 ② 생물학에서 '과생된' 사회적 결과물도 아니며, ③ 무엇이
'생물학적 사실'이며 무엇이 '사회적' 사실인지를 규정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광범위한 의
미의 체계이다.

(3) 수행으로서의 젠더

- '여성다움/남성다움'을 행할 때 비로소 '여성/남성'으로 인식된다.

- '여성'이 먼저 있고 그가 여성다운 '성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가 규정하는 '여
성다움'을 연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doing gender) 비로소 '여성'이 된다.

- 그런데 이러한 수행은 항상 규범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 가부장제,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의 해석

(1) 몸의 경험과 몸에 대한 해석 사이

ex. 뚱뚱한 몸?

ex. 나이는 몸?
ex. 아이 낳는 몸?

(2) 남성과 여성, 주체와 타자

- 남성-여성의 관계는 주체-타자의 관계이다. / 타자는 주체의 거울이다.
- 가부장제 사회에서 '인간'의 기준이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은 '개인(인간)'에 미달하는 존재로 간주되며 여성의 권리는 항상 '여성 인권'으로 '특수하게' 논의된다.
- 서구 백인사회의 철학적 전통을 관통하는 위계적 이분법들은 거의 항상 성별적으로 의미화되어 왔다.

정신 (이성)	/	육체 (감정)
문명	/	자연
능동적인	/	수동적인, 정복을 기다리는
인간다움의 정수	/	'자연'에 머물게 만드는 구속, 속박

- 여성=몸 : 수동적인 / 자연에 가까운 / 무력한 / 정복과 활용을 기다리는 자원으로서의 / 불안정한 '몸'이라는 이 의미체계 속에서, 여성은 육체로 환원되어져 왔다(Greenspan, 1982).
- 남성=몸의 극복(지배) : 반면 남성성은 훈련, 고생 등을 통해 육체를 '극복/초월함으로써' 입증된다고 여겨진다.

(3) 여성의 몸에 대한 가부장적 의미 체계

1) 인간 몸의 표준은 남성의 몸

"오늘날 우리가 서구인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서구 의학서로 교육을 받은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서양 사람과 한국인의 몸이 동일하다는 전제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몸에 대한 (서구의) 근대적 사고이고,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몸에 대한 과학적 이해이다. ... 몸에 대한 근대적인 인식 체계는 몸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그

래서 개인의 몸의 경험은 일반적인 몸의 경험 속에서 이해되고, 개별적인 몸의 경험은 특이한 것으로 여긴다." (김은실, 2003:202-205)

- 인간의 몸의 표준은 서구-백인-비장애-이성애-성인-남성의 몸으로 간주되어 왔다.

→ 여성은 남성과 다른 '특수한' 몸으로 위치지어지며 '결핍', '기형', '오염' 등의 문화적 의미가 부과되어 왔으며, 쉽게 병리화되어 왔다.
: "의료 문헌 안에서는 월경과 임신 둘 다 '의학적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학적 시각 속에는 여성이 그 자체로 자연적 환자라는 기본적인 논리가 담겨 있다"(Turner, 1987:102)."

- 남성이 인간 몸의 표준일 때, 여성의 몸은 그 표준과의 '차이'를 통해서만 설명된다. ('제2의 상, 인간/시민/평균인에 미달하는 존재')

2) '몸'으로 환원되는 여성

- 여성을 육체로 환원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육체는 억압된 동시에 자원이 된다 : 이 때 여성의 몸은 특정한 상황/국면/시점에서 '자원'이 될 수 있지만 이 '자원'은 여성에게 축적되는 자원이 아니라 남성에 의해 소비되는 자원이며, 여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욕망에 의해 전유된다.

ex. 다이어트 하는 여성, 희생적 모성

ex. "이왕이면 다홍치마" vs. "여자들은 왜 외모로 승부하려 드나?"

- 연애와 성폭력, 성매매와 성폭력, 아내노릇과 가정폭력의 경계가 모호한 것은 남성이 '성적인 것'을 정의하는 사회에서 여성에게 사랑과 폭력, 자원과 억압이 연속선 위에 있기 때문이다.

3) 남성(사회)의 욕망과 필요를 위해 타자화되고 동원되며 의미화되는 여성의 '몸'

① 어머니로서의 몸 (재생산) : 부계혈통의 전달자, '자궁'으로서의 몸 (가장 중요한 신체는 '자궁')

: 여성이 자궁으로 환원될 때, 그 자궁은 여성의 것이 아니라 남권/부제가족/민족의 것

- 1) "의학자식을 조건 갖는 사회적 맥락이 남성의 몸을 표준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성의 '정상적인' 몸 경험은 부정적으로 그려지기 쉽다. 가령 폐경기가 "지위세계의 위해"나 "가동 중단된 기계" 등으로 이해되는 것이 그 예이다"(네플런, 1997:166).

: 이 때 여성은 남을 권리도 안 남을 권리도 온전히 가질 수 없다.

② 애인/창녀로서의 몸 (성적 대상) : 유혹하는 몸, '팜프 파탈'

: 여성은 이성에 성행위에서 자신의 행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까지 책임질 것을 요구받음

: 그런데 이 때 무엇이 "성적"인지는 남성이 정의한다.

- 이때 남성사회가 천양하는 바로 그 이유로 또한 경멸당하는 여성들.

ex. 송고한 모성은 직장에서 쉽게 해고된다.

ex. 혁신한 여성은 진지하게 대우받지 못한다.

(4) 몸에 대한 지식에 개입된 남성권력

1)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의 해석

ex. 왜 질주름이 아니라 '치녀막'일까?

ex. '치녀', '치경염', '순결' ... 모두 남성의 입장에서 남성 성기를 중심으로 정의된 언어

ex. 독자적 여성 성기관인 '음핵'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음.

(남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성을 위해 가능하지 않는 기관은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된다.)

2) 남성성에 부여된 권력

- 왜 연약한 급소인 페니스가 '강력하다'고 여겨질까?

- 왜 여성은 페니스를 '공포/놀림'으로, 남성은 페니스를 '강함/자긍심'으로 경험하게 될까?

→ 문제는 '남성성에 부여된 권력'이다.

3) 과학/의학적 지식은 '객관적'인가?

① 근대 서구 과학/의학의 철학적 전제: 몸/정신의 분리

- 몸/정신의 분리는 : 그 자체가 성별화된 이분법 (여성=몸)
: '몸'의 지위를 단순한 생리적 기능들의 총합으로 환원
: '자연'으로서의 환자의 몸을 '문명'으로서의 의학이 '정복'하는 구도

- 정복 가능한 대상으로서의 '자연'(몸) → 치료 가능한 것으로의 의료화(medicalization)

→ 이러한 이분법은 여성을 '몸'으로 환원해 왔던 가부장적 질서를 재생산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신체 통합성(integrity)'을 주장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 속으로 여성을 밀어 넣는다.

② '여자 만들기'에 개입된 의학

- 무엇이 '정상적' 여성인가를 구성하는 지식들의 상당 부분이 의료지식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ex. 19세기 의학은 '여성의 본성을 벗어난' 사회활동이 생식기능을 마비시킨다고 봄.

ex. "지나친 자위에 대한 관심은 '문제'다", "너무 이른 성적 경험은 문제이다" 등

ex. 아이를 낳지 않는/못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하다. 혹은 심각한 결함이다.

ex.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은 비정상이다. (뇌, 호르몬, 가족력... 등에 문제가 있다)

ex.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개입 - '고령출산', 질병으로서의 출산

- 여자다운 몸, 여자다운 삶, 여성 건강의 '표준' 설정에 있어 의학지식은 핵심적이다.

ex. 다이어트 산업, 성형 산업으로서의 의학 (피부과의 우선순위)

ex. "아편이 수술", "치녀막 재생수술", "나태수술"에 관한 의사들의 입장 등

- 한국에서 몸에 대한 서구의료지식의 도입은 '표준적 아이'와 '표준적 발달단계'를 대중화시켰고, 동시에 아이를 '표준적 발달단계'에 맞게 양육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학적 모성'을 탄생시켰다.

3. 성 문화와 섹슈얼리티에 개입된 권력

(1)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성별화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권력은 몸을 통해 작동한다 : 편지와 된 몸 경험

- 여성에게 더 적은 공간만을 차지하도록 요구하는 가부장적 권력

ex. 전복, 다이어트, 거식증/폭식증(절대다수가 여성), 강장공포증(절대다수가 여성)

ex. 작은 '여성스러운' 목소리, '여자다운' 비밀

- 권력체계는 일상적/미시적 작동을 통해 스스로를 재생산하기 때문에(푸코), 가부장적 사회에서 몸 경험은 성별화된다.

남성에게 성이란 쾌락과 연결

→ 자기 몸에 대한 탐구, 자신의 쾌락의 방법에 대한 탐색과 실험 (확장)
펼쳐지고 확장되는 몸. '성욕'이 (지나치게) 존중되는 몸.

여성에게 성이란 폭력과 연결

→ 로맨스를 통한 성 사회화, 타인의 쾌락의 방법에 대한 지식 습득
위약하고 침해되기 쉬운 몸. (공포, 방어)
괴상 상애화되거나(창녀) 탈성화되는(어머니) 몸.

→ 몸을 경험하는 방식의 성별성, 몸-자아-정체성 관계가 다름.

즉, 몸과 섹슈얼리티에 관한 '권리'는 보편적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2) 우리 사회 성을 보는 지배적 시각들 : 성 자유주의와 성 보수주의

1) 성 보수주의

- 결혼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식을 위한 성 바깥의 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봄.

- 특정한 정상성을 기준으로 섹슈얼리티를 등급화

- 여성에 대한 성 통제 : "순결 이데올로기"는 왜 문제인가?

2) 성 자유주의

- 성은 '개방'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고 봄.

- '성욕', '성 본능'이 남성/여성/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역사에 대한 비판 결여

- 그러나 성을 '개방'한 결과는 평등하지 않다.

→ 둘 다 여성의 경험을 설명하지 못한다. 여성은 이 두 가지 담론 모두에 의해 억압받는다.

(3)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성 문화 : 이중규범 (double standard)과 여성의 이분화

- 성의 이중규범 : "그런 여자"와 "안 그런 여자"의 인권은 다른가?

- 여성의 이분화, 성적 등급화 : 왜 성폭력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할 수 있는가?

4. 몸과 여성의 '권리'

(1) 성의 '권리'에 대한 기존의 가부장적 의미체계를 해체하기

-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폭력으로부터 '지켜질' 권리인가?

: 성(섹슈얼리티)에 관한 '권리'는 보편적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 권리는 항상 맥락적.

: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섹슈얼리티 자체가 성별화되어 구성되기 때문에, 섹슈얼리티에 관한 여성과 남성 모두의 '똑같은 권리'를 논할 수 없다.

- '모성'을 특권화하는 성 논의에 대한 비판

ex. 여성의 몸은 순결하기 때문에, 혹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소중한가?

→ 여성주의 상담은 피해경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언어, 새로운 개념, 새로운 질문방식을 제안하는 것

→ 가부장제가 규정하는 '그 여성'이 아닌, 다른 존재/몸이 되는 것의 가능성과 상상력 촉발해야

(2) 젠더화된 몸 경험을 변화시키기

- 여성이 가부장적 언어를 경유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러한 몸-경험을 다른 여성들과 나누기 시작하면, 성차별주의 사회의 매트릭스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 몸에 새겨진 권력의 흔적을 낫설게 보기 시작하면, 몸-경험을 기반으로 <착한 여자> 그란 되기 시작할 수 있다.

- <여성>으로 동일화될 수 없는 다양한 개인들이 가능한 사회에 대한 상상력은, <여성> 몸에 대한 해석과 결합하는 다른 해석들이 많이 제기될 때 가능해진다.

- 가부장제가 규정하는 '그 여성'이 아닌, 다른 존재/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몸에 축적된 '여성 다움'을 변화시키고 '다른 몸'이 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그러한 노력의 의미를 함께 생산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제2장 노동에 대한 여성주의적 이해

1. 여성의 일에 대한 평가절하

Tendai는 짐바브웨의 어린 소녀로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물 길어오기, 식사 준비, 빨감 모으기, 설거지, 나물 캐기, 어린 동생 돌보기 등의 일을 한다. Cathy는 미국의 중산층 주부로 하루 종일 식사 준비, 설거지, 아이 돌보기, 집안 청소, 세탁, 시장 보기, 다림질, 잠자리 준비, 애완동물 돌보기 등의 일을 한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카메룬의 베티족의 농촌에서 남성은 1일 7시간 30분 일을 한다. 식량 생산 1시간, 코코아 재배 2시간, 맥주와 포도주 생산, 가옥 건조 및 수리, 시장 판매용 가재 도구 및 소상품 생산, 파트타임 임노동 4시간. 이에 비해 여성은 하루에 11시간 일을 한다. 식량 생산 5시간, 식품 가공 및 요리 3~4시간, 물 길기, 빨감 모으기, 세탁, 가사일, 환자 돌보기 등 2시간 이상. 그러나 ILO는 베티족 남성만이 노동자(active labourers)라고 간주한다. 시장 판매용이 아닌 가족을 위한 생산과 가사 노동을 수행하는 베티족 여성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제외된다

Marilyn Waring, *If Women Counted*

'일꾼', '노동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당신의 머리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것인가? 혹시 검붉게 그을린 우람한 근육을 가진 남성을 연상하지는 않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작업복 차림의 남성을 떠올릴 것이다. 영

어 단어에서 사무직 노동자의 뜻을 지닌 '화이트 칼라(the white collars)'라는 말이 산업화 초기 사무실에서 일했던 남성 노동자의 흰 셔츠에서 유래한 것처럼, '노동자=남성', '노동, 일=남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은 우리의 고정 관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성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일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과거에도 또 오늘날에도 여성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일을 해 왔고 또 하고 있다. 문제는 뒷글에 나타난 것처럼 여성이 하는 일 중 많은 부분은 '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주부의 노동이다. 우리는 흔히 전업주부(専業主婦)에 대해 '집에서 논다'는 표현을 쓰거나, 육아 휴직을 신청한 취업 주부를 '집에서 쉬다'고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관념이다. 여성에게 '집'은 결코 '휴식'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집은 여성에게 또 다른 '노동의 장소'이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에서 일이나 노동은 경제적 보수가 주어지는 활동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 속에는 주부의 가사 노동과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노동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정에서만 일하는 여성들은 '노동력(labour force)'이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economically non-active population)'로 범주화된다. 우리가 자주 쓰는 '생산(the production)'이라는 개념은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만을 의미하므로, 인간의 생명을 낳고 기르고 매일 매일의 삶을 유지하는 여성의 재생산(the reproduction) 활동은 비생산적인 것이 된다. 여성의 재생산은 경제학의 영역에서 평가받지 못하고 생물학의 영역이자 자연의 영역으로 한정된다. 이처럼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활동을 평가절하하는 일과 노동의 개념은 대체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일까? 그것은 또 다른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2. 일 개념의 역사적 변화

(1) 일, 노동, 직업, 직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관념이 형성된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기 시작한 원시 사회에서부터 고대, 중세를 거쳐 근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일하는 방식은 여러 모로 달라져 왔고 또 그만큼 일에 대한 관념도 바뀌어 왔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은 대체로 근대 사회의 등장 이후 형성된 것이다. 근대 이전에는 인간이 일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생각 역시 크게 달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 노동, 직업'의 개념, 무엇이 일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근대적 사고 체계 속에서 규정된다. 또 일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노동이나 직업의 개념 자체가 등장한 것도 근대 사회에서이다.

근대적 학문 체계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일(work)이라는 개념은 '인공적인 사물을 형성하는 비자연적인 활동'을 가리킨다(한나 아렌트, 1996: Parker, 1983). 일은 경제적 차원에서의 생산 활동 전반 이외에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활동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문시영, 1998). 다시 말해서, 일이란 '자신이나 타인에게 가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창출해 내는 활동'으로, 여기서 타인에 대한 가치란 사회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를 위한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은 반드시 금전적인 보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가사 노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처럼 유용하지만 경제적 보상과는 무관한 활동까지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에 비해 노동(labour)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활동, 즉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활동'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근대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지배적인 것이 됨에 따라 노동은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버는 행위, 즉 고용(employment)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처럼 생계를 위해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취업자'라고 하며, 이 중 타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피용자를 '임금 노동자(wage labourer)'라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은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의되어 '(임금) 노동이 곧 일'이라는 통식이 성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임금) 노동을 그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구분한 것이 직업이다.

직업(occupation)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수행하는 일의 유형을 지칭한다(홍두승 외, 1999). 각각의 일은 그것이 지니는 사회적·기술적 구성상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며 이렇게 범주화된 일들이 직업을 형성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직업은 재화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지향하는 활동으로서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한다. 직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생업(生業, occupation, Geschäft)의 의미로 생계 유지를 위해 종사하는 일이다. 둘째, 천직(天職, vocation, Beruf)의 의미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개성의 발휘·자아 실현을 위한 활동을 뜻한다(이한구, 1985). 직업은 생계비를 버는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고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직업을 '개인이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 활동으로서 ①경제적 보상을 받는 일, ②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일, ③반사회적이지 않은 일, ④성인이 하는 일, ⑤자기 의사에 따라 하는 일, ⑥자발적 노력이 요구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직업은 물질적 보상, 사회적 지위,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된다(차동환·김국현·김대규, 1999). 또 범주상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 공통된 가치관이나 시각을 지닌다.

직업과 비교하여 직무(job)는 일 중에서도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인 과제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근로자가 특정한 맥락에서 수행하는 기술적·사회적 활동으로, 직업 개념보다 더 세분화되고 맥락 의존적인 개념이다(홍두승 외, 1999: p.2). 예를 들어 '사무직'이라는 직업 속에서도 은행의 사무직원이 수행하는 일과 기업의 사무직원이 수행하는 일은 다르다. 또 은행이라는 하나의 조직 안에서도 사무직은 텔러(창구 업무 담당자), 출납계원, 대출 업무 담당자 등 상이한 직무를 수행하는 여러 층의 노동자로 구성된다.

이러한 일, 노동, 직업, 직무의 개념 중 일을 제외한 다른 개념들은 그 영역에서 시장 경제에 한정되어 있고 내용에서는 이성중심적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 이러한 노동, 직업, 직무의 개념은 시장(市場) 영역 외부에서 일어나는 생계 유지를 위한 자급적 활동과 가정에서 수행되는 많은 일들을 제외시킨다. 또 이 개념들에는 감정이 배제된 이성(理性) 능력의 활용만을 가지 있는 인간 활동으로 보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학자들은 현재의 노동, 직업, 직무의 개념이 남성중심적인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정고미라, 2000). 시장중심적, 이성중심적 정의는 곧 경제 영역과 이성적 사고 체계에서 역사적으로 배제되거나 주변화되어 온 여성들이 지닌 집단적 경험이나 의식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에만 초점이 두어질 경우 여성들이 가정 안팎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활동들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지 못한다. 또 서구 철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남성-이성/여성-감성'의 이분법 속에서 이성중심적 정의는 곧 남성중심적인 판단을 낳음으로써 여성의 활동에 대한 낮은 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노동, 직업, 직무의 개념과 그것들을 사용하는 이론들은 여성이 시장 밖에서 하는 일과,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 등 인간이 지닌 다른 능력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들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특정 행위의 내용 자체가 그 행위를 본질적으로 노동이게끔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은 그것이 행해지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구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다(정고미라, 2000). 가치 있는 활동, 보상을 받을 만한 활동이라는 개념 속에는 당대의 사회적 가치와 지배적인 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시장중심적, 이성중심적 노동 개념은 서구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출현하면서 체계화된 것이다. 서구의 근대 이전 사회나 동양 사회의 경우 노동에 대해 이와는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와 같은 노동, 직업 개념은 서구에서 종교개혁과 산업혁명 이후, 동양에서는 서구의 근대적 발전 모델을 수용하면서 갖게 된 근대적 사고 체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2) 일 개념의 역사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일이나 아니냐를 구분하는 고정된 기준은 찾기 어렵다. 원시 사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기준은 달라져 왔고 일은 모든 인간의 사회적 의무로 된 것도 근대에 이르러서이다.

선사(先史) 시대에 일은 다른 활동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원시인들은 오늘날처럼 일과 그 밖의 활동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았으며 일과 여가, 휴식과 예술적 행위가 뒤섞여 있었다(Parker, 1983). 농경 사회에서 밭일을 하면서 여성들은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노동요(勞動謠)'라는 형식의 이러한 노래는 원시 시대부터 전해 오는, 일과 놀이가 결합된 인간 활동의 원형을 보여 준다.

일이 다른 형태의 인간 행위와 명확히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문명 사회에서이다. 서구 역사상 고대 그리스에서 육체 노동을 주로 수행한 것은 노예였다. 시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기도 했으나 고된 육체 노동은 노동 계급의 몫이었다. 이 사회에서 일은 무가치하고 고통스런 구속(拘束)으로 간주되었으며 인간이 사색하고 덕(德)을 실천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원시 기독교 사회에서는 일이 고통스러운 필요악으로 인식되었다. 아담과 이브의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일은 원죄(原罪)의 산물이라는 믿음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을 통해서 인간이 속죄하고 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정신 노동뿐만 아니라 육체 노동도 영혼의 정화(淨化)를 위한 수단으로서 존엄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일이 자연적 권리이자 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에게 기도하고 명상하는 행위보다는 낮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서구 사회에서 일의 개념이 달라진 것은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의 형성 이후이다. 루터는 신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소명(Calling) 의식'을 강조하여 일이 '삶의 기반이자 열쇠'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칼빈은 인간이 평생 하나의 직업을 고수해야 한다는 사상을 비판하여 직업의 이동 가능성을 열었다. 자신과 사회에 가장 큰 보상을 줄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는 그의 가르침은 일을 신분제적 구속

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청교도주의(Puritanism)는 일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인지 돈이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봄으로써 '일 자체를 위한 일'이라는 관념을 낳았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일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사고로서 창조적인 일은 그 자체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관념이 등장하였다.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노인·어린이·부상자·소수의 지식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생산 노동에 종사하고 1일 6시간만 일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이상 사회로 묘사하였다. 캄파넬라 역시 『태양의 도시』에서 모든 사회의 성원들이 자신의 성격에 맞고 즐거운 일을 하며 하루 4시간 노동하는 것을 이상적인 삶으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르네상스 시대의 일 개념은 산업혁명기 독일의 사상가 칼 마르크스의 노동 개념에서 집대성되었다. 마르크스는 인간은 '본래 일을 싫어하지 않는 활동적인 존재이며 노동을 통해 자신의 인간적인 본질을 실현해 간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대 사회에 이르러 일은 단조롭고 고된 장시간의 노동으로 변모했고, 스스로의 욕구 충족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노동하기 때문에 일은 혐오스러운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사유 재산 제도로 인해 한 편에는 영원히 놀 수 있는 인간 집단이, 다른 한편에는 평생 동안 고된 노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간 집단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일은 고통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조건이 극복되고 필요에 의한 노동이 행해질 때 인간은 더 이상 불쾌하고 지루한 일을 해야 할 의무에 얽매이지 않게 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일하려는 열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일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근대 이후에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베버는 일과 관련된 인간 의식의 변화를 '직업 윤리'의 차원에서 규명하였다(이한구, 1985). 전통 사회를 지배했던 인간의 노동 의식이 '유기적 직업 윤리'라면, 근대 사회에서 새롭게 형성된 노동 의식은 '금욕적 직업 윤리'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신분이나 직업이 세습적으로 주어졌으므로 개인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었다. 직업은 사회 전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의 의

무로서 세습되는 것이므로 직업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졌다. 그 결과, 직업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배분함으로써 인간을 사회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통합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으며, 베버는 이를 '유기적 직업 윤리'라고 불렀다. 이에 비해 근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 의식이 훨씬 더 금욕적인 것으로 되어 갔다. 근대 사회에서는 부(富)의 획득을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이는 감정과 이를 위한 엄격한 자기 통제가 노동 윤리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일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지니고 좀더 완벽하고 합리적이며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금욕적 직업 윤리'의 핵심이다. 베버는 청교도들이 지녔던 금욕적인 직업 윤리가 지배적인 노동 윤리로 확산되어 감으로써 자본주의 사회가 꽃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3. 일의 의미와 인간의 정체성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은 역사상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이해되어져 왔다. 일은 인간의 본질적 행위이자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그 한 가지 견해이며, 일은 인간이 할 수 있으면 피하고자 하는 고통스러운 수고라는 생각이 다른 한 견해이다. 첫 번째 입장, 즉 일에 대한 긍정론의 전형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은 인간의 욕구 충족과 자기 발전의 수단이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두 번째 입장은 쾌락주의 철학에서 나타난다. 쾌락의 추구하고 통의 회피는 인간 삶의 동력이며 인간은 일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에 일할 뿐, 일하지 않고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인간은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쾌락주의자들의 생각이다.

일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이러한 두 입장을 양극단으로 해서 좀더 복합적이고 모순된 것으로 나타난다(Sayers, 1987). 사람들은 단순히 수동적이고 게으른 생활에 만족하지 않으며 활동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일은 이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지만 항상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일은 일하는 사람이 속한 사회적 환경과 개인적 동기에 따라 자아 실현을 돕는 것이기

도 하지만, 자아 정체감을 위협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어느 쪽도 아닌 것일 수도 있다.¹¹⁾

일이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끼치는 영향은 대략 세 가지 수준에서 나타난다. 첫째, 일은 인간이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다. '인간은 제작하는 동물(homo faber)'이라는 명제가 보여 주듯이, 대상 세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욕구에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과 환경에 대한 주체적 의식을 획득해 간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냈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반면,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상태가 계속될 때 무력감이나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 일을 하면서 인간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이며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은 인간이 자기 인격을 형성하는 주요한 축이다(차동관 외, 1999).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지식을 얻는다. 우리가 아는 것, 보는 것의 많은 부분은 일 속에서 선택된 것들이다. 또 일에서 얻는 가르침은 자신의 삶과 타인에게 적용되는 지침이 되고 세계를 이해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자신을 형성해 간다. 그러므로 일은 인간의 성격과 세계관, 가치관 등 도덕적 특성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오랜 직업 경험에 의해 독특한 사고 방식이나 태도, 행동 양식을 지니게 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한 예로, 경영인·교사·영화 배우는 각자의 관심사나 취미, 가치관, 행동 양식에서 다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경영인은 효율성이나 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데 비해, 교사는 도덕과 윤리,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쉽다. 또 영화 배우는 다른 사람에 비해 미(美)나 예술적 가치, 인간의 개성을 더욱 중요시할 것이다.

11) 현대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개인에게 자아 정체감을 주고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내는 일, 소위 자아 실현을 위한 일이다. 둘째, 자아 정체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서, 모욕적·억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일이다. 셋째, 두 극단적인 일 사이에 자아 실현도, 억압도 아닌 희미한 중립 지대가 존재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않으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것들—예컨대, 가족이나 경제적 수입 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전념 낸다.

셋째, 일은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유지해 가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일을 통해 타인과 만남으로써 인간이 지닌 자기 중심성(egocentricity)을 극복하고 사회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노동자의 식과 관련된 많은 조사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직장 생활에서 인간 관계가 가지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직업은 직장 내 동료와 고객, 사회 성원들과의 배려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많은 일과 직업은 공동의 행위, 협동, 상호 존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은 인간이 사회적 관계망에 참여하고 사회 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가 된다.

현대 사회의 여성 역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이 문제는 좀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여성이 집에서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금전적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무보수 노동이므로 '진정한 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용 관계에 포함되거나 시장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닌 경우 여성이 하는 많은 일이나 그러한 일의 결과 형성된 생산물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특히 현재와 같은 남성중심적인 일(직업) 개념에서는 역사적으로 여성이 수행해 온 일과 그에 따르는 경험들, 예컨대 양육 경험에서 오는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그 능력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늘 많은 일을 해 왔지만, '노동자'나 '일꾼'으로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또 현대 사회에서 가사 노동은 개별 가정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주부들은 심리적인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아 존중감이나 능력의 개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의식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제한되어 있다.

그 결과,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나가고 고용 관계에 들어가며,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경제적 소득을 얻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은 여성들에게 직업은 삶

의 필수 요소라는 의식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적인 필요성이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취업을 상승에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앞서 본 자아 실현이나 사회적 관계망에의 참여 욕구 등도 여성의 취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왔다.

이제 여성들, 특히 대학을 졸업하는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직업을 갖고 그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려고 한다. 직업은 여성들의 정체성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자 그들의 미래를 열어 가는 주요한 열쇠로 인식되고 있다.

4. 노동시장과 가부장제, 성별 분업

(1) 성별 분업과 성별 직종(직무) 분리

여성의 일에 대한 평가절하는 여성들이 수행하는 일 자체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 일이 수행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Kemp, 1994). 오늘날 여성들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사회 체제가 맞물리면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는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가부장제이다. 가부장제(Patriarchy)란 '성과 연령에 따른 위계에 기초를 둔 지배 체계'로서 일의 영역에서는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엄격히 다르게 규정하는 '성별 분업(gender division of labor)'을 발생시켰다. 성별 분업은 단순히 생물학적 성(sex)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고정된 사회적 성(gender)에 의해 일이 분리되는 체계를 말한다. 성별 분업은 또한 일이라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문화적인 사회 조직 전반에 걸쳐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분리를 낳고 그것의 불평등성을 지속시키는 구실을 한다. 때문에 케이트 영은 성별 분업이란 "성을 기초로 노동 과정에서 행위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체계, 성을 기초로 사회 조직에서 특정 범주의 행위자를 특정한 지위로부터 배제하는 체계, 성차(性差)의 사회적 형성을 강화시키는 체계"라고 정의하였다(Young et. al, 1986; 김정선, 1994).

성별 분업은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관철되고 있는 하나의 지배 논리이자 사회 질서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제라고 볼 수 있다.

성별 분업은 여성과 남성을 사회의 각 부문에서 분리하고 그 분리된 영역에 위계적 질서를 부여하는 체계이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회 전체를 사회(공적 영역)와 가정(사적 영역)으로 분리시키고 남녀의 전담 영역과 역할을 이념적·제도적으로 고정시켜 여성은 가사 노동의 전담자(재생산자)로, 남성은 사회적 노동의 전담자(생산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질라 아이젠스타인은 '노동과 사회의 성별 분리'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남성과 여성을 각각의 위계적 성역할 속에 배치시키며 각각의 임무를 경제 영역과 가족 영역 내로 구조화시킨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아이젠스타인, 1989).

이러한 성별 분업 체계가 사회적 노동 영역으로 확대되었을 때 성별 직종(직무) 분리(occupational/job segregation by gender) 현상이 나타난다. 성별 직종(직무) 분리란 성에 따라 직업이나 직무가 달라지는 현상으로 수평적인 분리와 수직적인 분리로 나누어진다. 수평적 분리란 여성과 남성이 다른 영역의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섬유·외복 산업에 여성이, 자동차 산업에 남성이 많이 몰려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사무직의 경우 관리·영업 부문은 주로 남성이, 사무 보조·고객 응대 부문은 여성이 전담하는 것도 수평적 분리 현상을 보여 준다. 수직적 분리란 동일한 직업 내에서 다른 등급으로 고용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낮은 등급(지위)의 일에 집중되는데, 한 예로 교수직의 경우 정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 강사/강사의 등급으로 나눌 때 지위가 낮은 강사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직업의 위계상 낮은 곳에 여성이 집중되는 것이다.

(2) 성별 분업의 역사

역사상 거의 모든 사회에서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 사이에는 뚜렷한 구분이 있었다(이남희·백영경, 1999). 그러나 원시 사회에 가까워질수록 그 구분은 희미해지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적 노동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수

림·채집 사회에서 사냥에 의해 얻어진 고기는 전체 부족민이 소비하는 음식물의 20~40%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의 식량은 식물의 열매와 씨앗, 뿌리와 잎 등으로 충당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식량 생산의 주요한 담당자는 여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젠학, 1995). 여성들은 또한 바구니, 용기 등의 도구와 의복, 그물 등의 제조, 방직, 방직, 염색, 도기 제조, 의료 행위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여성이 식량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 즉 식물의 채집이 중요한 사회일 수록 여성의 독립성이나 영향력이 컸다(정현백, 1993).

여성이 가사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은 농경 사회에 들어오면서 부터이다. 짐승의 사육과 작물의 경작을 조직하고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성이 출산과 양육에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 시기 역시 여성은 농업 생산자로서 활동하였고 방직·방직과 같은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서구 사회에서는 고대 노예제 국가가 등장하면서 여성이 담당했던 농사나 수공업이 노예 노동으로 대체되었고 여성들은 가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들의 활동은 그 이전과는 달리 음식 준비, 의복 제조, 가게 운영, 노예 감시 등의 일에 한정되었으며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도, 재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도 없었다.

중세에는 생산의 주요 기반이 가족 노동력에 있었던 까닭에 여성들도 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농민 여성들은 가사 노동에만 묶여 있지 않았고 남성들과 함께 밭 갈기, 파종, 잡초 제거, 거름 주기, 수확, 견초 만들기 등 모든 돌일을 했다. 수공업에서는 길드 제도로 인해 여성들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거나 길드에 가입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수공업자의 딸이나 부인은 가족 작업장에서 일했다. 귀족 계급 여성들은 장원 경제의 관리를 맡았고 일부는 통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성은 전문성을 결여한 미숙련·임시직 노동자로서 남성에 비해 1/3~1/2에 머무는 정도의 저임금을 받았다(이남희·백영경, 1999). 여성과 남성은 결코 평등하지 않았고 여성이 가족을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오면서 비로소 여성은 가족 내의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 개인으로서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었다. 여성들은 점차 노동시장에 편입되면서 차별적 저임금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편 가사 노동에 전념하는 전업주부(事業主婦)층이 형성된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서구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형성과 함께 재산을 소유한 남성이 전적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양을 책임지면서 여성이 가정 안에서 출산과 양육, 가사 노동에 집중하게 된 것이 그 역사적 배경이다. 동시에 시장에서의 판매를 통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생산이 지배적인 생산 형태가 되고 고용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임금 노동이 노동의 주요 형태가 되면서 고용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은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하는 가사 노동이나 무급(無給) 가족 노동의 많은 부분은 생산 노동의 범주에서 제외되고 전업주부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되게 되었다.

이처럼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생산 노동인가, 경제적인 활동인가 하는 문제는 각 시대와 사회의 생산 방식과 노동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하는 노동의 많은 부분은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노동으로 평가받지는 못한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은 상품화된 고용 관계의 바깥, 노동시장의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별 분업의 결과 여성은 가정에서 무보수 노동을 하며 남성의 임금에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이로 인해 생산 영역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고 있다.

(3) 성별 분업과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이러한 가부장적 노동 관념, 성별 분업 관념은 여성의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진다. 첫째, 여성의 가사 노동은 생산 노동이 아니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성별 분업 관념에 가사 노동을 비생산적 노동으로 보는 관점이 결합한 것은 산업화 이후의 일이다. 산업화의 전개와 함께 종래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생산 활동이 점차 가정 밖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여기에 자본가와 남성 노동

자의 이해(利害)가 결합하여 '가족 임금(the family wage)' 개념이 제도로 정착되었고 그 결과 여성의 가사 노동은 비생산적 노동이라는 관념이 형성되었다.

둘째, 여성 노동자는 2차적 노동자라는 관념이 형성된다. 여성은 출산, 양육, 가사 노동 등을 담당하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가 불연속적일 수 있다. 또 여성은 가사 노동의 담당자라는 고정 관념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출하더라도 가정에서의 역할의 연장—가사 노동과 유사한 형태의 일, 보살핌의 역할이나 보조 업무, 단순 서비스직 등—인 직업군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시간제 취업이나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에 집중되는 현상도 당연시된다. 여성을 가사 노동의 담당자로 보는 한, 여성의 취업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야 가능한 일이므로 비정규직 노동 형태들은 자연스럽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식된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동일한 고용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2차적 존재로 간주된다. 2차적 노동자란, 과거 서구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경기가 불황일 때 가계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했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경기가 호황일 때 늘어나는 일자리를 메꾸기 위해 노동시장에 진출했다가 불황이면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향이 있었음을 가리키며,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노동자와 구분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잉여적인 존재이며 경기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조절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이재인, 1998).

(4) 노동시장과 가부장제

이러한 현실을 가리켜 월비는 가부장제의 형식이 사적(私的)인 것에서 공적(公的)인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Walby, 1990).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사회 구조와 관습 체계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해 왔다는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 가부장제는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시민권의 발달로 사적인 형태에서 공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사적 가부장제가 여성을 가정 안에 고립시키고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직접적인 통제 전략을 사용하였다면, 공적 가

부장제는 노동시장과 같은 공적 영역에의 접근은 허용하지만 공적 영역 안에서 여성들을 분리하고 종속시키는 전략에 기초를 둔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과거와는 달리 배제에서 참여로의 전환이 가능해졌지만, 일단 노동시장 안에 들어오면 남성 집단과는 분리된, 그리고 대체로 남성에 비해 낮은 지위의 일에 한정되는 것이다.

이같은 노동시장 내의 가부장적 관계, 성별 분업 체계와 남성중심적 노동 개념은 현재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 개념과 현재의 노동 조직 방식이 지닌 남성중심성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과 도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천이 없이는 여성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노력한다고 해도 노동시장과 가족에 내재된 구조적 성차별의 굴레를 극복하기 어렵다. 바로 나 자신의 취업과 직업에서의 성취를 위해서도 노동시장과 가족, 사회 전반에 걸쳐 완강히 지속되고 있는 가부장적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정현, 『성별 분업』, 한국여성연구회 편, 『여성과 사회』 제5호, 창학과비평사, 1994
 라렌스·젤라, 『여성 노동의 역사』, 김주숙 옮김, 이화여대 출판부, 1995
 문시영, 『직업 소명과 책임 윤리』, 한울, 1998
 정고미라, 『노동 개념 새로 보기: 감정 노동의 이해를 위한 시론』, 『노동과 제미니즘』, 조순경 역음, 이화여대 출판부, 1999
 정현배, 『원시·고대편: 모권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회 편, 『여성과 사회』 제4호, 창학과비평사, 1993
 아이젠스타인,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이론과 사회주의 여성 해방론의 개발』, 김해경·김예령 옮김, 『여성 해방 이론의 쟁점』, 태학사, 1989
 여성평우회 편, 『제3세계 여성 노동』, 창학과비평사, 1985
 이한구, 『직업과 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차동환·김국현·김대규, 『한국인의 직업 윤리와 인식』, 정월사, 1999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채경호 옮김, 한길사, 1996
 홍두승 외, 『한국의 직업 구조』, 서울대 출판부, 1999
 Kemp, A. A., *Women's Work: Degraded and Devalued*,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94
 Parker, S., *Leisure and Work*, George Allen & Unwin, 1983
 Sayers, S., "The Need to Work", *Radical Philosophy*, vol. 46, 1987

Waring, M., *If Women Counted*, Harper & Row, Publisher, San Francisco, 1988

Walby, S., *Theorizing Patriarchy*, Basil Blackwell, Oxford, 1990

Young, K. et al., "Conceptualizing Women", *Critique of Anthropology*, vol. 3, No. 9-10

제6장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1. 차별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작업 능력을 갖추고도 원하는 직종의 취업 관문을 뚫는 것은 운이 좋은 일부 여성뿐이다. 그렇다면 취업은 곧 행복의 시작일까?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취업 여성이 자신의 능력껏 대우받으며 일하고, 순조롭게 퇴직한다는 기대를 하는 것은 아직 설부른 생각일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구조와 관행이 작동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이는 다양한 고용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다음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1999년 초 L협동조합은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명예 퇴직제를 실시하며 일차적으로 사내 부부 사원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사내 부부 중 여성 사원들에게 그들이 "명예 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을 순환 명령 휴직시킬 것이며, 순환 명령 휴직자는 2차 구조 조정 때 정리 해고 1순위가 될 것"이라고 사직 압력을 가한 결과 사내 부부 752쌍 중 688명의 여성 사원이 사직하였다.

이외에도 1994년 44개 대기업은 사무직 여성의 채용 조건으로 '신장 160cm 이상, 체중 50 kg 이하'라는 용모 제한 규정을 내걸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여성의 경우 업무 능력보다는 외모를 우선시할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식의 기업주의 가부장적 가치관이 반영된 채용 조건이었다. 이에 대해 많은 여성 단체에서 항의하였고 고령법에 용모 제한 금지 규정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얻었지만, 아직도 업무를 위한 자질과 기술 획득 이외에 외모 가꾸기를 위한 성형 수술이나 다이어트가 여전히 여성의 취업 준비 중 주요한 항목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이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남으로써 더 이상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없을 것이라는 예견이 있지만, 아직까지 여성들은 입직에서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용에 있어서 평등이란 어떤 상태이며, 어떤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인가? 또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차별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1) 차별의 개념

차별(Discrimination)이란 일반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이한 대우를 하거나,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대우를 제시할 때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무엇을 고용상의 성차별로 보고 있을까? 이에 대한 규정은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리 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고, 성을 이유로 경제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1987년에 마련된 제6공화국 헌법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헌법의 규정에 의해 고용 기회와 대우에 있어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령법에서는 1989년 2차 개정시에 차별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였는데,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고용평등법 개정방향

3.11.22(수) 장소: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 주최:한국여성개발원 후원:노동부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 방향 세미나

기타 불이익한 조건을 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합리성'을 매우 중요한 성차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특히 성차별적 관념과 관행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사회에서 합리성의 기준은 매우 모호해질 수 있다.

고평법은 여성에 대한 명백하고도 가시적인 차별인 직접 차별(Direct Discrimination)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금지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직접 차별이란 명백한 규정이나 법률을 기반으로 성별이나 혼인 여부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근로 계약에서 남성에게는 5주의 연차 휴가를 주고 여성에게는 4주의 연차 휴가를 준다거나, 교육 훈련의 기회를 남성에게만 준다든지 하는 규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업 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한편 최근 여성학자들이 주목하는 차별의 또 다른 문제는 간접 차별(Indirect Discrimination)이다.

(2) 간접 차별의 문제

서구의 차별 금지법은 남녀를 달리 대우하여 특정 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직접적 성차별에서 나아가 표면상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그 기준이 특정 성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간접 차별의 개념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간접 차별은 차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온 성차별적 관습과 관행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노동부에서 은행의 여행인 제도와 대기업의 직무 분리 및 이중 직제제와 성별 분리 호봉제가 고평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려 폐지된 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코스벨 인사 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간접 차별의 개념에 관한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코스벨 인사 관리 제도'란 종래 성별에 따라 구분되던 이중 직제제를 폐지한 후, 일반직·종합직의 직군별로 직무와 근로 조건을 구분하는 인사 제도이다. 종합직은 기업의 핵심 직무를 담당하고 승진의 제한은 없으나 기업의 전근 명령에 따라 해외 또는 지방으로 언제든지 전근을 가야 하는 반면, 일반직은 강제 전근은 없으나 임금·승진의 기회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직군의 구분에서는 직무 능력보다 결국 '전근 가능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되는 셈인데, 이러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여성들이 결과적으로 낮은 직군인 일반직에 물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이 경우 여성이 전근이 없는 낮은 직군인 일반직에 물리게 된 것은 차별인가 아닌가? 이에 대한 판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공민권법에서 사용자가 특정 조건의 지원자를 배제할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한 경우를 불평등 효과(disparate impact) 또는 간접 차별(indirect discrimination)로 정의하여 결과적인 차별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의 성차별 금지법도 남녀에게 표면상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그 기준에 적합할 수 있는 특정 성(性)의 비율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

기준의 적용이 성별에 관계 없으며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것임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상당수의 특정 성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행위를 간접 차별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코스벨 인사 관리 제도 아래에서 여성이 일반적으로 물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역할 때문이며, 따라서 임금과 승진 기회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성차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 고령법 3차 개정시에 차별의 정의 규정에서 "이 경우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본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간접 차별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경우에는 간접 차별의 개념과 객관적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서구, 특히 EU 국가들에서는 간접 차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EU법을 기초로 간접 차별의 성립 요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김영희, 1999).

첫째, 간접 차별의 개념은 외관상으로는 성중립적으로 보이나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조치나 규정, 관행들에 의해 야기되는 차별을 지칭한다.

둘째, 간접 차별은 외관상의 성중립성 여부에 따라 직접 차별과 구분된다. 즉, 논란이 된 요구나 조건이 형식적으로 특정 성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 간접 차별의 문제로 제기되며, 신장·근력과 같이 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직접 차별의 문제가 된다.

셋째, 특정 성에 속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경우 간접 차별이 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논란이 된 조치와, 다른 성에 속하는 사람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성에 속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백분율이다. 예를 들어, 1000명의 남자와 100명의 여자가 종사하고 있는 회사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회사의 노후 보장 정책에서 제외시키는 경우 남자의 10%(100명의 남자)와 여자의 75%(75명의 여자)가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면, 절대 수에 있어서는 여성보다 많은 수의 남성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비율로 비교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불이익을 받는 셈이 된다.

넷째, 간접 차별이 행해졌는가를 검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성차별이 있었느냐의 여부이다.

이상의 구성 요건이 성립할 경우 간접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는 회사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선택한 수단이 회사의 실제적인 요구에 부합되며, 목적의 달성에 적절하고 필수적일 때'에는 언급한 바와 같은 불평등 대우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그와 같은 조치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간접 차별이란 사용자의 동기(motive)나 의도(intention)를 중심으로 차별을 판단하는 관점에서 고용 행위의 결과(effect)까지 확대하여 차별의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개념인 것이다(이은영·신경아, 1999).

이상으로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직접 차별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사회 구조나 규범, 특히 성역할 분업관이나 전통적 여성관에 기초한 편견과 관행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고령법에서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 모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상의 성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자원은 이제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차별은 아직도 전고하게 남아 있다.

2. 고용 차별의 유형과 사례

그렇다면 취업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어떠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을까? 여성들은 임금 및 고용상의 대우에서는 물론 고용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금, 성별 직업 분리 그리고 모집과 채용,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과정에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차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를 몇 개의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1) 임금 차별과 남녀 임금 격차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임금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 수준의 차이는 남녀의 격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지표이기도 한데, 우리 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차츰 축소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큰 것으로 지적된다.

〈표1〉 남녀 임금 격차(전 산업)

(단위 : 천 원)

연도	여성 임금	남성 임금	여성 임금비
1985	180	386	46.7
1990	388	727	53.4
1995	790	1,360	58.1
1998	1,028	1,666	61.7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 통계 연보』, 1999, p.240

남녀 평균 임금을 비교해 보면, 1985년 이전에는 남성의 평균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의 평균 임금은 절반도 안 되는 극심한 남녀 차별 임금 구조를 나타냈다. 1990년대 이후 남녀 임금 격차가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으나 1998년 현재에도 남성의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의 경우는 61.7의 수준에 불과하였다. 남녀의 교육 정도, 근무 연한, 기술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격차는 예상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남녀의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 통계로 본 세계 각국의 남성 임금에 대한 여성 임금의 비율은 호주의 경우 90.9, 스웨덴 89.9, 프랑스 80.8, 미국 75.4이다. 이들 선진국 외에 우리 나라와 경제 발전 수준이 비슷한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우에도 싱가포르 71.4, 스리랑카 88.8의 수준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남녀간의 임금 격차는 동일한 학력을 소지한 경우에도 여전히 크게 나타난다.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동일한

대졸 학력일 경우에도 여성은 남성 임금의 74.3의 수준이다.

〈표2〉 학력별, 성별 월 임금 총액 및 임금 격차(1998)

(단위 : 원)

학력	여성	남성	여성 임금비
중졸 이하	763,681	1,326,795	57.6
고 졸	986,820	1,479,959	66.9
전문대졸	1,118,576	1,577,605	70.9
대졸 이상	1,622,288	2,183,130	74.3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 통계 연보』, 1999, p.246

물론 위의 임금 격차가 순수하게 성별의 영향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임금의 차이는 직업과 산업, 연령, 학력, 경력 등 직무 관련 요인과 관계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경우 생산성이나 직무 관련 요인을 통제하고도 남녀간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확하게 성별에 의한 임금 격차 즉, 차별 임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수많은 현장의 사례들은 우리 나라 회사나 공장의 일반적인 임금 관행을 보여 준다(김소영·이주희, 1999).

한 가정 주부(고졸, 31세)의 경우 과거에 일했던 봉제 공장에서 여자들 미싱일이 보통 월 70만 원을 받는 반면 남자들이 주로 하는 재단은 30만 원 정도 더 많은 월 100만 원이었다.

제약회사 공정 관리 직원(고졸, 28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새로 뽑는 여성들이 모두 계약직인데, 정식 사원의 경우 호봉이 6개월에 1호봉씩 올라가는 데 비해 계약직의 경우 1년에 1번밖에 안 올라간다. 지금 6급으로 들어온 고졸 여사원들은 5급이 되려면 14년이 걸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몇 년 부려먹고 시집가면 그

걸로 끝"이라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이 회사에서는 남자 직원들에게 200만 원 정도 주면 들어가서 5년 정도 살 수 있는 사원 아파트를 제공하는데 여자 직원들에게는 요청이 있어도 절대 주지 않는다고 한다.

펜서류 디자이너(대졸, 27세)가 근무하는 디자인 사무실에서는 그녀보다 늦게 들어온 남자 직원이 비슷한 금액의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들어온 여사원보다 10% 정도 월급이 더 많으나 이 남자 직원이 하는 일은 그 여직원보다 더 적다.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남녀 생산 직원의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거나, 여성의 경우 호봉 인상이나 복지 수혜의 면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경력이 낮은 남성 직원이 경력이 높은 여성 직원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 등의 다양한 상황들이 지속적인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고용 구조와 성별 직종 분리

여성의 고용과 관련된 두 가지의 중요한 쟁점은 여성이 생산 부문에 얼마나 포섭 또는 배제되었는가 하는 배제(exclusion)의 문제와 생산 영역에서 여성이 얼마나 특정한 일에 집중되어 있는가에 따른 분리(segregation)의 문제이다(B. Fine, 1992).

고용의 영역에서 여성들이 보다 뚜렷하게 경험하는 차별의 전형적인 현상은 성별 직종(직무) 분리(job segregation by gender)라고 할 수 있다. 성별 직무 분리는 뚜렷한 이유 없이 관행적으로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지칭하는데, 이같은 직무 분리는 결과적으로 남녀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모든 남성의 일이 여성의 일보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성의 일이 임금이 낮고 단순 반복적이며 장래성이 없는 일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별 직무 분리는 분리 구조의 성격상 다시 수직적·수평적 직무 분리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수평적 분리는 각각 다른 직무의 유형(types)에 노동력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고, 수직적 분리는 각각 다른 등급(grades)의 직무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C. Hakim, 1992). 물론 이 분리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기술 발전에 따른 직무의 세분화와 계속적인 등급 위계의 확대에 따라 변화되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수직적 성별 직무 분리 현상은 보수가 높고 위세가 있는 직종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보수와 위세가 낮은 부문에 여성이 집중 고용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상위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직과 행정직의 경우 여성의 비율은 10% 내외인 반면, 저임금을 받는 판매직·생산직·서비스직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 '남성=상위직/여성=하위직'이라는 분리 구조가 나타난다.

수평적 성별 직무 분리는 동일 직종이나 업종 내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담당하는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같은 생산직일 경우라도 여성들은 섬유, 전자, 봉제 등의 경공업 부문에, 남성들은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중화학 공업에 집중되어 분리되는 양상을 보인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녀를 구별하는 관념이 뚜렷하고 이에 따라 취업 현장에서도 남성 집중 업종과 여성 집중 업종의 구분이 분명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의 작업상 육체적 근력이나 기술의 측면에서 양 업종이 성별로 반드시 구분되어야 할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고용 할당제라는 정책을 통해 어느 업종에서도 한 쪽 성이 60%를 넘어서지 않도록 함으로써 각 업종 간의 성별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기계화를 넘어서 자동화 단계의 생산 공정에서 근거 없이 남녀의 역할과 직무를 분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도 성별 직종의 경계는 명확하며 이는 또다시 남성 집중 업종은 고임금 업종, 여성 집중 업종은 저임금 업종으로 구분되어 성별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같은 직무 분리의 형성에는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분

리가 업무 능력이나 기술의 차이보다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성별 분업관에 의거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직종 차별로 말미암아 여성의 취업 기회는 처음부터 단순 사무직이나 저임금 직종으로 집중되어 결과적으로 남녀 근로자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3) 모집·채용에서의 차별

고령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특정 성을 배제하는 구인 광고를 낼 수 없으며 또한 특정 성에 한정해서 채용할 수 없다. 즉, 채용에서는 남녀에 관계없이 학력, 자격, 기능, 성품 등을 평가하는 공정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공개될 것이 전제되고 있다. 그리고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성이 차별적인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경우 사용자는 자기 회사의 채용 기준이 남녀 차별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었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에서부터 남성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남성의 경우 공개 채용을 통해 진입하는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여성은 공개 채용보다는 비공식적인 소개나 추천 방식을 통해 취업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같이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공식적인 경로에 의하여 취업한다는 것은 기업이 모집·채용 단계에서 여성 구직자에게 공개적 고용 기회를 남성과 동등하게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분리 모집의 관행도 여전한데 특히 경제위기 이후 남성은 정규직으로, 여성은 비정규직인 임시직,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의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1994년에는 사무직 여성의 채용 조건으로 '신장 160cm 이상, 체중 50kg 이하'라는 용모 제한 규정이 사회적으로 크게 쟁점화되었다. 대부분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대학 진학보다는 실업계 여고를 선택하여 사무

직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여학생들에게 이같은 채용 기준은 업무 자체에 대한 능력을 기르기보다는 외모를 가꾸고, 무리한 다이어트나 성형 수술을 하게 하여 실업 교육을 파행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여성 단체 등에서 고령법 위반으로 제소하는 등 사건이 커지고, 이후 1995년 8월 고령법 개정예 용모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채용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모'는 취업 여성의 주요 요건이며 채용의 주요 요인이 되는 관행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모집 광고를 내면서 여성에게만 미혼 자격 요건을 제시하거나, 영업직·생산직·사무직·연구직 등 성별과 관련 없는 직종에 처음부터 남성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 모집·채용상의 차별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4) 교육·배치·승진에서의 차별

취업이 된 후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차별로 교육·배치·승진 과정에서의 차별이 있다. 이러한 차별은 임금 차별이나 채용 차별 등에 비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심각성이 덜 인식되어 왔으나, 이 과정에서의 차별 역시 남녀간의 고용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입사 후에 받는 사내 교육이나 업무의 순환 배치는 근로자의 능력, 기술, 경험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남녀 근로자의 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그나마 신입 사원 교육을 받은 경우는 있지만, 실제 작업에 필요한 현장 훈련(OJT)을 받은 경험은 남성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내 교육의 내용도 여성에게는 옷차림, 손님 접대 예절, 메이크업 등 업무의 본질과 관계없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전문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해외 연수나 직업 훈련 등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같은 교육에서의 차별은 업무 배치로 연결된다. 우리의 고용 관행을 보면 여성인 경우에 대개 업무 보조적인 일이나 단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배치되고, 전문 능력, 영업 능력, 관리 능력, 고급 기술이 필요한 부서에는 남성이 주로 배치된다. 따라서 여성은 기획, 관리와 같은 핵심 부서에 배치되는 비율

이 낮다. 신문사 기자와 같은 전문직의 경우에도 여성은 정치면이나 경제면 같은 주요 부문보다는 생활이나 문화면을 다루는 부문으로 배치되는 것이 당연시된다.

승진에서도 여성에게는 아예 승진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자신의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승진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하급직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다. 다음 사례는 우리 나라 기업에서 여성이 겪는 승진 차별을 보여 준다(김소영·이주희, 1999).

한 보험 영업소 사무직원(고졸, 34세)은 13년간 승진이 안 되고 있다. 승진 조건을 갖추었으나 승진되지 않았다. 첫 해에는 여자들이 모두 승진되지 않아서 넘어 갔지만 두 번째 해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고졸인 경우 대졸 수준으로 올라가는 데 남자는 6년, 여자는 7년 걸리고, 특별 승진의 경우 가장이라는 이유로 주로 남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회사에 항의도 했고 노조를 통해 이의 제기도 했지만 대치는 미미했다. 여성은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노조는 회사와 관계가 나빠지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에 의뢰했으나 회사가 무마시켰다. 개인적으로 싸움을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도움을 청하더라도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곳이 별로 없다.

속옷 회사 경리직원(고졸, 24세)의 경우 같이 근무하는 영업직 남자 사원은 3년 정도만 근무하면 대리로 승진하지만 여자 사원은 특별한 승급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체로 여자 사원은 근무 연수가 10년이 넘어야 대리로 승진한다고 한다. 그녀는 승진이나 월급이 남자 사원과 너무 차이가 나서 더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승진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회사 내의 주요 결정직에 도달하기가 어렵게 되며, 여성 임원이 없는 기업 상황 속에서 여성들

을 위한 고용 정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서구에서 여성의 승진 문제를 '유리 천정(Glass Ceiling)', 즉 공식적 승진 제도는 있으나 관행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승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양태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아예 위로 올라가는 길이 보이지도 않는 대리석 천정 혹은 철 천정이라는 자조 섞인 비유로 묘사되는 것이 현실이다.

(5) 정년·퇴직·해고에서의 차별

정년·퇴직·해고 등에서도 역시 법적으로 차별이 금지되어 있으나, 우리의 고용 관행에서는 동일 직종에서 직무 수행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간 정년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같은 정년 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된 첫 번째 사례는 1983년 고령법 시행 이전 여성들이 대다수인 교원직 종의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12년이나 낮게 정한 한국통신의 조치를 들 수 있다. 이후에도 일반직은 58세, 교원직은 53세와 같은 부당 정년 차별의 관행은 계속되었으며, 1990년 어느 대학에서는 여성 사무 보조원의 정년을 28세로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퇴직과 관련한 여성 차별에서는 여성의 결혼이나 임신울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관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1970~1980년대에는 여사원의 고용시 결혼하거나 임신하면 퇴직하겠다는 '결혼 퇴직 각서' 등을 공공연하게 요청하였으나, 고령법의 제정 이후에는 이같은 노골적인 사례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이 결혼·임신·출산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지방으로 발령하거나 비정규직으로 근로 조건을 변경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제 위기 이후 기업들이 구조 조정이라는 명목하에 결혼·임신 퇴직제를 노골적으로 부활시켜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기도 하였다(한국여성민우회, 1998).

이처럼 취업 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여성들 스스로가 주체적인 인식을 갖고 대응한다면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한층 교묘해지고 있는 다양한 간접 차별 사례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간접 차별을 폭넓게 인정하고 구체적 대응을 통해 차별을 시정해 가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좀더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다.

3. 간접 차별과 그에 대한 대응 사례

간접 차별은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외관상으로는 성중립적으로 보이거나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조치나 규정, 관행들에 의해 야기되는 차별을 지칭한다. 유럽이나 선진국의 간접 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이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다음의 사례는 독일의 한 백화점에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간접적인 임금 차별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던 판례이다.

빌카(Bilka) 백화점 사례의 사건 개요

빌카 백화점 주식회사는 수천 명의 근로자가 소속된 독일의 백화점으로, 회사 종사자들에게 수년 전부터 회사의 노후 연금을 보장해 왔다. 이 연금의 근거이자 여러 번 개정된 적이 있는 연금 규정은 빌카와 그 종사자 간의 근로 계약의 일부로 효력이 있었다. 1973년 10월 26일자의 규정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는 20년 이상 근무하였고 이 중 15년을 종일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만 회사의 노후 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베버(Weber)라는 여성은 빌카 백화점에서 1961년부터 1976년까지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처음에 그녀는 종일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1972년 10월 1일부터 근로 관계가 종료된 때까지는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그녀가 종일제 근로자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빌카는 그녀에게 회사의 노후 연금에 대한 기대권 인정을 거부하였다. 베버는 이를 이유로 독일 노동관할노동법원에 소를 제

기하였다. 그녀는 무엇보다 회사의 노후 연금이 유럽경제연합조약 제119조가 보장하고 있는 남녀 동등 임금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EU법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에 관한 법적 고찰』, 1999, p.63~65

위의 경우 베버라는 여성은 차별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은 다시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선결 심판 청구를 구하였는데, 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여성이 종사하는 백화점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회사의 노후 연금의 자격권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불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즉 간접 차별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히 성차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간제 근로자를 적게 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불리한 조치를 취했는데 문제가 되느냐 하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빌카가 시간제 근로자와 종일제 근로자 간에 시간당 임금에 있어 차이를 두지 않고 다만 종일제 근로자에게만 연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연금도 광의의 임금이라고 할 때 전체 임금은 종일제 근로자가 많이 받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남성에 비해 극히 적은 비율의 여성만이 종일제 근무를 한다면 회사가 시간제 근로자를 노후 연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간접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회사의 조치가 성차별과 무관하며 시간제 근로자를 적게 고용해야 할 실제적인 필요에 의한 방법임을 입증한다면 간접 차별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단서를 함께 달아 놓았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간접 차별은 입증의 과정에서 직접 차별보다는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여성들이 이같은 과정의 어려움에 비추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많은 정책들을 개선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간접 차별에 대한 본격적인 판례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취업 현장에서 간접 차별로 작용할 수 있는 많은 제도와 정책이 존재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신인사 제도의 종합직/일반직 구분, 군복무자 가산점제,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구조

조정시 여성 우선 정리 해고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사례 중 최근 가장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문제 중의 하나는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여성 채용 차별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사건이다.

1997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면 제대 군인이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교육법에 의한 학교,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 또는 공·사 단체의 채용 시험에 지원하는 경우 3~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였다.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총점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므로, 이와 같은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남녀간 고용 기회의 격차를 크게 벌여놓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과 군대를 가지 못하는 장애인 등 6명이 위의 법률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헌법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위헌 판결 직후 많은 남성들이 크게 반발하며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해 여성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 우리 사회는 심각한 여론 분열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가 봉사 경력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여 남성의 군복무 경력과 여성의 사회 봉사 경력에 대해 일정하게 인정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위의 간접 차별 사례에서처럼 이제 차별 개념은 사용자의 동기나 의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고용 행위의 결과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인의 의도를 중시하는 직접 차별과 달리 간접 차별은 차별이 개인에 의한 의도적이거나 자의적인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성차별은 사회의 관습·제도·편견 등의 구조적 산물이므로, 이제 형식적으로 공정하다고 해도 기능상 차별적인 행위와 관행까지 문제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이같이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를 통해 그것의 현실적 효과까지 고려하여 그 범위를 넓혀나갈 때 뿌리깊은 관행을 시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고용 차별에 대한 대응과 개선 방안

(1) 고용 차별에 대한 주요 대응 사례

노동시장에서 행해지는 불평등과 차별로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이에 대해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성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여성이 처한 상황의 불합리성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차별의 문제를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한 대표적인 사례는 전화 교환원이었던 김영희씨가 제기한 차별 정년 사건이다. 한국통신은 여성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교환직의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12년이나 낮게 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1983년 처음으로 성차별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당시 법원에서는 이를 여성 차별이 아니라 교환원이라는 직종의 특수성과 회사의 인력 수급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1988년 고평



한국통신 교환원 김영희씨의 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여성 단체 회원들이 여성 정년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정시 여성 우선 정리 해고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사례 중 최근 가장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문제 중의 하나는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여성 채용 차별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사건이다.

1997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면 제대 군인이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교육법에 의한 학교, 1일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 또는 공·사 단체의 채용 시험에 지원하는 경우 3~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였다.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총점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므로, 이와 같은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남녀간 고용 기회의 격차를 크게 벌여놓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과 군대를 가지 못하는 장애인 등 6명이 위의 법률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헌법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위헌 판결 직후 많은 남성들이 크게 반발하며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해 여성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 우리 사회는 심각한 여론 분열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가 봉사 경력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여 남성의 군복무 경력과 여성의 사회 봉사 경력에 대해 일정하게 인정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위의 간접 차별 사례에서처럼 이제 차별 개념은 사용자의 동기나 의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고용 행위의 결과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인의 의도를 중시하는 직접 차별과 달리 간접 차별은 차별이 개인에 의한 의도적이거나 자의적인 행위로부터 발생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성차별은 사회의 관습·제도·편견 등의 구조적 산물이므로, 이제 형식적으로 공정하다고 해도 기능상 차별적인 행위와 관행까지 문제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이같이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를 통해 그것의 현실적 효과까지 고려하여 그 범위를 넓혀나갈 때 뿌리깊은 관행을 시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고용 차별에 대한 대응과 개선 방안

(1) 고용 차별에 대한 주요 대응 사례

노동시장에서 행해지는 불평등과 차별로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이에 대해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성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여성이 처한 상황의 불합리성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차별의 문제를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한 대표적인 사례는 전화 교환원이었던 김영희씨가 제기한 차별 정년 사건이다. 한국통신은 여성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교환직의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12년이나 낮게 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1983년 처음으로 성차별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당시 법원에서는 이를 여성 차별이 아니라 교환원이라는 직종의 특수성과 회사의 인력 수급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1988년 고평



한국통신 교환원 김영희씨의 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여성 단체 회원들이 '여성 정년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 후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 재판결되는 과정에서 남녀간의 차별 대우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일단락되었지만 고등법원은 판결 당시 일반직은 58세, 교원직은 53세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조치를 내렸고, 이것이 다시 제2차 성차별 분쟁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1992년 김영희씨는 이것 역시 성차별이라고 제기하였고 이에 1995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례가 여성 전용 직종을 이유로 한 정년 차별에 해당하며 이 퇴직 조치는 무효라고 결정하고 복직 결정과 함께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1998년에 철도청은 여승무원을 모집하면서 면접 시험시 여성 응시자들에게 '반팔 상의에 스커트 차림'을 요구하고 응시자 한 사람씩 '일정 거리를 걸어 보라, 뒤돌아 보라'는 등 업무 능력과는 관계없는 행동을 요구하였다. 이에 여성 단체들은 이같은 조치는 외모 위주의 채용 의도가 나타난 것으로 응시생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항의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면접시 여성 면접관을 포함시키고, 근무 복장에 바지를 추가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할 것을 약속받기도 하였다.

한편 취업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인 성희롱에 대한 대응 사례도 1993년 우조교 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1999년 고령법에 성희롱 금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취업 여성들이 개별적, 집단적으로 성희롱에 대처하게 되었고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크게 환기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고용 차별에 대한 여성 도전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인턴 채용시 여성 합격자 수를 제한한 병원의 조치에 항의하고, 여성 일용직 임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남녀 분리 호봉 제도를 적용하는 회사에 대해 대응하였으며, 결혼하면 무조건 퇴직하고 연 단위로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항공사의 조치에 도전한 여승무원의 사례 등등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고용 차별에 곳곳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이같은 대응이 모두 여성들의 승리로 귀결된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비난과 협박, 회유 등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차별적인 사회적 관행에 도전한 이들 개인과 집단의 노력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시

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 고용 차별 개선 방안

그렇다면 우리 노동시장에 만연한 고용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기로 하자.

첫째, 여성 고용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개인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 확립과 권리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이를 보완·지원해 줄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시행이 함께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의 수차례 개정과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많은 법적·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도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성역할관을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을 피해자나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평등권'을 보장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남녀 평등의 의미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차별 개념에 대한 인식의 확대, 특히 간접 차별의 개념과 성차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별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성차별의 관행, 이데올로기에 의한 결과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남녀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서구에서는 다양한 입법을 통해 간접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의 경우 간접 차별 개념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신인사 제도, 군복무자 가산점 제도, 비정규직의 문제, 여성 우선 정리 해고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역시 간접 차별의 개념을 통해 새롭게 조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규정 적용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녀간의 임금 격차는 차츰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도 세계에서 남녀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몇 나라에 속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미 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을 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동일 노동(同一勞動) 동일 임금(同一賃金)의 원칙이란 노동자의 동등한 가치와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 현장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숙련성, 연령, 학력이나 고용 형태(임시직, 용역직, 시간제)에 따라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아닌 사회적, 제도적 불평등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임금 격차 및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의 기본 원칙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칙은 개별 노동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능력의 차이를 전혀 무시한 채 모두 균등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절대적 평등주의 요구가 아니라 노동력의 차이를 전제하여 이러한 차이에 상응하는 취급을 받는 상대적 평등주의 요구이다. 이 원칙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1951년 제100호 조약과 90호 권고에서 남녀 노동자에 대한 동일 보수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기초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으로 재해석되었으며, 이 조약에 비준한 나라는 127개국에 이른다. 즉, 동일 노동이라 함은 '똑같은 노동(same work)'이나 '유사한 노동(similar work)'을 포함하지만 최근에는 보다 광범위 의미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노동(work of comparable worth)'으로 이해되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에 관한 조항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제외되었으나 1989년 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제화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에 의하면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제6항) 여자가 동일 가치 노동의 직종은 노동 수당에서 오차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으로 규정했다고 되어 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나 임금 차별을 받는 집단과 밀접하게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성의 기술에 대한 사회적 평가, 노동의 책임 수준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어떻게 그 사회에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진정한 의미의 동일 가치 동일 임금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 1993

다 구체화하고 적용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동일 가치 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괄적인 표준 직무 분석표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직무 평가에서도 성차별을 방지하려는 노사간의 제도적 노력과 같은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동조합의 고용 평등 실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남녀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남성중심성과 가부장적 성격으로 인해 노동자의 일반적인 권익 문제는 중요하게 취급해 왔지만 여성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도외시하여 왔다. 여성 노동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조 임원이 대부분 남성이고, 가사를 병행하고 있는 여성 조합원이 활동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조합 문화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면서 여성의 노조 참여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우선 기존 노동조합은 여성 노동자의 권익에 눈을 돌려 조합을 강화하고 남녀 평등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며, 전국여성노동조합, 지역별 여성노조 등 대안적인 노조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이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 또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남녀 차별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제도 역할이 실질화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남녀 차별 금지법에 의해 구성된 남녀차별개선실무위원회가 남녀 차별에 대한 조사, 조정, 시정 권고, 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의 역할은 아직 미미하며, 양 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확대 개편된 만큼 남녀 차별 문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기구, 예를 들면 미국의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와 같은 기구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경희, 「남녀 고용 평등과 적극적 조치의 정치 : 미국 AT&T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미국의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미국의 고용기회평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는 행정적, 사법적 실행, 교육과 기술적 지원을 통해 고용 평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는 준사법권과 준입법권을 갖는 평등 고용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1965년 설치되었는데, 설립 근거가 된 법률 조치는 1963년에 제정된 동등 임금법(Equal Pay Act)과 1964년에 제정된 인종 차별법, 성별 종교, 국적에 의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공민권법 제7편(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이다. 1998년 현재 EEOC의 구성원은 2,600여 명이며 이 위원회 내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65.5%이다.

EEOC의 주된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고용상의 차별을 받은 여성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구제 활동이다. 이 위원회는 매우 강력한 법 집행력을 갖고 있으며, 차별 사건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 간의 중재, 그리고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 소송이나 강력한 집단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는 고용 홍보 및 가이드 라인의 제시이다. 기존의 법원의 판결이나 EEOC가 중재나 법적 소송에 관여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성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 라인은 여성고용정책이 실행되면서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줄이는 것은 물론 고용주들이 고용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할 지침의 역할을 한다.

셋째는 각종 통계 자료의 수집과 출판이다. 통계 자료는 여성을 포함한 소수 집단과 고용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적 차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EEOC는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과 학교, 공공 기관 등에 대해 통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소수 집단과 여성의 고용 지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고용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자료가 된다.

김경희, 2000 참조

2000

김소영·이주희, 「고용 차별의 유형과 효과적 대처 방안」, 노동부, 1999(미간행)

한국여성개발원, 「통일 노동 통일 임금에 관한 연구」, 1993

한국여성개발원, 「남녀 고용 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1999

김영희, 「EUI법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여성개발원, 1999

이은영·신경아, 「간접 차별 보고서」, 1999(미간행)

Pine, B., *Women's Employment and the Capitalist Family*, Routledge, London, 1992

Hakim, C., "Explaining Trends in Occupational Segregation: The Measurement,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8, p.929-949, 1992

제7장 여성노동시장 이론

1. 여성들은 왜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가?

1. 성불평등에 대한 접근 방식

앞 장에서 우리는 취업률이나 임금, 기타 노동 조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노동 조건의 격차에 대해서 사회 과학 각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제시해 왔다. 이는 크게 개인에 초점을 두는 이론과 구조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나누어진다. 최근에는 기존의 사회 과학적 설명에 내포된 남성중심성을 비판하면서 여성주의 연구자들이 새로운 설명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에 대한 사회과학적 설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노동시장 안에서의 수요-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어 개인을 분석의 단위로 삼는 접근이며, 다른 하나는 거시 사회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성불평등의 근원과 이를 지속시키는 구조적 요인을 찾으려는 접근이다.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를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설명하는 전자의 논의는 주로 주류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접근법이다. 보다 구조적인 설명을 제시하려는 후자의 연구는 좌파 사회 이론과 여성주의적 관점을 지닌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직업 선택과 관련된 개인적 의사 결정을 경제적 동기와 개인적 선호(또는 기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블라우·퍼버, 1994 : 252~253). 또 여성 노동자 개인적 선호의 형성과 선택 역시 자발적인 것으로 보아 그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반면 구조적 접근을 취

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선호를 사회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개인적 선택 역시 사회적 조건화나 제약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로 본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의 분석을 위해서는 개인적 조건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구조적 체계와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2. 개인적 접근

(1) 인적 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에 관한 설명들 중 노동력 공급자인 여성 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시각에 선 인적 자본론이 있다. 이 이론은 임금 등 성별 노동 조건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남녀 노동자가 지닌 생산성의 차이에 있으며,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는 노동자 개인이 지닌 인적 자본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적 자본량이 적으므로 생산성이 낮고, 그 결과 저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져 온 여성 노동 관련 연구들 중 대다수가 이 시각에서 수행되어 온 만큼 학문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이론이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 관념들 중 많은 부분도 이 시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와 이로부터 형성되는 역할의 차이를 전제로 한다. 여성은 생물학적 출산자이므로 양육의 역할을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바로 이러한 출산자이자 양육자의 역할이 여성에게 주어 진 1차적 의무라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전통적 성역할(sex role)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기꺼이 감수한다고 본다. 따라서 신고전주의 모델에서 여성은 전통적인 성역할, 즉 가족에 대한 보살핌과 헌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이것에 기초를 두고 경제적인 선택을 해나가는 존재로 규정된다. 여성의 낮은 경제적 지위를 그들이 선택한 행위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전문화와 교환' 모델이다(블라우·퍼버, 1994 : 65~71). 이 입장에 선 이론가들은 가족이란 자

신들의 복지와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성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단위라고 본다. 가족의 목표는 가족 단위의 효용과 만족 극대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 구성원들은 가족 간의 노동 분담, 즉 가정과 시장 사이에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가족원 중 한 사람은 시장 생산에, 다른 한 사람은 가정 생산에 전문화되어 있을 때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가정이 제시된다. 이때 남성은 시장 생산 즉 사회적 노동에서, 여성은 가정 생산 즉 가사 노동에서 비교 우위를 지니는 것으로 규정된다. 여성은 자녀를 출산하므로 남성에 비해 생리적으로 가사 노동에 더 적합하리라고 가정되는 반면, 전통적인 성별 분업에 따라 남성은 사회적 노동에 더욱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화에 따라 각자의 노동 생산물 교환시 가족의 만족도와 복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분석은 남성은 가족의 생계 부양자이며 여성은 가정 주부라는 보수적인 가족 모델에서 출발하여 그것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에 대한 인적 자본론의 분석은 바로 이같은 가족내 성역할 모델을 전제로 한다.

인적 자본론은 여성의 저임금을 여성이 지닌 인적 자본량의 부족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여성의 경우 왜 인적 자본량이 적은가? 먼저 이 이론은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으로서 임금만 순수히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노동자가 지닌 인적 자본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인적 자본이란 노동자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인적 특성으로, 공식적·비공식적 교육과 현장 훈련에 의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인적 자본량을 늘려가려 하지만 이에 따르는 소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교육과 훈련 대신 취업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개인들은 인적 자본 투자에 의해 기대되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여 자신이 받을 교육 기간과 수준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기대이다.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를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한 전망에 따라 현재의 교육 투자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적 자본론은 바로 이 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인적 자본 투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본다. 여성은 가사 노동과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불연속적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부모나 여성 스스로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필요한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교육과 훈련의 효과가 남자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노동시장 구조 역시 여성의 인적 자본 투자량을 제한하는 원인이 된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보상을 제공하는 직업은 남성에게, 그렇지 못한 직업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성별에 따른 직업 분리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한, 여성은 실제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이 낮게 나타나므로 인적 자본 투자에 소극적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여성들은 특정 직업들, 다시 말해서 육아를 포함한 가사 노동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인적 자본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일과, 불연속적인 취업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적고 이직과 재취업이 쉬운 직종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업들은 대부분 직업의 위계상 하위직에 머물러 있고, 기술 수준 면에서는 미숙련 단순 노동직, 그리고 저임금 직종이다.

인적 자본론이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여 주는 문제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교육과 훈련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인적 자본론의 가정은 근거가 불확실하다. 성별·학력별 임금 격차에 관한 연구들은 교육이나 경력 등 인적 자본량의 차이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이나 훈련 경험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선택하는 선발 장치(a screening device)에 불과할 뿐 언제나 노동자의 생산성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둘째, 인적 자본론은 노동시장의 모습을 개별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고용주가 노동자의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을 주는 완전한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은 성이나 학력, 인종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일정하게 분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본 성별 직업(직무) 분리는 그 대표적인 예이

다. 이같이 분리된 체계는 노동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며, 노동자의 능력과는 별도의 비합리적 요인들이 개입하여 노동자 간 단순한 차이에서 차별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셋째, 인적 자본론은 노동시장 외부의 성차별적 조건들을 주어진 전제로 가정한다. 여성은 양육과 가사 노동의 전담자라는 성별 분업 관념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이 이론은 교육과 노동에서의 다양한 성차별을 당연시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에 들어오기 이전에 여성에게 주어지는 성차별을 무시한 채 노동시장 안에서의 형식적인 공정성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여성의 인적 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누적된 장애 요소들을 간과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차별적 기호 이론과 통계적 차별 이론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입장인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며 해명하려는 시도로 차별적 기호 이론과 통계적 차별 이론이 있다. 경제학자 베커(G. Becker)는 노동시장에서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는 이러한 차별의 이유로 개인적 편견이나 기호를 지적하였다. 개인이 가진 잘못된 신념이나 선호가 노동시장에서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좀더 세분해 보면 차별은 고용주에 의한 차별, 종업원에 의한 차별, 소비자에 의한 차별로 나누어질 수 있다. 고용주들이 지닌 개인적 편견에 의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이 동료 종업원, 특히 남성 종업원의 개인적 편견에 의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처럼 고용주나 동료 종업원처럼 같은 조직 내에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관계를 맺는 소비자, 고객들도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특정 회사에서 생산한 상품의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나 특정 집단의 노동자들을 기피하는 경우 차별이 발생한다.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삼으면서 차별 개념을 좀더 체계화한 이론이 통계적 차별 이론(Statistical Discrimination Theory)이다. 이 이론은 노동시장 내 여성의 낮은 지위를 노동시장의 불완전한 정보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로 설명한다. 경

제학적 분석의 대상인 노동 비용(인건비)에는 노동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요소 이외에 고정 비용 부분이 포함되는데 채용과 훈련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그것들이다. 기업은 훈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기업이 요구하는 훈련을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채용하려 한다. 이때 채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산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여기서 통계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 개인의 생산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요구되며 사실상 이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은 노동자의 생산성과 관계가 깊다고 간주되는 각종 지표들, 예를 들어 성, 연령, 학력, 경력 등을 가지고 개인을 평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통계적 차별이 발생한다. 흔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7대학 출신보다는 2대학 출신이 생산성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이것을 기준으로 노동자를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다. 개인의 능력과 노동의 질은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균적인 속성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판단할 때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통계적 차별이라 한다.

고용주들은 종래의 성역할 고정 관념에 따라 대체 비용이나 훈련 비용이 많이 드는 직무에는 이직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성의 채용을 기피하거나 하위직에 한정시키는 관행이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출산과 양육 기간이 길고 노동 공급이 불연속적일 가능성이 크므로 훈련의 효과가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적 특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겉으로는 생산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집단의 구성이 이질적일수록, 집단 내 구성원들의 차이가 클수록 이같은 평가 방식은 더 큰 오류를 낳게 된다. 여성 집단 내에서도 업무 지향적인 의식과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려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성역할 고정 관념에 근거를 둔 노동자의 선발 방식은 더욱 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또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특정 유형의 직무

들, 즉 임금이 낮고 승진 기회가 적으며 근속에 대한 보상이 없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들에서는 남녀 노동자 모두 이직률이 높다고 한다. 직무의 성격 자체가 불안정하여 노동자들의 이직이 조장되는 것이지, 특정 노동자 집단의 집단적 속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이직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여성들이 이러한 유형의 직무들에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계적 차별 이론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고용주들이 지닌 편견이나 사회적 관행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논리적인 가정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이 이론은 여성들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는 궁극적인 이유에까지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양육과 가사 노동을 여성이 전담해야 하는 문화일수록 여성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혼잡 가설(the Crowding Hypothesis)

이 이론에서는 여성들 스스로 '여성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낮은 지위를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여성들은 가사나 양육의 부담 때문에 가정 생활과 양립할 수 있는 몇몇 직업들을 선택하며, 그 결과 소수의 직업에 다수의 여성들이 불비는 현상, 즉 노동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여성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들이 집중된 직업들이 가사 부담과 양립하기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가? 이를 반박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가까운 예로, '간호사'라는 직업을 생각해 보자. '간호사'라는 직업은 상식적으로 여성적 직업이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간호사들의 실제 노동 조건을 보면, 보통 3교대제로서 규칙적으로 야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사나 양육을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점은, '왜 여성들이 간호사라는 특정 직업을 선호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성들이 특정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그 직업들이 사회적 관념상, 관습상 여성의 직업으로 인식되어 온 점과, 앞 장에서 본 '성역할 사회화'

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처럼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여성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설명들은 분석 단위를 개인, 특히 노동력을 공급하는 여성 개인으로 설정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시킬 위험을 갖는다. 이러한 개인적 접근은 노동력 공급자인 개인들이 처한 구조적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회의 평등에만 관심을 갖는다. 또 문제의 원인을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수요 측면의 구조적 차별을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구조적 접근

(1) 이중 노동시장론

이중 노동시장론은 노동시장이 하나의 동질적인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노동시장-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각각의 노동시장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직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1차 노동시장은 고용 안정성, 높은 임금, 승진 사다리, 직업 훈련 등을 보장 받는 직업들로 구성된다. 특히 배치, 임금, 승진 등은 외부 시장과 격리된 내부 노동시장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며, 외부 노동력의 충원은 오직 입직구(入職口)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2차 노동시장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시적이며 저임금에 낮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며, 승진 기회가 없거나 극히 적고, 직업 훈련 기회도 거의 없는 직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나 의사, 대기업의 대졸 사무 관리직 사원 등이 1차 노동시장에 속한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직업들은 전문적 지식, 일정한 수준의 업무의 자율성과 권한, 고용 안정, 상대적 고임금, 장기적인 전망 등의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하여 학습지 교사, 백화점의 시간제 판매원, 영세 기업의 임시직 근로자, 은행의 계약직 사원,

기업의 별정직 사원 등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하며 임금 수준도 낮다. 이러한 직업들이 2차 노동시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이중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여성은 2차적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대표적 집단이다.

이중 노동시장론은 여성이 받는 불평등한 대우를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한 걸음 나아간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개인적 접근들이 가정하는 완전 경쟁 노동시장 모델이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노동시장의 불완전성과 불평등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 이론에서는 노동시장이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만을 언급할 뿐, 왜 굳이 여성이 2차 노동시장의 주요 노동력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왜 굳이 여성이 2차 노동시장에 물리고 저임금 노동자가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페미니즘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페미니즘 이론

여성들은 왜 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가? 페미니즘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부장제가 그것으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구조가 가정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곳곳에서 여성의 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페미니즘 이론가들이 모두 동일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페미니즘에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고 있고, 각 이론에서 제시하는 여성 노동에 관한 설명 역시 차이가 있다. 페미니즘 이론 내에서 여성 노동 문제에 대한 설명은 주로 마르크스주의적 문제 의식을 갖는 접근과 성(gender)의 차원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나누어진다.

①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여성 노동 문제에 대한 초기 논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마르크스주의적 분석틀을 도입하여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분석하려는 연구들이다. 이 이론

은 불평등한 계급 관계를 토대로 한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가 여성의 종속성을 설명하는 데 일차적인 요인이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노동 가치론과 자본 대 노동의 계급 체계에 대한 논의 속에서 여성이 노동자로서 지니는 지위를 설명하려는 접근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로 일하는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잉여 가치의 생산자이지만, 남성에 비해 초과 착취되는 존재이다. 즉 여성은 값싼 노동력으로서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거나 산업 예비군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산업 예비군(Industrial Reserve Army of Labor)이란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 유입되거나 방출될 수 있는 예비 노동력으로, 일반적으로 호황기에 노동시장에 들어와 불황기에 퇴출되는 속성을 갖는다. 이처럼 수적 측면에서 노동력의 공급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언제라도 경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 예비군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그 결과 산업 예비군은 직업의 상실이라는 위협을 통해 취업자들의 임금을 낮게 유지시켜, 자본가에게 생산과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여성은 역사적으로 산업 예비군으로 활용되어 온 대표적인 집단이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로 존재해 왔고 가정 주부로서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숨어 있는' 노동력으로 기능해 왔다(소콜로프, 1990:160). 대표적인 예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서구 사회 여성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군대 징집으로 인해 빈 남성들의 일자리에 여성들이 충원되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 남성들이 복귀하자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는 여성이라는 집단이 노동시장에서 산업 예비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도 가사 노동과 양육의 부담을 가진 여성들이 노동력 수요에 따라 활용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Beechy, 1979).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에서는 노동시장의 분절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적 차별 구조로 설명한다.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에서 자본은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구조를 계층화하고, 노동력의 자연적·사회적 차이를 기초로 노동자

집단을 이질화함으로써 분할 지배(divide-and-rule)를 피한다. 이러한 분할 지배의 결과가 노동시장의 분절이다. 이러한 분절은 자본이 노동자를 통제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인종이나 성,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을 토대로 노동자 집단을 구분한 후 서로 경쟁하게 만들으로써 노동자 계급이 단결하고 연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性)은 노동력의 자연적 차이의 하나로써 노동시장을 분절화하는 가장 중요한 차별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②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 문제를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별개의 두 구조가 상호 작용하여 초래한 모순으로 설명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문제의 원인을 주로 계급 관계에서 찾는 데 비해,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자본주의적 구조 이외에 가부장제라는 독립된 억압 구조가 있고 이것이 여성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본다.

대표적인 이론가 하트만(H. Hartmann)은 가부장제를 '여성 노동력에 대한 남성의 통제'로 정의한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가부장제는 여성 노동력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물질적 기초를 확보하며 이것을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여성 노동력에 대한 통제는 가정에서의 가사 노동과 사회에서의 생산 노동, 양 측면에서 모두 존재한다. 여성의 가사 노동은 가정 안에서 남성 노동자에게 무급(無給)으로 주어지고, 자본이 부담해야 할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본가 계급에게도 이익을 준다. 이러한 가사 노동의 부담으로 인해 여성은 사회적 영역에서 직업을 갖더라도 남성에 비해 열등한 노동력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합은 여성이 경제적인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여성의 성(sexuality)을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8세기 영국에서 노동자 계급 남성이 노동조합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가족 임금과 보호입법을 통해 여성을 가정으로 돌려 보내려고 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트만은 노동조합 역시 가부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하트만, 1985).

하트만은 가부장제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의 하나가 성별 직업(직무) 분리라고 본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優位)를 유지하는 1차적 기제이다. 이러한 성별 직업(직무) 분리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낮은 임금을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미혼 여성은 결혼을 통해 남성에게 의존하라는 압력을, 기혼 여성은 가사 노동을 전담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임금이 낮기 때문에 결혼을 선호하며 남성에게 의존하게 되고, 기혼 여성들은 남편들을 위해 가사 노동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다. 이같은 성별 직업(직무) 분리 구조에서 남성들은 임금 노동과 가사 노동 모두에서 이익을 얻게 된다. 하트만은 바로 이와 같은 가부장적 구조에 의한 성별 직업(직무) 분리와 가사 노동 전담이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를 낮게 만드는 근본적 요인이라고 지적한다(하트만, 1988).

이러한 성별 직업(직무) 분리는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탈숙련화(deskilling)가 가부장적 구조와 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탈숙련화란 새로운 기계와 기술의 도입으로 노동자에게 체화된 기술과 지식이 기계로 이전되면서 노동자의 기술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탈숙련화 과정에서 여성은 저숙련 노동력으로서 남성을 대체한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직 노동의 탈숙련화에 따른 여성 사무직 노동자의 증가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분절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이 열등한 노동자인 것이 아니라 2차 노동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2차적 노동자가 된다고 설명한다. 양육과 가사 노동의 책임으로 인해 여성은 2차 노동시장으로 물리기 쉽다. 2차 노동시장에서는 승진이나 훈련의 기회가 없으므로 근속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지고, 고용 안정성이 결여되어 실업률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2차 노동시장에 들어감으로써 2차적 노동자의 특징을 갖게 되고 임금이나 노동 조건의 면에서 남성과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4. 페미니즘의 새로운 도전

여성주의 시각에 선 연구자들은 노동시장 내 여성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과 이론이 여성의 노동 경험을 설명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여성 노동과 관련된 학문적 탐구, 특히 경제학 자체가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형성된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우리가 주류 경제학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학문의 체계는 19세기 경제학이 사회과학 내 분과 학문의 하나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다른 시각을 배제하고 자신의 패러다임을 정통으로 인정해 온 역사적 실천의 산물이다. 따라서 경제학의 학문적 전제와 인간관, 인식론과 방법론에는 집단으로서 남성이 지닌 역사적 경험과 문제 의식이 깔려 있다. 때문에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여성의 경험과 그것을 통해 형성된 독특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학적 개념과 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고 그것을 학문적 방법론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여성주의 입장론(Feminist standpoint epistemology)의 주된 작업이다. 입장론이란 단순히 여성이라는 집단의 주변적인 삶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여성 집단의 경험에 기초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전체 사회 질서를 설명하려는 여성주의적 시도의 하나이다(Harding, 1992). 여성주의 입장론에서는 단순히 기존의 사회과학에서 여성에 대한 논의가 빠졌으므로 보충해야 한다는 지적을 넘어서, 여성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사회 과학의 제 개념이나 이론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이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주류 경제학이 지닌 기본 가정을 수정하고, 전통적으로 무시되어 온 변수들을 포함시키거나 주요 개념들을 재정의하는 등 여성이 직면한 특수한 삶의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Humphries, 1995).

이러한 시각에서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사회과학적 설명에 대해 이론적, 개념적, 방법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 주류 경제학의 남성중심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학 연구자들은 보

편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누구나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학문상의 제 개념과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여성의 경험에 기반을 둔 새로운 개념과 이론들을 구성하려고 노력해 왔다.

첫째, 폴라 잉글랜드는 이론적 측면에서 주류 경제학의 대표적 패러다임인 신고전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신고전주의 이론에서 인간은 분리된 개체로 이기심을 지니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존재로 가정된다. 잉글랜드는 이러한 가정을 '분리된 자아 모델(a separate-self model)'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은 남성의 경험과 의식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여성은 삶의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관계된 존재(a related-self model)'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인간의 관계, 특히 감정적으로 연결된 관계와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역할은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경제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잉글랜드는 경제학의 기본 전제인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rationally economic man)이란 발생론적으로 남성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남성화된 자아(masculinized selfhood)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Humphries ed., 1995). 그녀는 더 나아가 인간의 사고 방식에서 분리/관계의 이분법(dualism)은 성별화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계적인 것으로, 이러한 사고 방식은 관계와 여성성, 여성적인 것, 여성의 경험을 평가절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따라서 잉글랜드는, 분리된 자아 모델이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남성의 삶을 이상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론은 성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둘째, 구체적인 조사 활동에 대한 비판으로 노동 연구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통계 조사에 내포된 성차별적 가정에 대한 비판이 있다. 낸시 폴브르는 센서스 데이터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통계 정보를 구조화하는 센서스의 범주(categories) 내에는 각 사회의 문화적·정치적 가치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대표적인 예로 19세기 미국과 영국에서 격렬한 논쟁의 결과, 가사 노동이 비생산적 노동으로 정의되고 센서스 조사에서 '주부' 집단이 통계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성'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들 수 있

다. 당시 미국과 영국에서는 가정을 찬미하고 여성의 역할을 전업 주부로 한정 하려는 가정중심성(domesticity)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고 있었고, 노동조합은 가족 임금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여성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하려고 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남성=생계 부양자, 여성=가사 노동자'라는 성별 분업 체계가 이념적으로 확립되었고 여성의 가사 노동은 남성의 노동과는 달리 비생산적인 것으로 평가받게 되었다는 것이다(Humphries ed., 1995).

셋째, 여성학자들은 전통적인 사회 과학 개념들이 가지는 편향성을 지적해 왔다. 예컨대, 앞서 살펴본 '노동' 개념과 관련하여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흔히 '기술', '지식', '숙련'이라고 할 때 이러한 개념들은 성중립적인 것인가? 우리는 혹시 "여성이 그 일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성의 일을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일로 평가절하해 온 것은 아닌가? "여성의 일, 여성적 직업은 기술이나 지식 수준이 낮다"고 할 때,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그 근거의 상당 부분이 일 자체보다는 그 일이 수행되는 사회적 관계에 있다고 본다. 가부장적 사회 관계가 일의 정의와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필립스와 테일러는 어떤 종류의 일을 기술로 지정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인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일 수 있다고 본다. 기술의 개념에는 성적 편견이 개입할 수 있으며 기술은 특정한 유형의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성과 권력에 따라 그 일에 부과되는 이데올로기적 범주라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기술이나 지식, 숙련, 전문성 등의 개념을 여성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Phillips & Taylor, 1986).

넷째,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여성의 경험에 근거를 둔 노동 개념으로 '감정 노동'을 제시한다. 여성이 하는 일 중 많은 부분이 보살핌이나 감정 관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노동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인정된다고 해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텔러나 백화점 판매 직원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여성은 고객 관리와 같은 감정적 노동에 유능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박흥주, 2000). 홀트(A. Hochschild)는 감정 노동을 감정적 일(emotional work)과 감정 노동

(emotional labour)으로 구분하여, 감정적 일이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관리로, 감정 노동이란 공적 영역,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상품화된 감정 노동으로 정의하였다. 사적 영역에서든 공적 영역에서든 여성이 수행하는 많은 일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 소통이나 그와 관련된 감정적 배려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이런 일을 하는 여성들은 정신과 육체만이 아니라 감정적 능력까지 민감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감정 노동이란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서 노동자의 감정 상태나 감정적인 표현을 조절하는 능력이 활용되는 노동으로서, 여성이 수행하는 많은 일이 이러한 요소를 필요로 한다. 흔히 말하는 '미소'나 '친절', '상냥한 말씨' 등은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자기 통제, 대인 관계 능력, 언어 능력 등을 요구하는 지적·정서적 요소이다. 여성이 수행하는 일에는 이러한 감정 노동의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의 이분법적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노동 개념에서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다.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간에서 수행하는 일 중 많은 부분도 상당한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의 노동에 포함된 독특성과 가치를 배려(care)의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하려는 시도가 있다(정영애, 1999).

기존의 노동 개념과 인식을, 그리고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평가 체계에 대한 페미니즘의 이와 같은 새로운 문제 제기는 아직 정교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여성 노동의 새로운 평가를 위한 중요한 도전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박흥주, 「판매직 감정 노동의 재평가」, 『노동과 페미니즘』, 조순경 역, 이화여자 출판부, 2000
- 블라우-피어,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동의 경제학』, 문숙재 역, 학지사, 1994
- 소롤로프-나탈리, 『여성노동시장 이론』, 이효재 역, 이화여자 출판부, 1990
- 정영애, 『여성의 배려적 노동과 비교 가치론』, 『한국여성학』 제15권 1호, 한국여성학회, 1999
- 하프만-하이디, 「자본주의, 가부장제, 성별 분업」, 『제3세계 여성 노동』, 여성평우회 편, 창학과비행사, 1985
- 하프만-하이디, 「성, 계급, 정치 부쟁의 장으로서의 가족: 가사 노동의 예」, 『가족 연구의 관점과 쟁점』, 이효재 편,

까지, 1988

Beechy, V., *Unequal Work*, Routledge, London, 1979

Harding, S., 'Rethinking Standpoint Epistemology : 'What is Strong Objecting'?', *Feminist Epistemologies*, ed. by L. Alcoff & E. Potter, Routledge, 1993

Humphries, J. ed., *Gender and Economics*, An Elgar Reference Collection, England, 1995

Phillips, A. & Taylor, B., 'Sex and Skill', *Feminist Review*(ed), *Waged Worker : A Reader*, Virago, London, 1986

제 1 장

노동 개념 새로 보기: 감정 노동의 이해를 위한 시론

정고미라

들어가는 말

오랫동안 사람들은 노동이라 하면 육체적 힘을 쓰는 일을 떠올렸다. 현대에 와서는 '머리를 쓰는 일'의 비중이 상당히 많아졌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하였다. 돈을 받고서 직업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노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을 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그 가치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정당한 권리를 얻어 내기 위해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해 왔다.

그러나 계약 관계조차 맺고 있지 않은 채 가정 살림을 하는 전업 주부는 명백히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이것은 공식적인 체제가 주부의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냥 집에 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주부의 살림 활동이 평가 절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이와는 조금 별개의 차원에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일들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몸을 쓰는 일이나 머리를 쓰는 일 외에도 '마음을 쓰는 일'이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이라는 영역은 노동이라는

범주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감정 노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음을 쓰는 일이 다른 종류의 일 못지 않게 가치로운 노동이며,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노동들처럼 착취적인 구조하에서 억압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사실 감정과 노동이라는 두 단어의 결합은 우리에게 생소할 뿐더러 가장 상반되는 두 영역의 것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감정은 개인적이고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노동은 사회적이고 조직적이고 강제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감정은 사회적으로 조종되기도 하고 강제되기도 한다. 이것은 흔히 집단 최면이나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왜냐 하면 감정 노동이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말하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는 사회 구조적인 강제가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살아간다. 때로는 분노를 억누르고, 때로는 기쁨을 감추고, 그리고 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좋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일들이야말로 개인들의 자유롭고도 비밀스러운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종류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 그것도 불평등한 관계의 패턴 속에서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 그 때에도 이를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란 자유롭고 주체적인 내용으로 채워지는 듯이 보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적인 강제 속에 놓인 그 무엇이 되었다. 누구나 어떤 자유로운 직업을 갖지만, 동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자본주의에서는 돈이라는 매개물 없이는 물리적 생존을 할 수 없고 이 돈을 위해서는 '돈이 되는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어떤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은 '돈이 되는 노동'인 한 — 돈이 된다는 것은 곧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므로 —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누구나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암묵적으로 경험하는 부자유는 '돈이 되는'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노동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으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으로 강제된다는 양면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보상의 문제는 그다지 간단하지만은 않다. 노동 문제의 상당한 부분이 보상과 관련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강제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의 소외 문제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작업의 경우에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곧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여성이라는 성별이 들어오면 문제가 한층 복잡해진다. 성별 분업이 상징하는 여성 역할은 자율적 시민이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강제되는 상황에서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좀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 매춘 여성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여성에게 성폭행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한 후 돈을 줌으로써 보상을 한다는 것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를 주장해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성별 분업의 고정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딜레마는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 노동이 내포하는 이중적 특성의 반영인 것이다.

여성 역할이 포함하는 노동은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 외에도 아예 드러나지조차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마음을 쓰는 일'은 노동의 개념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기존의 노동 개념이 갖는 좁은 의미에 기인하는데,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노동 개념은 경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장 영역 외부에 위치하는 자급적 생계 노동과 가정 내 노동을 제외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 넓은 의미에서의 경제를 지칭했을 때에도 그것은 '의식주(衣食住)'의 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호 작용의 제도화 과정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여성이 실제로 수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정서적·성적 활동들의 제도화된 측면을 사회적 노동으로

포착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현재의 노동 개념은 이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감정을 개념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즉 소위 정신 노동이라고 불리는 것에는 감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러한 이성 중심적 특성은 서구 철학이 보여 주는 남성 중심성과 연관되며 '남성-이성'/'여성-감성'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후자를 가치 절하시키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분화된 성역할의 현실 속에서 여성 역할의 대부분은 노동이라는 인간적·사회적 가치로 파악되지 않는다.²⁾

감정 노동 역시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 측면과 아울러, 보상을 통해 해결되기보다는 감정 노동을 하게 하는 강제적인 구조가 사라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여성 역할의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여성 삶의 중요한 부분(노동)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노동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

무엇을 '노동'이라 부르는가?

어떤 활동에 대해서 노동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그 활동이 행해지는 맥락에 대한 규정이 전제되어 있다. 즉 특정 행위의 내용 자체가 그 행위를 본질적으로 노동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해지는 사회적 관계를 속에서 노동이라는 의미가 구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땅을 파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자동적으로 노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별한 목적 없이, 시간 때우기 위해 흙을 조금씩 파내는 일은 결코 노동이 아니다. 이것이 노동이 되려면 적어도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1) K. Polanyi, *The Livelihood of Man*, 1977: 『인간의 경제』 1, 서울: 풀빛, 1983.

2) 서구 철학과 대비되는 유교 사상에서는 좀더 통합적인 인식이 유지되는데 노동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론코(William Ronco)와 피티(Lisa Peattie)³⁾에 따르면, 노동이 취미와 구별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노동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되는 것이고, 둘째, 노동은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힘든 노력이 요구되는 수고이며, 셋째, 노동은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이기 때문에 행해지고, 넷째, 노동은 어딘가에 쓰이는 유용한 생산이며, 다섯째, 노동은 타인에 의해 제한됨으로써 특정 규율에 처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노동은 주체의 정신 상태에 따라 노동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다.

이들의 주장을 다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로, '지불되는 것'이나 '유용한 생산'은 결국 당대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이 지불되고 또 지불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화폐로 지불된다는 것은 당대의 사회적 가치가 교환 가치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로, '필요'는 생계 및 생존을 위한 개인적 필요에서 비롯되고, '타인에 의해 제한되고 특정 규율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강제를 의미하는데, 이로부터 자연히 고통스러운 '노력감'이 수반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여기에는 사회적 강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활동이 노동으로 간주되기 위한 기준으로서, 그것이 사회적 가치를 담지하고 있고 사회적 강제에 의거한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설정될 수 있다.

실제로 현대 사회는 노동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필요악이라고 보며 궁극적으로는 사라져야 할 그 무엇으로 간주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 존엄성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반된 관점은 노동의 특정 측면에만 주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 소외론자는 권력 관계 속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소외된 노동만을 노동이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조건에서 행해지는 쾌락적

3) William Ronco & Lisa Peattie, "Making Work: A Perspective from Social Sciences," in *On Work*, ed. by R. Pahl. New York: Basil Blackwell, 1988, pp. 715-19.

이고 자기 실현적인 활동(예를 들면 예술 활동)은 노동이 아니라고 본다. 반대로 노동 본성론자는 노동을 무엇보다도 인간 본래의 목적 의식적이고 창조적인 능력과 결부시켜 바라보기 때문에 노동의 범위는 더욱 광범위해지며 동시에 그것은 필요 불가결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이한 관점들의 공존이야말로 오늘날의 노동 개념이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보여 준다.⁴⁾ 우리가 노동에 대해 갖는 상반된 표상(고통스러운 것/ 신성한 것)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강제가 항상 결합되어 있지 않았던 데에서 연유한다. 서구 역사를 중심으로 이 둘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초기 문명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노동상이 존재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노동 개념은 고통스러운 부담이나 천벌과도 같은 의미를 가졌었다. '포노스(ponos)'라는 단어는 '비탄'을 뜻하는 라틴어 '포에나(poena)'에서 유래했다.⁵⁾ 불어에서도 노동(travail)이라는 단어는 고문 도구를 지칭하는 라틴어 '트리팔리움(tripalium)'에서 유래했다.⁶⁾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노예적인 제작 행위로서의 생산(poiesis)과 그 자체가 목적인 주인적 행위로서의 행위(praxis)를 구분하였다.⁷⁾ 노예 제도에 기반했던 고대 그리스에서 노동은 바로 노예들에게 맡겨진 물질적 필요악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신을 야비하게 만들어 인간으로서의 덕을 행할 수 없게 한다고 여겨졌다.⁸⁾ 즉 노동에 대한 표상은 고대 사회의 계급적 분화와

4) 현대의 노동 개념은 자본주의 시기의 독특한 구성물로서 당대의 사회적 관계들을 반영하는 특수한 내용을 갖는다. 따라서 무엇을 노동이라고 명명하는가의 문제는 바로 그 사회가 노동과 비노동을 구분하기 위해 어떤 기준에 의거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5) Bernard Gallagher III & Charles Palazzolo, *The Social World of Occupation*, Iowa: Kendall/Hunt Publishing, 1977, p. 7.

6) Christine Demourgues, *Le Travail Humain*, 1984, 『인간과 노동』, 문재은(역), 서울: 도서출판 예하, 1989, p. 10.

7) James Murphy, *The Moral Economy of Labo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3, p. 87.

8) C. Wright Mills, *White Collar*, 1951, 『화이트 칼라』, 강희경(역), 서울: 돌베개, 1980, p. 196.

더불어 피지배 계급이 도구적 존재로서 강요받는 힘겨운 작업에서 시작된다. 여기서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강제가 분리되어 있었다. 지배 계급의 정치 행위나 전쟁 등이 사회적 가치(프락시스)로 여겨졌으며, 피지배 계급은 단지 강제 노동을 했을 뿐이었다. 노예의 노동은 사회적으로 인식된 가치와 무관했다.

기독교 중심의 중세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강제는 좀더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노동이 원죄에 기원하는 고통스러운 벌로 인식되었지만, 신이 내린 명령이라는 점에서 그것의 정당성을 인정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것은 타락한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동시에 게으름과 같은 악을 물리치는 윤리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비천한 노예에게만 속했던 노동은 자유민을 포함한 기독교인 전체의 의무가 됨으로써 그 위상이 상승되는 측면이 생기게 되었다. 노동은 보편적 덕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육체의 교만성에 대한 천벌'으로서 금욕적이고 수난적 의미를 내포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종교적 의무가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는 사회적 가치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농노(農奴)의 노동을 포함한 여타의 모든 활동들이 모두 '기도'의 의미로 자연스럽게 포섭됨으로써 강제되었다는 점이다. 농노의 노동을 형성시키는 사회적 강제는 경제적·신분적 성격 외에도 주로 종교적 가치의 지배를 직접적으로 받았고, 농노의 노동은 사회적 가치를 대표하는 수도(修道) 행위라는 외피를 입고 있었다. 물론 종교적 신앙심(즉 정신적 영역의 활동)은 현세적 노동 행위에 대한 절대적인 우월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노동은 사회적 가치(종교) 속으로 포섭되면서도 사실상 분리되어 있었고 계급 지배의 사회적 강제에 의해 주로 특징지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노동은 노예 노동에 비해 사회적 가치를 명분적·부분적으로나마 획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루터의 종교 개혁과 더불어 강제적 노동과 종교적 가치 사이의 분리가 약

9) C. Wright Mills, 앞의 책.

화되었다. 그는 노동에 의해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일야말로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길이라고 함으로써 직업이 곧 '천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즉 "수도사와 승려의 일이 들판에서 노동하는 농부의 일이나 집에서 집안 일을 하는 여인의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¹⁰⁾ 그리하여 초기 프로테스탄티즘은 근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이윤의 추구를 정당화하는 **현세적 금욕주의로서 물질적 노동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계급 지배와 종교적 목적에 기반했던 노동에 대한 **관점이 경제적 가치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지향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강제가 이제 사회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결합되기 시작한 것이다. 농토로부터 축출되어 노동력을 팔아야만 했던 새로운 종류의 경제적 강제에서 행해지는 노동은 더 이상 지배하는 사회적 가치와 대립되거나(노예의 경우), 간접적(농노의 경우)이지 않고 오히려 교환 가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담지하는 **임노동이 되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애덤 스미스(Adam Smith)에 이르면 포이에시스와 프락시스의 가치론적 서열이 전도되어 버린다.¹¹⁾ 그는 물질 생산만을 생산적 노동으로 규정하고 노동의 직접적 결과가 비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모두 비생산적 노동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주인적 행위와 노예적 노동의 구분은 비생산적 노동과 생산적 노동으로 대치되었다. 이제 사회적 가치는 교환 가치로만 나타날 수 있었고, 노동은 계약이라는 명목상의 자유 속에서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적인 생산 행위로 나타났다.

자본주의가 대두되는 시기에 노동에 대한 가치가 부여된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인간이 신의 절대적 지배로부터 벗어나 **인간 존재 자체에 가치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인간은 더 이상 하찮은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도 창조자로서 세계에 대해 지배할 능력과 권리가 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인간은 그 지위나 유용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10) C. Colson & J. Eckerd, *Why America Doesn't Work*, 1991, 『왜 일하지 않는가』, 김예진(역), 서울: 홍성사, 1993.

11) 황태연, "노동 개념과 해방 사상의 전개," 『노동, 일터의 소리』, 서울: 지양, 1984.

지니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기의 예술적 부흥은 인간의 노동 행위에 발전과 성취의 의미를 부여해 주어, 노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장인(匠人) 기질'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후에 노동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자 인간 본질의 자기 산출적 과정으로서 평가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인간 그 자체에 사회적 가치가 놓이는 맥락에서 노동은 강제이기 보다는 **인간 본성의 실현이라는 유적 특성으로 파악되고, 이로부터 소외되지 않은 자기 실현적 노동이라는 개념이 가능해진다.** 사실 소외된 노동이라는 개념은 이미 그 속에 소외되지 않은 긍정적 의미의 본래적 노동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노동 개념에는 기술적 정의와 규범적 정의가 혼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교환 가치라는 사회적 가치와 임노동의 사회적 강제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노동의 개념은 또 하나의 당위적 의미를 포함하는데, 그것은 평등하고 존엄한 인간이 소외되지 않은 자기 실현적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더 이상 노동이 사회적 '강제'가 되지 않는 이상적 지향을 말한다. 이는 현실의 소외된 노동을 비판하는 **규범적 노동 개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관점은 궁극적으로 강제된 노동의 소멸을 추구하고 인간 활동의 자유로운 측면들을 노동으로 포괄한다는 점에서 노동 개념의 해체라고도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존엄한 존재로서의 모든 인간이 자기 실현적 활동을 향유해야 한다는 권리 의식이 곧 소외되지 않은 노동이라는 규범적 개념으로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현실의 소외된 노동이며, 그것의 성립 기준은 교환 가치라는 사회적 가치와 자본주의하에서의 임노동이라는 사회적 강제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노동 개념은 역사적인 변화 과정의 결과로서 결국 무엇이 노동인가 아년가의 경계선이 갖는 정치적·역사적 의미를 보여 준다. 이 같은 노동 개념은 이성 중심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이성 중심주의와 구별되는 배경하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강제라는 유사한 기준을 설정한다 해도 노동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인간 주체에 대한 이해가 이성 중심주의적인 경향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인간에게 의식적 활동, 즉 노동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이 어떻게 노동이 될 수 있는가?

감정 노동의 개념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에는, 노동에 대한 규정에서 활동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고정 관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감정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이성/감성 이분법적 사고의 영향이 있다.

앞서 보았듯이 어떤 활동을 노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특정 행위의 내용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활동이 행해지는 맥락 때문이다. 노동은 최소한의 조직화된 규율을 전제하기 때문에 단순한 '행위'와는 구별된다. 노동은 기본적으로 특정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위가 행해지는 구조를 지시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사 노동이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육체적인 노동에 가까운 수고로운 작업이라는 점 외에도 필수적인 업무로서 생활 속에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¹²⁾ 따라서 구조화되지 않은 충동적이거나 본능적인 행위는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노동은 생산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상의 행위 역시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충동적 행위, 본능적 행위, 무상의 행위 등은 노동의 개념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무상의 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한 편견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본능적 행위가 구조화된 노동이 될 수 있느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본능적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가능하고, 이는 바로 여성의 삶의 조건 속에서 등장하는 차이이기도 하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성관계를 본능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관점은 매춘 행위를 구조화된 노동으로 보지 않고 다만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 정도로만 이해한다.¹³⁾ 마찬가지로 여성의 가사 노동, 육아 등도 여성이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 노동이 갖는 노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맥락을 보면 주로 육체 노동으로서의 성격만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해내는 행위로 해석함으로써 가부장적인 성별 분업의 한 과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또, 여성이 가족을 위해 하는 가사 노동을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무상의 활동으로 보는 관점은 여성(주부)과 가족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는 여성(개인)의 이해 관계가 늘 가족이라는 (소)집단의 이해 관계와 일치한다고 상정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담는 것이 무상의 행위인 것처럼 주부가 가사 노동을 하는 것도 그러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들은 여성 역할이 포함하는 활동들을 전체적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행위'로만 파악하여 결과적으로 여성이 실제로 수행하는 많은 노력들을 쉽게 '비노동'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그런데 특히 감정을 자연 발생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은 감정상의 노력을 노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배제하였다. 오랫동안 노동은 육체 노동으로 대표되었고 구체적인 생산물을 전제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력은 실로 다양한 형태의 차원을 갖고 있고, 인간에게 감정 역시 노동 능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노동력이란 "인간의 신체 즉 살아 있는 인격 속에 존재하며 그가 어떤 종류의 사용 가치를 생산할 때마다 움직이는 육체적·정신적 능력의 총체"¹⁴⁾로 이해된다. 이 때의 정신적 능력은 일반적으로 지적 능력에 한정되어 이해되는데, 마치 육체가 도구를 대신하듯 정신에서 도구적 이성만이 노동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반면에 감정이란 도구적 특성을 가질 수 없고 또 가져서도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감정을 배제하고 비하하는 서구의 전통 윤리학의 경향과 관련된다.

감정은 "마음에 닥쳐오는 강렬한 느낌으로서 육체적·생리적 반응을 수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정념(passion)과 동일시되고, 따라서 그 부정적 특성이 강조되었다. 정념이란 수동적이고 비자발적인 강렬한 감정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를 암시하기 때문이다.¹⁵⁾ 칸트(Immanuel Kant)를 비롯한

13) 사실 매춘 여성의 성노동이 노동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은 매춘 행위가 놓인 비합법적인 상태의 영향이 크다.

14) Karl Marx, 『자본』 1-1, 김영민(역), 서울: 이론과 실천, 1987, p. 199.

철학자들은 감정이란 변화무쌍하고, 불합리할 수 있으며, 상황 판단에 지해가 되며, 무책임하고 편파적이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감정이 지니는 사회적 배경과 그것이 각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의식적인 방식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감정을 유기체적인 관점(organistic view)에서 볼 때 그것은 생물학적 본능이나 충동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 작용에 의해 근본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감정이 자극되고 표현되는 방식에 대해서만 주목하게 된다. 하지만 감정을 상호 작용적 관점(interactive view)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좀더 근본적으로 사회적 현상이 되기 때문에 감정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명명되고 해석되며, 나아가 관리되는지를 분석하게 된다.¹⁵⁾ 즉 감정은 관리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관리가 노동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한 사회의 가치 규범 체계는 직·간접적으로 사회 성원들 간의 감정을 통해 반영된다. 예를 들어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남성들의 감정은 남성 우위의 가치를 내면화한 결과이다. 또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상황에 적합한 감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혹쉬아일드(Arlie Hochschild)는¹⁷⁾ 이것을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된 '감정의 규칙들'이라고 부른다. 고마움이나 기쁨, 질투나 분노 등이 발생해야 하는, 또 발생해서는 안 되는 맥락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감정과 개인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다. 이때 개인은 대체로 자신의 감정의 부적합성에 갈등하며 이를 적절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기 감정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노력, 즉 감정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suppression)나 상기(evocation)를 하는 '감정 관리'

15) 박정순, "감성의 윤리적 사찰," 정대현 외, 『감성의 철학』, 서울: 민음사, 1996, pp. 72-73.

16) Arlie Hochschild, "Emotion Work, Feeling Rules, and Social Structure," i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 1979, pp. 553-55.

17) A. Hochschild,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를 행하는 것이다.¹⁸⁾

감정 관리가 노동이 되는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 혹쉬아일드는 '사용 가치'를 낳는 감정 노동(emotion work)과 교환 가치를 낳는 감정 노동(emotion labor)을 구분하여, 전자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관리를 지칭하고, 후자는 공적 영역에서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상품화된 감정 노동을 지칭한다고 하였다. 그 예로, 스튜어디스는 제복과 화장의 연장으로서 미소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친절함과 쾌활함은 손님들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다. 혹쉬아일드는 교환 가치화된 감정 노동만을 소외된 노동으로 파악했지만 나는 이 장에서 여성들은 많은 경우에 일상 생활 속에서 감정 노동을 행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환 가치화된 노동으로 한정된 노동 개념을 '사회적 가치'화된 노동으로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 역할에 따른 활동들이 왜 노동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사 노동을 사용 가치를 낳는 노동으로 규정하는데, 이러한 개념으로는 그것이 자유로운 자원 봉사 활동과 갖는 차이점을 이해할 수 없다. 자원 봉사는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노동이지만 가사 노동은 여성이 집단적으로 강요받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 시대에 사회적 가치는 교환 가치로 나타난다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자본주의만을 염두에 두었을 때이다. 여성 억압 체계로서의 가부장제를 고려한다면 사회적 가치는 교환 가치로만 한정되지 않고 가족 이데올로기, 모성 이데올로기 등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따라서 가사 노동은 가족, 모성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적 가치를 낳는 노동으로서, 가부장제라는 사

18) 이러한 감정 관리는 오늘날 개인의 사적인 노력이자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해된다. 왜냐 하면 그것은 도덕적이고자 하는 정도의 차이로 보이기도 하고 어느 누구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상황일수록 각 개인은 특정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적합한 감정'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지배 이데올로기의 위력은 그만큼 약해진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다원적이지 못한 사회일수록 가치 규범들은 좀더 강력한 힘으로 개인의 감정을 지배하게 된다.

회적 강제하에서 행해진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 가치를 낳는 노동이라는 개념에는 노동이 행해지는 조건이 개념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적인 강제가 없는 자유로운 행위로 여겨지게 되고, 이러한 사용 가치/교환 가치 이분법에는 가부장제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여성의 소외된 노동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용 가치' 보다는 '사회적 가치'라는 한층 포괄적인 기준이 요구된다. 그럼으로써 비록 상품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재하는 권력 관계 속에서 강요되는(여성의) 노동을 가시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정 능력이 노동 능력의 여러 차원 중의 하나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의 노동력 개념이 육체 노동/정신 노동이라는 이분법으로 단순화되어 있으면서 얼마나 개념적 엄밀성이 부족한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신 노동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레이버만(Harry Braverman)¹⁹⁾의 논의를 살펴보자.

그는 『노동과 독점자본』에서 마르크스의 생산 과정 이론에 입각하여 현대 사회의 생산 활동이 탈숙련화의 과정을 거치고, 작업 수행에 관한 관리적 통제의 증가로 인해 생산직 육체 노동자의 자율성이 예측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는 우선 인간 노동의 특수성으로부터 문제를 설명한다. 동물의 경우에는 명령하는 힘과 그 결과인 행동, 즉 본능과 행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인간에게 본능적인 형태의 노동은 이미 오래 전에 사회적인 형태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노동의 동인과 노동 자체의 통일, 즉 구상과 실행의 통일이 분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사람의 구상이 다른 사람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²⁰⁾

브레이버만은 노동의 탈숙련화를 설명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육체 노동으로부터 정신 노동이 분리되는 과정을,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 노동이 육체 노동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그의 요점은 탈숙련화 즉 노동의 소

외이지,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이라는 고정된 실체의 분리가 아니다.²¹⁾ 그러나 문제는 그가 탈숙련화 과정을 설명할 때, 숙련 노동을 '구상', '사고 작용', '두뇌', '정신 노동'으로 명백히 환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서 정신 노동은 결국 이성 능력의 사용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정신 노동이 숙련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도구적 이성 능력을 사용한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주체의 자율성 즉 주체가 노동에 부여하는 양도될 수 없는 인격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노동력은 인격적인 것으로서 작업의 다른 비인격적 요소들과 명확히 구분된다.²²⁾ 그런 의미에서 노동력은 매매되는 순간 '소외된 노동'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는 자신에게 속한 것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는 이를 매춘 행위에 비유하기도 했던 것이다. 즉 탈숙련화 문제는 인간의 노동 능력이 '자율성(또는 인격)'을 박탈당함으로써 야기되는 노동의 소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머리를 쓰는 일'과 '몸을 쓰는 일'의 분리로 비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소외된 방식으로 머리를 쓸 수 있고, 소외된 방식으로 몸을 쓸 수 있다. 지적인 노동이라는 사실 자체가 노동이 소외되지 않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저숙련 단순 직종들은 이성 능력이나 감정 능력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단순 사무 보조 일을 하는 사람은 지성 능력이 상당히 비자율적으로 또는 소외된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로서, 일이 단순하다는 사실보다는 전체 작업에 대해 참여권이 없고 자신의 노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없다는 사실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단순한 일이어도 개성이 발휘될 경우(또, 특정 신념이나 사명감과 결부되는 일일 경우)에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이 때에는 주체의 인격이 노동 과정에 결합되기 때문이다. 사무 노동자는 정신 노동(즉 지성 능력)을 박탈당해 육체 노동자로 전락해 서가 아니라, 자율적인 자기 실현의 경험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외된 것

19) Harry Braverman, *Labor and Monopoly Capital*,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4.

20) 앞의 책, p. 52.

21) H. Braverman, 앞의 책, p. 106.

22) 앞의 책, p. 52.

이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숙련된 수공업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은 노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육체적 능력을 자율적으로 구상하여 실행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²³⁾ 요컨대 정신 노동 개념은 도구적 이성 능력의 사용으로 이해되면서도 동시에 소외되지 않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자율성, 인격성과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논의에서는 자본주의에 특유한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육체 노동의 탈숙련화/소외, 그리고 정신 노동의 탈숙련화/소외를 비판하였다. 여기서의 정신 노동은 지성 능력의 사용에 한정된다. 그런데 가부장적 관계 속에서 여성이 겪는 특유한 현상은 바로 감정 노동의 소외이다. 자신의 감정 능력을 자율적이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여성이라는 신분에 따른 감정 노동

감정 능력이 여성에게 노동의 형식을 띠게 되는 원인으로는 성별 분업과 부계 가족 제도를 들 수 있다. 성별 분업은 여성에게 보살핌 노동을 성역할로 규정하고 있고, 부계 가족 제도는 여성에게 심리적 존재 전이의 차원에서 감정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성별 분업과 보살핌 노동

일반적으로 여성성과 남성성에 관한 담론들은 남성을 이성적·능동적 존

23) "모든 작업자들은 작업의 전체 과정을 두루두루 통달해야 했으며…… 그리하여 중세의 수공업 숙련공들은 자신의 특수한 작업 및 그것을 익히는 일에 매우 커다란 흥미를 갖고 있었으며 이 흥미는 제한적이거나 예술적인 의미로까지 고양될 수도 있었다"(K. Marx & F. Engels, 1976, *The German Ideology*, 『독일 이데올로기』, 박재희(역), 서울: 청년사, 1988, p. 93).

재로, 여성을 감정적·수동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듯 이분화된 성역할 이데올로기하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성적 일'을 수행하도록 강요받는다. 그런데 이 여성적 일이라는 것의 내용은 인간의 감정 능력을 사용하는 일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이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세계관, 인식 등은 이성 중심주의적인 것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이때의 노동 주체는 이성(합리성)이라는 좁은 기준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감정이 중요한 특성으로 포함되는 좀더 통합적인 성격으로 다가온다.

보살피는 역할의 담당자로서의 여성의 관점에서 인간 본성을 바라본다면 인간 주체는 선명하게 타자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성 중심으로(감정 배타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 공감할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이 능력을 의식적으로 키울 수도 있는 도덕적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간이 노동 주체로 설정된다면 노동 능력의 범위 역시 확장되지 않을 수 없다. 감정 능력은 보살피는 인간 주체에게는 적극적이고 목적 의식적인 활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성별 분업 제도는 여성으로 하여금 보살핌 노동을 하게 하고 이것은 가정 내의 주부 역할에서나 공적 영역의 '여성 직종'에서나 매우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²⁴⁾ 여기서는 주부라는 신분/직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특정 역할이 부여되었지만 자본주의화 과정은 귀속적 신분을 직업이라는 성취적 지위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직업은 개인에게 정체성을 심어 주는 주요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과거 여성에게 부여되었던 역할들은 새로이 주부라는 직업 속으로 포섭되어 여전히 직업의 중요성과 같은 비중이 유지되

24) 여성 직종의 대부분은 여성성의 내용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 교사, 간호사 등과 같이 보살피는 일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거나, 비슷한 서비스 업종인데도 여성일 경우에는 더 많은 친절과 미소를 요구하는 등 감정 노동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직무의 구성 요소로 평가되기보다는 여성 개인의 여성성의 문제로 환원된다.

있다. 즉 오늘날 주부는 신분과 직업을 동시에 의미하는 개념인 것이다. 남성의 경우 그는 자신의 직업 이외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써, 형으로서 등의 다양한 관계들을 맺고 있지만 이러한 신분에 따른 역할들은 그에게 직업과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들이 주부라는 신분으로 '직업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부직'을 구성하는 일들은 바로 살림이고, 살림이란 바로 남편, 자녀, (시)부모를 돌보는 일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들의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주부라는 '직업'에서의 '직무 태만'이 갖는 의미로 다가온다.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역할들은 정서적 측면이 강조되는 인간 관계들인데, 바로 이러한 인간 관계들이 직업을 구성하고 노동이 되는 것이다.²⁵⁾

주부 일은 특정 노동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가사 노동'으로 지칭되는 것은 노동이 수행되는 맥락을 추상화시킨 채 사회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형태의 노동과의 비교를 통해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부 노동의 특성은 그것이 대상자 즉 수혜자인 가족에게는 대체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에 있다. 왜냐 하면 아내이면서 어머니인 바로 그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감정적으로 밀접하고 관심과 배려를 하는 그런 노동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물리적인 가사 노동이 아니라 '애정 어린' 보살핌 노동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가정 내에서 행하는 가사 노동이 공적 영역의 여타의 노동과 구별되는 점은 그것이 근력을 쓰는 일이든, 머리를 쓰는 일이든, 요리를 하는 일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노동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가족에 대한 보살핌이라는 의미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감정 개입이 전제되지 않는 기존의 노동 개념에 따라 분석을 했을 때의

25) 사실 남성의 경우에도 그가 처한 역할들과 그의 직업이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 곧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즉 돈 벌어오는 것이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효자 노릇 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부가 행하는 노동은 물리적 가사 노동으로만 이해되고 주체의 감정은 다만 그 노동이 행해지는 조건이라는 별개의 차원에서 접근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살핌이란 물리적인 '뒷바라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보살핌의 의미를 개념적으로 내포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관심을 갖는 감정'과 '돌보는 일'을 포괄하는 개념이다.²⁶⁾ 무엇보다도 보살핌 노동에는 돌보는 대상에 대하여 이미 관심을 갖는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러한 감정을 갖기 위한 노력이 포함된다. 공적 영역에서의 보살핌 노동은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 장에서는 교환 가치 외부에 있는 가정 영역에서의 보살핌 노동의 양태를 살펴보겠다.

여성이 행하는 보살핌의 행위들은 남편,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내조, 뒷바라지에서부터 부모(친부모, 시부모), 가까운 친척 등의 병치레, 주위의 지체 부자유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보살핌이지만 사실은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깊은 배려, 감정 이입 등의 과정과도 긴밀히 결합된다. 어머니로서의 일 수행은 주부의 역할 중에서도 심리적 에너지를 상당히 요구하는 일인데, 여기에서는 아이에 대한 모성애라는 현실/이데올로기가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루딕(S. Ruddick)²⁷⁾에 따르면, 어머니의 사고 방식은 어머니 일 수행을 지배하는 세 가지 주요 관심, 즉 자녀의 생명 보존에 대한 관심, 자녀의 성장을 촉진하는 관심, 수용 가능한 자녀로 키우려는 관심 등에서 비롯된다. 이 과정에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강력한 동일시가 존재한다. 또, 아이가 겪는 무수한 불규칙한 변화들에 맞추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행위들은 종종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것을 요구하고,

26) K. Waerness, "The Rationality of Caring," in *Women and the State*, ed. by Sasson A. Showstack, 1984, 『여성과 국가』, 장정순(역),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89.

27) S. Ruddick, "Maternal Thinking," in *Rethinking the Family*, ed. by B. Thorne & M. Yalom, 1982,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외(역), 서울: 한울, 1991.

이것은 자녀의 어려움 등을 헤아리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즉 보살핌은 활동일 뿐만 아니라 보살핌의 행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질'을 포함한다. 어머니 노릇을 하기 위해 여성은 '어머니의 기질'을 지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²⁸⁾

이러한 어머니 노릇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력들은 여성의 노력과 학습의 결과로 얻어졌다고보다는 여성의 본성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모성 이데올로기 때문에, 아이뿐만 아니라 남편, 부모, 주위 사람들에 대한 비슷한 종류의 모성에 발휘가 기대되고 요구된다. 보살피는 성향을 자연스럽게 지닌 존재가 자신의 성향(여성성)을 자연스럽게 두루두루 펼쳐며 살아가는 것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의 보살피는 행위들은 간단한 위로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병간호까지 망라하는데, 특히 병수발은 공감과 온정을 요구하는 간호 노동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²⁹⁾

그런데 여성이 수행하는 보살핌의 행위들의 많은 부분은 상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보살핌을 받는 약자(아이, 환자, 노인 등)는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쉽지만, 여성의 보살핌 행위가 사회적 규범들을 통해 의무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보면 여성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종종 자발적인 듯한 외양을 띠지만 실제로는 '강요받는 느낌' 속에서 구조화되어 있다.³⁰⁾ 주부의 감정적 배려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가족과 사회가 압력을 가하는 현실에서 여성은 자발성 자체를 강요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행하는 보살핌의 행위들은 상호적인 배려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배려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태에

28) 장필화, "여성주의 윤리학: 보살핌의 윤리를 중심으로," 『여성신학논집』 1권, pp.9-32.

29) 간호학에서는 돌봄 개념이 "돌봄과 성장, 지지를 포함한 양육의 개념으로부터 나왔다"고 전제하고 돌봄을 "감정이입적이며 지지적이고 동정적이며 보호적인 행동 특성을 통해 대상자를 도와 주는 양육적이고 기술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 (Leininger, 1978; 변영순·김남선, "돌봄 개념의 의미에 대한 연구," 『간호과학』 1권, pp.84-95에서 재인용).

30) Waerness, 앞의 책.

서 가끔 그 대가나 고마움이 인식될 뿐이고, 자발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강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외된 감정 노동의 형상을 띤다. 다른 한편 보살핌 노동이 생산하는 사회적 가치는 자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의 문제로 환원됨으로써 사회적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다.³¹⁾

부계 가족 제도로 인한 감정 노동

현재의 가족 제도는 부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특성을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호주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직계 가족의 의식이 우세한 사회에서 여성에게 결혼이란 곧 자신이 태어난 본래의 가족을 떠나 남편되는 사람의 가족으로 물리적·심리적으로 이사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남성에게 결혼은 자신이 늘 살아왔던 가족 안에 머물면서 그 속으로 한 명의 여성을 편입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그의 입장에서는 그 여성이 자기의 부모 형제들과 적응하고 가족 전체의 복지와 화목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실제로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에 직면하여서는 새로 편입한 여성이 일방적으로 '적응'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정신적으로 핵가족화되지 않은 사회인 만큼 남성은 개인으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자기 가족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어 여성은 한 명의 남성과 결혼을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가족 단위와 상대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이 상대하는 과정에서 이미 관계는 평등하기 힘든 조건에 놓이게 된다. 여성 개인의 이익은 남성 가족 집단의 이익에 비해 다수의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무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갈

31) 퍼거슨(Ann Ferguson)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는 성적, 애정적 상호 작용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물질적 생활의 생산만큼이나 기본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는 성/애정 생산(sex/affective produc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성, 사랑, 양육, 사회적 유대 등과 관련된 인간의 욕구들을 조직하고 형성시키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체제들을 지칭한다. 또, 여성이 더 많은 성/애정 생산을 하였고, 이러한 노동이 남성에 의해 착취되었다고 본다 (A. Ferguson, *Sexual Democracy: Women, Oppression and Revolu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1).

동이 발생했을 때 여성 한 사람이 참고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여성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 비하여 더욱 빈번하게 참고 양보할 것을 권유받거나 강요받는 위치에 처하게 된다. 즉 일 대 일 관계에서의 감정 관리가 아니라 이미 구조적 강제 속에서 감정 노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 내 인간 관계와 사회 관계망을 유지하기 위한 잡다한 실무들은 여성에게 돌려지기 때문에, 주부가 관리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자신의 개인적 필요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주로 가족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위한 것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웃 관계 등에서의 연락이나 왕래는 주부에 의해 주로 수행된다. 또 부계 친족들 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에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도록 기대되는 사람도 남성 친족원 자신들이기보다는 혼인을 통해 그 집안으로 들어온 여성들(시어머니, 며느리, 동서)인 경우가 많다.³²⁾

그런데 자신이 생활하는 인간 관계의 주요 틀이 남편의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감정'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부자연스러운 감정의 연마'를 하게 한다. 우리 나라의 혈연 중심적인 가족 관계는 손해와 이득을 따지지 않는 비계약적 집단의 관계로 이해되기 때문에 동등한 교환이나 권리를 주장하기가 힘든 특성을 갖는다. 특히 부자 관계 중심의 효의 사상이 가족의 대표적인 가치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은 자신의 공식적 부모(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효의 개념은 친(親)에서 그 정당성을 얻고 있기 때문에 부계 사회에서 효는 남성에게는 자연스럽지만 가족을 옮겨야 하는 여성에게는 인위적인 형식을 띤다. 자연스러운 감정에 기반할 가능성보다는 감정 자체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구조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여성은 인간 관계에서의 적극적 역할인 보살피는 일을 담당하는 데다가, 자신을 다소간 타자화시켜야만 하는 부계 가족이라는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32) 문옥표, "도시중산층의 가족생활과 주부의 역할," 『도시중산층의 생활문화』, 1992.

이러한 노력은 감정 노동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특히 심리적으로 선택하기 어렵거나 극단적으로 꺼려지는 경우조차 '애정(親)에서 우러나온' 행동 및 서비스를 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정 이입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 여성의 역할/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이상적이지 못한 관계의 부족분을 의식적으로 메꾸는 작업이 된다. 게다가 이러한 노력은 '인격적 부족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더욱더 '노동'과는 무관한 개인적 과제로 다가올 뿐이다.

그러나 불만을 참고 애정을 키우는 감정 노동은 여성의 개인적 선택이기 보다는 가족의 통합을 위해 구조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되는 수고이며 또 여성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요이다. 특히 가부장적 사회 구조(부계적 가족 제도)는 여성에게 부계적이지 않은 가족을 구성할 조건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³³⁾ '시집 나라'로 이민간 여성에게 그 집단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은 사회적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 자본주의가 농민을 농토로부터 축출하여 자발적으로 임금노동자가 되게 한 것과 비슷하게 가부장제는 여성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부계 가족의 관계를 재생산시키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들을 끔찍이 바치는 시어머니'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라 하겠다. 요컨대 부계 가족 제도는 여성에게 자기 자신이 아닌 부계 가족의 대변자로서의 감정과 이해 관계에 따라 느끼고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구조이고, 여기서 여성의 감정 노동은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가족이라는 집단의 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낳는다.

한편 의존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종속 관계 또는 타자화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 노동은 여타의 다른 권력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다른 주체에 대해 감정 이입하기 위한 노력은 스스로를 타자화(他者化)시키는 작업으로서, 자신의 능력의 일부인 감정 능력을 단순히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격 또는 자아 전체를 양도하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

33) 결혼해서 남편의 가족으로 이사하거나 '비정상적인' 미혼으로 남거나 해야 한다.

서 자신의 주체성을 온전히 간직한 채 감정 능력을 도구화하는 직업적 연기자와는 달리, 분리되거나 도구화될 수 없는 인격, 정신, 마음 자체를 사용(당)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소외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유교 문화의 영향

한국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 외에도 유교적인 전통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조건에 처해 있다. 유교를 비롯한 전통 사상은 마음 수양을 강조하고 있는데, 위계적인 사회 관계들의 정치학 속에서 그것은 소외된 감정 노동으로 나타난다. 유교적 세계관은 이성 중심적인 관점과 비교하여 좀더 통합적인 관점에 입각해 있다. 여기에는 다른 의미의 합리성이 자리하는 속에서 감정 역시 마음이라는 좀더 전체적인 틀로 이해된다. 따라서 노동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바의 지형도 달라진다.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서구의 합리주의 전통에서는 이성이라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였던 것에 비해, 유교적 세계관 속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도덕성에서 파악하고 있다.³⁴⁾ 인간의 본성이 곧 이치(性即理)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어떤 질적인 차별성이 상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과 합일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인간의 특별한 인지적 능력이 아니라 인간 속에 내재된 이(理)에 있으며, 합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존재의 이치와 당위의 원칙들을 깨닫고 자신의 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일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인간 본성의 실현으로서의 노동 개념을 상정해 본다면 노동 주체는 마음(心)에 의해 규정되는 인간이며, 노동 대상은 이치(理)의 담지자로서의 자연이며 그 속에는 인간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 인간 본성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마

34) 맹자는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도덕적 본성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측은하게 느끼는 마음(惻隱之心), 악을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마음(羞惡之心), 사양하고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是非之心)을 뜻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마음(心) 또는 감정(情)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음의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 및 인간 관계는 자유주의와 대비된다. 우선, 분리를 지양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경향은 개인주의적 사고를 배제시킨다. 개인은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오륜(五倫)은 이러한 관계 중심 윤리의 뼈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성보다는 상호 의존적 상황에서의 화해 정신을 이상으로 설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은 자율적 능력에서가 아니라 자기 수양을 통해 얼마나 도덕적 자기 완성을 이루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³⁵⁾ 이 밖에도 도덕 영역의 독특한 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맹자의 왕도 정치(王道政治)에서 나타나듯이 정치와 도덕은 분리되지 않은 연결된 관계이다(修身齊家治國平天下).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도 도덕에 의해 개념화되어 있었다. 동양에서는 근대 이전까지는 노동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고, 경제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 식(食),³⁶⁾ 재(財), 부(富) 등이 있었다.³⁷⁾ 그런데 재부의 효용과 가치는 우선적으로 도덕의 기준에 합당해야 했기 때문에 사(士), 농(農), 공(工), 상(商) 등의 직업 개념이 도덕적으로 차등화되어 있었다. 한편 노동 행위 일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는 노(勞)와 역(役)이 있었고, 맹자는 노심자(勞心子)와 노력자(勞力子)로써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구분하였다.³⁸⁾ 여기서 선비나 치인의 노동을 마음(心)으로 표현했음에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노동은 각자가 갖는 신분적 의무의 테두리 속에서 개념화되었다. 대부분의 노동 활동은 '도리'의 차원에서 규정되었는데, 이 점은 경제 활동이 도덕 가치에 종속되는 예로서, 서구 중세에 노동이 종교적 의미로 포장되는 것과 유사한 형식을 보여 준다.

35) 이승환, "왜 유학에서는 권리 존중의 윤리관이 형성되지 못했는가," 『중국의 사회사상』, 중국철학연구회 편, 서울: 형설출판사, 1992.

36) 이종호, 『조선시대의 경제사상』, 서울: 민속원, 1993.

37) 沈伯綱, "동양 고전에 있어서의 경제사상," 『정신문화연구』 12권, 1989, pp. 57-72.

38) 告曰: '或勞心, 或勞力. 勞心者, 治人. 勞力者, 治於人.' 『孟子』.

결론적으로, 전통 사회에서의 인간 주체는 도덕적 자기 완성(修身)이라는 의무를 갖는 존재로서 '합리적 감정'에 기반한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전제되고, 도덕적 행위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수양과 구체적인 의무/도리에 따른 활동들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양의 철학이 지배 계급의 도리이자 치국의 수단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피지배 계급에게 오히려 강요된 수양으로 나타나기 쉬웠다는 점이다. 임금이나 군자와 같이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이들은 덕을 쌓는 일이 곧 정치하는 일과 동일시되었다. 따라서 군자에게는 수많은 덕목들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결국은 수양하는 일이 강제될 수도, 또 수양을 하지 않는다고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지도 않았다. 반면에 피지배 관계에 있는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수양하는 일이 강제되었다. 지배자는 늘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피지배자에게 '은혜'를 내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허물을 감싸줘야 마땅한 처지였다. 권력은 가족적 형태로 또는 적어도 그러한 형식에 비유되어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복종을 강요하였다. 본래는 윗사람의 덕이 아랫사람을 감화하여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윗사람의 무덕(無德)에 대해 아랫사람의 자발성만 강요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즉 덕치(德治)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랫사람은 덕치하에서의 태도를 취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도 사랑의 노동을 하도록 구조화된 여성의 역할과 비슷한 맥락이다.

불평등한 관계들의 대표적인 예로서 부부 관계, 부자 관계, 군신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공통된 것은 아내, 자녀, 신하가 윗사람의 허물이나 횡포에 대해서조차 너그럽게 이해해야만 했다는 점이다.³⁹⁾ 예컨대, 「내훈」에서는

39) 예를 들어 조선 시대의 법전이나 판례를 보면 아내의 잘못에 분노하여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 아내가 죽었을 경우, 남편은 결코 처벌을 받지 않는데 그것은 죽은 아내가 남편이 처벌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해서이다. 반면에 아내는 남편에게 작은 폭력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았다. '죽은 아내의 선하고 넓은 마음'이 회화적이기까지 하다.

시부모가 며느리를 "어찌다 매질을 하거나 꾸짖는 일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말을 입 밖에 내어 스스로 풀어나가려 한다면 패역(悖逆)과도 같은 것이 된다"고 하였다. 또, "남편이 어떤 일에 혹 잘못 알고 분한 김에 지나치게 말할지라도 맞서 성품을 내어 대답을 불순하게 말고 마음을 낮추고 성이 날지라도 깊이 참고 있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내는 "성품을 참고 덕을 닦을 것"이 훈시되었다. 아내의 큰 예의는 공경하고 순종하는 도리인데, "공경이란 오래 건디는 것을 말하며, 순함이란 너그럽고 여유 있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인격 수양의 차원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생존의 차원에서 수행되는 마음 노동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윗사람은 아랫사람에 대해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누렸다. 신하를 귀양 보내고 아내를 내쫓고 자식을 나가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마음의 수양에 대한 담론이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에서 감정 관리는 명백히 사회적으로 가치를 낳는 행위로 인정되었다. '노심자(勞心者)'로서의 선비와 치인(治人)은 덕을 쌓음으로써 사회의 기틀을 바로잡는 일을 한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감정 관리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존재함으로 인해 피지배자들은 바로 그 동일한 마음 수양의 논리에 의해 자발적 복종자가 되도록 강요당했고, 불평등하고 강제적인 조건에서 수행되는 이들의 마음 수양(감정 관리)은 타자를 감화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약자의 입장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당연히 할 것으로 요구받는 소외된 마음 노동(감정 노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맺는 말

인간의 노동이 갖는 다양한 면모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노력들이 갖는 비중을 제대로 평가하고 드러내기 위해, 나는 기존의 노동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고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했다. 감정 노동의 개

념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의미를 드러낸다. 첫째로는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의 구분 범주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고, 둘째로 감정 노동이 사회 구조적으로 형성되는 노동임을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감정 노동은 '정신 노동'에 대한 좀더 엄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보여 주고, 특히 감정 노동을 구조화하는 사회적 장치의 억압적 성격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

감정 노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감정 노동이란 자신의 심리적·감정적 상태를 의식적이고 합목적적인 방식으로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노력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유용성이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강제되는 소외된 노동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계 가족 제도와 성별 분업은 여성으로 하여금 감정 노동을 하게 하는 권력 관계를 형성시켰으며, 유교적 문화는 '아랫사람'들에게 마음 노동을 하게 하는 권력 관계를 형성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의 주요 활동 영역인 가족이 공적 영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교적 세계관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여성에게 감정 노동을 하게 하는 이중의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미 성역할로 인해 여성은 보살핌 노동을 해야 하는데, 이에 더하여 유교의 영향은 보살핌 노동을 특정 방식으로 강화하고, 여성이 아랫사람의 신분으로서 윗사람에 대해 종속적인 방식으로 마음을 써야 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자기 수양의 압력은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 희생과 도덕적 비난 사이에 양자 택일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든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유교적 배경이 한국 여성에게는 자신의 감정 노동을 개념화시킬 수 없게 하는 방해 요인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효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이어서 여성만의 역할이 아닌 남녀 모두의 일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여성의 성역할로 인한 감정 노동은 유교적 배경에 흡수됨으로써 더욱더 가시화되기 어려운 결과를 낳는다. 보편적인 덕목으로 규정되는 가치들의 실제 수행이 일부 집단 즉 여성에게만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덕목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성에게 구조적으로 강제되고 있다는 데에서 오는 문제들이 은폐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한국 여성에게

감정 노동을 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성별 분업에 따른 여성 역할과 부계 제도 외에도 감정 노동의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유교적 세계관이 있다. 그리고 가정 영역 내의 유교 문화는 다시 부계 제도와 성별 분업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 노동은 여성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은 여성이 보상을 받아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일 뿐인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억압인가? 서비스 직종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감정 노동은 가치 평가되는 일이 중요할 수 있지만, 주부의 감정 노동은 돈으로 환산한다고 해서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여성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인격까지도 사물화시키는 시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감정 노동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하에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착취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여성 스스로가 그러한 자기 억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더욱더 자아가 분열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감정 노동의 개념은 그 동안 문화의 영역으로만 치부되었던 심리적 억압과 종속이 노동의 영역과 근본적으로 이질적이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궁극적으로는 (소외된) 노동이 자기 실현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소외된) 감정 노동도 자기 실현적이고 자유로운 마음의 수양이자 도덕적 선택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불평등한 관계가 해소되어야만 한다. 불평등한 관계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한 약자에게 강요되는 그 어떤 도덕적 수양도 억압적인 감정 노동으로 둔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제 8 장

대졸 여성의 노동 경험과 직업의식 신화

조정아

글을 시작하며

흔히 여성은 직업의식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다. 이 말은 여성이 야근을 꺼리고 '칼 퇴근'을 하거나, 회식 같은 비공식 모임에 참여를 꺼리고 자녀 문제로 근무 중 전화를 걸 때, 그리고 결혼과 출산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으레 등 뒤에서 터져나오는 말이다. "여자들은 역시……"인 것이다. 여성들은 정말 직업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장을 쉽게 그만두는 것일까?

이 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왜 뛰어난 능력과 의욕을 겸비한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¹⁾에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결혼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는가? 왜 좁은 취업 문을 통과한 똑똑한 여성들이 그 동안 노력을 헛되게 하면서 경제적인 자립 기회를 큰 저항 없이 버리는가? 이것은 여성들의 직업의식이 부족하다는 세상의 통념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가?

1) 나는 '노동'의 개념에 가사 노동이 포함한다고 본다. 이 연구는 사회 조직체 내에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에 한정되므로, 여기서 가사 노동과 구별하여 사회적 노동이라고 칭하였다. 사회적 노동의 포괄적 의미로는 임금노동이 아닌 봉사 활동(voluntary work)도 포함되지만 이 장에서는 임금노동에 한정짓는다. 이하에서 '노동' 혹은 '일'로 칭하는 것은 모두 사회적 노동을 의미한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벗어나는 것이 왜 문제인가? 한국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계속 증가하여 1996년 현재 48.7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여성의 평생 평등 노동권 확보를 주장해 온 여성주의자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엥겔스(Friedrich Engels)가 "여성 해방의 첫 번째 전제는 모든 여성을 사회적 노동에 참여시키는 일이다"라며, 사회적 노동의 참여 여부가 곧 여성 지위를 결정짓는 것이자 여성 해방의 열쇠²⁾라고 주장한 이래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이에 공감하였다. 물론 사회적 노동의 참여는 여성 해방의 전제 조건일 뿐이다. 그러나 '일하는 것'은 경제적 독립과 아울러 사회적 관계망 확보와 자본주의 사회가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생산적인 일에 종사한다는 데서 오는 주체성 획득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와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게 된 현상은 그 착취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여성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많은 여성들은 스스로 전통적인 여성 영역인 결혼과 가정 생활을 선택하고, 그 대부분이 퇴직을 하며 사회적 노동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여성 노동자들이 사회적 노동으로부터 이탈하는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이러한 현상을 여성 노동의 특성으로 해석하며 결혼 퇴직 관행과 성역할 분리 이데올로기에 의한 현상으로 분석하기도 하지만, 좀더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직업 의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보거나 직업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예로 사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여성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을 정당화시키거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2) F. Engels,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김대웅 역,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서울: 아침, 1987. 마르크스주의의 이와 같은 인식은 여성이 남성과 같은 임노동자가 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여성 억압의 근원인 사유 재산제의 철폐를 위한 혁명 투쟁에 남성과 같이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 특히 주목하는 점은 사실상 여성 노동자가 분명히 어느 정도 자기 선택에 의해서 결혼과 더불어 노동으로부터 이탈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행복한 주부의 환상이 유포되어 있는 만큼이나 전업 주부가 갖는 문제점도 널리 알려져 있고, 커리어 우먼에 대한 찬양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듯 전통적 여성다움을 찬양하는 이데올로기와 성공한 여성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결혼과 더불어 노동으로부터의 이탈을 꿈꾼다. 이렇듯 모순적인 상황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가? 이는 여성들의 사회 생활에 대한 의지가 약한 때문인가?

이에 대해 폴러트(Anna Pollert)는 여성 노동자가 사회 구조 속에서 수동적 존재가 아닌 적극적인 존재라는 인식하에 여성들이 결혼을 대안적 노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³⁾ 여성들이 학창 시절 소녀로서 결혼에 대한 신화를 습득하여 내면화했기 때문에 결혼을 합리적 대안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폴러트의 견해는 노동 경험을 통한 여성 노동자의 인식 변화를 간과한 것이다. 현대 여성이 모두 학창 시절에 단순하게 결혼에 대한 신화만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폴러트가 말하는 견해의 일반화는 여성에 대한 또 하나의 편견일 수 있다.

나는 여성 노동자를 억압적 구조에 갇힌 순진한 희생물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속에서 억압적 구조에 반발하며 적응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보고자 한다. 이들의 행위 뒤에는 비록 한정된 맥락이기는 하지만 구조에 얽매인 수동적 존재가 아닌 하나의 주체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현재 세계에 대한 평가와 이해가 뒷받침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여성 노동자가 단순히 결혼에 대한 신화와 여성다움을 내면화하고 있다가, 직업 의식이 부족하여 결혼과 함께 노동 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을 원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성들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노동 경험을 통한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미래 계획의 변화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3) Anna Pollert, *Girls, Wives, Factory Lives*. London: Macmillan Press, 1983. pp. 4-22.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대졸 사무직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초기의 사회적 노동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어떻게 노동에서 이탈하게 되는지를 노동 경험을 통해 보도록 하겠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을 택한 것은 사무직 여성 노동자 중에는 아직도 조직화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⁴⁾ 연구 방법으로는 비구조적인 심층 면접을 사용하였다.⁵⁾

노동에의 기대

여성의 노동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에 들어가기 이전의 경험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심각한 취업난을 겪는 한국 여성의 취업 준비 과정을 통해 노동에 대한 여성의 태도와 인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현재 전체 사무직 여성 노동자의 숫자는 470,159명이다. 이들의 조직화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여성 노조원의 비율이 파악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전문직 노동조합연맹의 여성 노조원 수를 참고로 하면 약 2만8백 명이다. 이는 전체 사무직 여성의 약 6.3퍼센트를 차지한다.

5) 심층 면접법을 선택한 이유는 이 연구가 여성 노동자의 경험 세계를 연구 대상으로 하므로 설문지 방법이나 문헌 조사 방법 등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면접 대상의 선정은 알음알음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대졸 미혼 사무직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선정 원칙은 두지 않았다. 단지 면접에 기꺼이 응해 줄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삼았는데, 이는 노동 경험 전환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의 특성상 면접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노동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느낌에 대해 솔직히 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개의 피면접자는 매우 기꺼이, 즐겁게 면접에 응해 주었고 자신의 노동 경험을 털어놓는 것에 대해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듯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억눌린 노동 경험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동감을 표하고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서 반갑다는 식이었다. 이 외에 20대 후반의 기혼 여성도 미혼 시절 노동 경험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포함시켰으며, 남자 대학생과 회사원, 고졸 사무직 여성 노동자를 각각 2명씩 인터뷰하여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취업 동기

장래에 대한 대졸 여성들의 기대와 준비를 볼 수 있는 첫 계기인 '대학 진학 동기 및 학과 선택 배경'부터 살펴보자. 내가 만난 여성들은 대학 진학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집안 환경에서 자라, 남들 하듯이 점수에 맞춰 진학하였다. 그 가운데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졸업 후에 얼마나 취업이 잘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자는 시집 잘 가려고 대학 간다는 사회적 통념과는 반대로 여대생들은 진학 당시부터 사회 활동을 하는 직업 여성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했다. 이는 여자대학 중에서 취업이 용이한 학과가 소위 인기학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이 여성들은 현모양처상을 강요하기보다는 딸을 대학에 보내고 성공을 원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보적인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열 뒤에는 사회적으로 성취한 여성의 삶에 대한 뚜렷한 역할 모델이 없기에, 딸이 명문 학교에 들어가고 진학 이후에는 '여성적 가치'의 실현, 즉 결혼이라는 상품 시장에 내놓을 경우 손색 없는 상품으로서의 실현에 관심을 보이는 보수성이 포함되어 있다.⁶⁾ 이러한 가족 배경은 이들의 대학 진학과 졸업 이후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이와 같은 의식으로 대학에 들어온 여대생들은 '취업 준비'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대졸 여성의 극심한 취업난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아서 취업에 성공한 여성들은 좁은 취업 관문을 뚫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⁷⁾

6) 박신규, "딸의 체험을 통해 본 모녀 관계의 성격과 변화: 30대 전문직 여성 사례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92, pp. 47-58.

7) 1996년 현재 전문대 졸업 여성의 취업률은 졸업자 중 69.8퍼센트, 교육대를 제외한 4년제 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47.3퍼센트이다. 4년제 대졸 여성의 경우 비록 취업자의 절대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률은 1980년의 50.2퍼센트에서 1985년 29.8퍼센트, 1990년 37.3퍼센트로 오히려 감소하였다가 1996년 현재 47.3퍼센트로 증가하였다(문교부, 『문교통계연보』,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그러나 이는 학원 강사, 학

나는 처음부터 취직을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일찍부터 취직 걱정을 했고, 영어 공부를 계속하다가 본격적인 시험 준비는 4학년 초부터 했죠. 학원에서 '실전 시험반'이란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입사 시험을) 보는 때마다 떨어졌어요. 완전히. 역세계 많이 봤어요. 진짜. 안 본 데 없어요. 길거리 다니면 다 내가 시험본 곳이에요. '저 건물 내가 시험 보러 갔던 데, 저 회사 내가 시험 봤던 데'지요…… 그런데 취직이 잘 안 되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취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졸업하고 3월까지도 취직이 안 됐거든요. '두고봐라……'라고 생각했어요. (A씨)

여성들은 결코 남학생 못지 않은 각오와 의욕으로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며 취업 전쟁에 뛰어든다.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여대생들은 취업을 진지하게 생각했고 절실한 문제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왜 그렇게 취업을 절실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취업에 대한 그 '절실함' 또는 '진지함'을 이해해야만 취업 후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들의 취업 동기를 추적하는 가운데 알 수 있을 것이다.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는 것은 흔히 '취직'이라고 불리며, '똑똑한' 여대생들 사이에서는 경멸된다.

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닌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배워서 뭐해요? 집에서 놀면 뭐해요?……. 그 때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원 아니면 취직. 첫째, 노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노는 건 너무 무능한 자의 일이었거든요. 나한테는. (A씨)

이러한 모습은 과거의 현모양처상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던 여성들과는

습지 교사 등 모든 종류의 '취업'을 포함한 것으로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이나 유명 대기업의 문은 훨씬 더 좁다. 지난 1991년부터 1995년 상반기까지 국내 40대 그룹사의 여대생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채용 인원 중 여대생의 비율은 1991년 5.66퍼센트, 92년 6.27퍼센트, 93년 9.85퍼센트, 94년 9.25퍼센트, 95년 상반기 7.44퍼센트 등으로 평균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윌란, 1995).

큰 차이를 보인다. '여자가 왜 집에서 썩나?'라는 이들의 생각에서 여대생들이 성역할과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에 대한 여대생의 절실함에는 현대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답게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다는 생각과 현모양처와 같은 전통적 여성상에 대한 반발이 중요 동기가 된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여자도 사회적 노동을 해야 하고, 일시적인 사회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소신이다.⁸⁾ 이처럼 여대생들은 사회적 노동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취업 태도

강한 의욕

이처럼 나름대로의 각오와 준비 과정을 거쳐 치열한 입사 경쟁을 뚫고 들어온 여대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무렵, 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노동에 대한 강한 의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입사 초기 대졸 여성들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회사에서 '한 번 승부해 보겠다'는 전망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본받을 모델이 없는 여성은 대개 개척자의 위치에 서기 마련이다.

입사한 후에 보니까 결혼하고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면접할 때 분명히 계속 다닐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회사에 들어온 후에도 그 게 걱정돼서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하고도 다닐 수 있고, 또 진급도 가능하냐고요. 그랬더니 과장은 '그거야 뭐, 네가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 시험 봐서 진급할 수도 있고……'라는 식으로 말했었죠. (C씨)

8) 1992년 전국 3개대 여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장하진의 연구에 따르면, 졸업 후 취업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96.9퍼센트가 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사회 진출 기간을 언제까지로 상정하고 있느냐는 항목에는 평생 직업으로 하겠다는 응답이 85.2퍼센트로 나타나 대다수의 학생이 평생 직업을 원하고 있다. 장하진, "고학력 여성의 취업의식 연구," 『여성과 사회』 4호, 1993.

“무엇이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는 상사의 말에, 비록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앞에 놓인 가능성을 보며 여성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새로운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만 하는 대졸 여성들은 업무 자체에 대한 매력을 생각하기에 앞서 일단 그 길부터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다. 그들은 대개 개척자답게 대부분의 남성보다 한결 더 열심히 노력한다. 여성들이 야근을 기피하고 소극적이라는 일반적 비판과는 달리 많은 대졸 사무직 여성들은 회사 내에서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밤 늦게까지 일한 적도 굉장히 많아요. 일요일도 회사에 자주 나갔고”와 같은 자세를 지낸다.

또한 남녀 차별적인 관습의 벽에 도전하는 자로서의 선구자적인 자세도 이들의 의욕과 노력하는 자세에 중요한 밑받침이 된다.

난 회사 다닐 때 많이 울었어요. 스스로 너무 속이 상한 거죠. 나는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그런 실수에 대해서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지요. (A씨)

대졸 여성들은 취업을 위해 노력한 것과 같이, 입사 후에는 낯선 존재인 대졸 여성에게 쏟아지는 호기심과 ‘너희는 그래봤자다’라는 사회의 시선을 남성들보다 더욱 뛰어난 능력으로 증명하고자 노력한다.⁹⁾ 이러한 태도에서 여성들이 차별 구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음을 발견할 수 있다.

9)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인 대졸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여 준다. 남성의 경우 아직까지는 어느 단계까지 안정적 승진이 가능한 기업 문화 속에서 승진에 대해서는 당연시하고, 그 후에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은 그 이전의 기초적 문제인 승진과 결혼 후의 직장 생활 지속 가능 여부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10) 어떤 여성들은 여대생이 취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한 자신이 한국 여성 노동자의 선구자라는 인식과 더불어 ‘내가 잘해야지 길이 열린다’며 후배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끼기도 한다.

예상되는 난관들도 ‘기본이 조금씩 나쁠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은 순간이고, 자기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아’라는 식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믿으며, ‘아무리 여자에 대해 갖는 편견, 선입관이 있다고 해도 “아, 저 여자, 그런 여자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 줄 수 있으면 다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세계에서 ‘일 배우는 즐거움’과 갖 입사한 ‘신선한’ 여사원으로서 귀여움받는 즐거움은 이런 낙관적 기대를 더욱 뒷받침해 준다.¹¹⁾

여성들의 이런 노력 뒤에 배어 있는 또 다른 인식은 강한 자존심이다. 자신에 대한 신뢰와 기대라고도 할 수 있다. 똑똑한 여성으로서의 성공적 삶을 살아온 이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강한 성취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는 회사 내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자 하는 강한 의욕과 노력하는 자세로 나타나고,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인정받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대졸 여성 노동자의 일에 대한 의욕과 태도는 장래 전망과 주변의 인정이 함께 있을 때 지속 가능할 것이다.

내재된 함정

이러한 대졸 여성의 취업 태도는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면에는 모순된 다른 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함정도 존재한다. 먼저 이들의 노동 욕구는 진보적인 여성상 이면에 존재하는 가사 노동에 대한 경시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즉, 노동을 ‘강요된 현모양처상과 무의미한 가사 노동’이라는, 여자에게 주어진 운명의 탈출구로서 인식하고 있다.

내가 평생 직장을 다닐 거라고 생각했었던 건 단순히 집에 파묻히는 게 싫었기 때문이에요. (A씨)

11) 그러나 이와 같은 주변의 격려는 일반적으로 ‘착한’, ‘예쁜’ 또는 ‘귀여움’이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서, ‘여성’으로서 평가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이는 여성을 ‘여직원’으로 보는 회사의 인식과 연관된 것이다. ‘여직원’에 대해서는 뒤의 비공식 업무에 관한 절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난 옛날에 대학교 졸업하면서, '대학에서 배운 것도 있는데 여자가 왜 집에서 썩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B씨)

이들의 노동 참여 욕구는 사회에 유포된 '커리어 우먼(career woman)'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전통적인 여성의 삶에 반발하며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서 취업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취업 자체의 성공 여부에 관심을 쏟고 그 이후의 내용에 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 이처럼 전업 주부에 대한 전통적 담론과 '커리어 우먼' 같은 새로운 여성상, 진보적 여성상¹²⁾의 새로운 담론이 상충하는 가운데, 오히려 여대생들은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를 고려하지 못한 채 전통에 반발하며 반대 방향으로 뛰어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의미에서 억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똑똑하다고 인정받아온 여학생일수록 심한데, 이들에게 취업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졸 여성의 취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취업에 성공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 대상자들은 대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대학 출신이거나 개인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들이다. 이들은 대학에 무난히 들어갈 정도로 성적이 좋았고 우수한 대학에 입학했으며, 소위 '모범 학생'으로 살아왔다. 이들에게는 성공적 삶의 다음 단계로서 졸업 후 성공적 취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대졸 여성들의 경우 성취 의식은 강하지만 그 성취의 내용은 막연한 경향이 있다. 이들에게 취업은 적극적인 생계 수단이라기보다 대부분 자신이 배운 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와 사회 경험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안이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취업난이 심각하면 할

12) '진보적'이라는 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여기서 '진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인터뷰한 여성들이 모두 최소한 관념적으로는 성역할 이데올로기나 현도 양태와 같은 보수적인 여성관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거부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분명한 과거의 여성상과는 분리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졸 여성들이 실제로 지닌 의식은 엄밀히 말하자면 소위 '커리어(career)'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현대적' 여성상을 지니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수록 취업 후의 생활을 그려보거나 적성을 따질 여유가 없이 성공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아이러니는 이와 같은 사회적 노동 참여를 위한 여성의 노력이 역설적으로 졸업 후의 진로 선택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행해지는 '당연한', 심지어 '무계획한' 단계 이전에 불과하게 만드는 함정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취업 과정과 직업 선택, 그에 따른 막연한 성취 의식은 사회에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쉽게 회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된다. 대졸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은 호의적인 입사 초기의 한때를 지나 본격적인 사회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 속에서 이들의 노동 경험은 어차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마련이다. 이들의 강한 의욕 속에 혼재된 모순된 의식들은 노동 경험 속에서 어떤 형태로 표출되어 영향을 미칠 것인가?

노동 현실과 여성의 변화

현실 깨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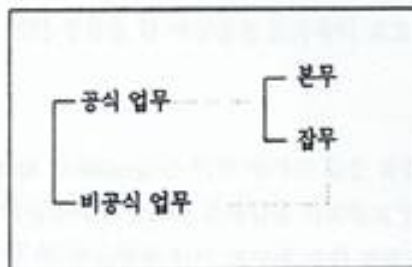
노동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이며 희망찬 출발을 한 대졸 사무직 여성 노동자가 노동 경험을 통해 어떻게 변해 가는가? 여성 노동자의 경험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실제로 행하는 노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나는 여성 노동자의 노동을 분석적 차원에서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여성 노동자의 노동은 크게 공식 업무와 비공식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식 업무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노동자에게 지시한 업무와 관련된 노동이다. '공식적'이라는 의미는 원칙적¹³⁾ 의미에서 그 업무가 회사와 조직

13) 회사에서 업무로 지시한 만큼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무시되고 상사와 동료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잡무와 같은 업무도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원칙적'이다.

원들에 의해 '노동'으로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 업무는 다시 본무(本務)와 잡무(雜務)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본무는 공식적인 업무로서 노동자가 원래 맡고 있는 본연의 업무를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채용시 회사로부터 지시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업무이다. 반면 잡무는 같은 공식 업무이기는 하지만 본무가 아닌, 흔히 단순하거나 일회성인 가외(加外)의 업무를 의미한다. 비공식 업무는 공식 업무나 직접적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한 직원이 담당하도록 암묵적으로 동의, 혹은 공인된 노동이다. 따라서 공식 업무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대가가 존재하는 반면, 비공식 업무는 조직 내에서 흔히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노동이다. 이처럼 여성 노동자의 노동은 본무, 잡무, 비공식 업무의 세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표 8-1 참조).

〈표 8-1〉 여성 노동의 업무 구성: 공식 업무와 비공식 업무



그런데 기존의 노동 과정 연구는 주로 공식 업무, 그 중에서도 본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대졸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의 중요한 구성 요소는 공식 업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직원으로서의 위치에서 나오는 특수한 경험들이다. 대졸 여성 노동자들은 대개 자신의 '일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견해를 표현한다.

일 자체는 즐겁고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은 편찮았어요. 지금 생각해

도 일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일 자체는 즐거운데.(A씨)

여기서 거듭 나오는 '일 자체'란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이 '일 자체'는 회사에서 자신들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주된 업무, 즉 본무를 의미한다. 이들의 노동 경험에서 본무의 싫고 좋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오히려 대졸 여성 노동자의 사회 생활 경험 중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현실은 회사에서 여성이라는 성(性)으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새삼스러운 발견이다. 이들은 대학 졸업 무렵까지 여성으로서의 커다란 좌절감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으며, 더구나 그 어려운 취업 관문을 통과한 능력 있는 여성들이었다. 이들이 조직에서 겪는 좌절의 첫 경험은 여성으로서 겪는 성차별이다.

성차별로 인한 대졸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의 좌절은 "나는 여직원이다"라는 말로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남성 사원 또는 여성 사원이 아닌 '여직원' 이 단어는 여성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여러 현실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여직원'이라는 호칭은 회사 조직 내에서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 사원과는 다른 업무와 책임을 지니게 되며, 따라서 다른 노동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대졸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공식적 업무 내용이라기보다는 성차별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여직원'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깨달아 가는 과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부서 배치 및 업무 배치시의 차별

처음으로 자신이 '여직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는 부서 배치 및 업무 배치에서이다.

그 부서에서 내가 살아남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좋고, 조금 덜 좋은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좋은 것은 남자 직원들 위주로 배정해

주고, 내가 보기에는 난 딴 업무 줘요……. (D씨)

대졸 여성들은 능력과 무관하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업무 분담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¹⁴⁾ 나름대로 사회 생활에서 성공하려는 의욕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 업무 분담의 차별은 단순히 불만스러운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회사가 경쟁 조직인 이상 남성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성장하기에 유리한 일들은 남성에게 배정되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애초부터 제한된다. 이것은 불공정한 게임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업무 및 부서 배치시의 차별은 성차별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성들이 깨닫게 되는 최초의 사건이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좌절의 경험으로서, 노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배정된 부서와 업무의 가치에 따라 그 조직 내에서 자신의 전망을 가늠할 수 있고, 전망에 의해서 노동에 대한 태도와 의식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한 여성들은 소극적이 되고 무기력해진다.

비공식 업무

골드버그(Robereta Goldberg)는 커피 타기와 같은 하찮은 일(domestic chores)이 사무직 여성들에게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¹⁵⁾ 그러나 골드버그는 '하찮은 일'의 중요성을 단지 여성에 대한 존중(respect)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데서 그침으로써, 이를 개인의 주관적인 문제로 한정짓고 있어 그 중요성과 그 영향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비공식 업무는 여성의 노동

14) 1997년 한국여성민우회에서 국내 5대 그룹의 41개 대기업 여성 종사자들을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배치 기준이 남녀 차별적이라는 응답이 69.3퍼센트, 직무 배치가 남녀 동등하지 않다는 응답은 76.9퍼센트에 달해 이 분야의 차별이 여전함을 알 수 있다(한국여성민우회, "왜 차별을 이야기하는가," 『5대 그룹 대졸 여성 승진 실태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미간행, 1997).

15) Roberta Goldberg, *Organizing Women Office Workers*, New York: Praeger, 1983.

경험에 좀더 현실적인 중요성과 영향을 지닌다. 그러면 여성들에게 왜 잡무와 비공식 업무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인가? 다음은 한 여성에게 업무 내용에 대해 물어봤을 때 한 대답이다.

내 업무 내용은 펀드 매니저가 운영한 돈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매달 수익률을 내는 거예요. 매일 바뀌는 주가를 업데이트시켜 주고, 계산 공식에 의해서 그 주가를 임의적으로 바꾸어 주는 거죠. 개별 종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내가 다 고쳐요. 그런 굉장히 소소한 작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내장되어 있을 뿐이지,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구미에 맞게 가공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이상 본부: 인용자 주).

부정기적으로 타이핑이나 기안 작성, 또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해요. 수입 인지도 붙이고 타이핑도 하고, 계약금이 들어오면 영수증도 끊고, 또, 월요일이 되면 매주 회의 자료가 나가는데, 카피해서 소팅해서 자료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경비 절감의 한 가지로 생수기 통을 없애서 누군가 물을 끓여 놔야 해요. 우리 여직원 셋이 일 주일에 두 번씩 돌아가면서 아침에 일찍 와서 물을 끓여서 보온통에 담아 놓고, 그리고 제일 내가 기분이 나빴던 것 중에 하나는 점심 시간에 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니까, 회사가 텅 비니까 지켜야 돼요. 입사하고 일년 반 쯤 지나서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대리급까지 돌아가면서 지켰는데 나 중에는 여직원만 하란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시간은 여직원만 한 시간 내내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번인 여직원은 아침에 물 끓이고, 점심 때 지키고 앉아서 전화받고, 사람 다 퇴근하면 가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청소 아줌마가 책상을 닦아 주고 청소를 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못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아침에 다른 사람들 책상까지 다 닦아줬어요. 자기 손으로 안 닦아요. 단말기까지 다 닦아줘야 해요. 나는 아침에 일찍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 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닦았는데 왜 매일매일 닦지 않는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내 앞에는 나무 화분이 있어서 그 나무까지 관리를 해야 했어요. 맨날 물도 주고 나무 죽으면 나한테 왜 죽었냐고 묻고, 그런 책임까지 지워졌지요. 또 우리 이사님은 커피 중독자로 하루에 4-5번씩 커피를 드시는데 그것을 맨날 맨날 타다 드려야 하고, 우리 부서는 손님이 많이 와요. 올 때마다 차 타 주고, 그러니까 커피 타는 시간,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상 잡무와 비공식적 업무: 인용자 주). (C씨)

자신의 업무 범위에 공식·비공식 업무를 함께 포함하여 말하고 있는 점에서 여성들이 이를 모두 자신의 '노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대졸 여성 노동자들에게 문제되는 노동은 잡무와 비공식 업무로서, 자신의 업무 영역 중 본무보다 훨씬 길게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잡무와 비공식 업무는 명확한 경계를 짓기 어렵고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잡무를 비공식 업무에 같이 포함시켜 논의하겠다.

먼저 '비공식 업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

(단말기들) 왜 매일매일 안 닦느냐고 말하더라고요.....8시 반까지 출근 시간이어서 8시 15분쯤 책상을 닦고 있었는데 나보고 왜 근무 시간에 책상을 닦냐고 해서 '지금 근무 시간이 아니잖아요?' 했더니 '넌 사람들 오기 전에 해야지, 왜 사람들이 와 있는데 책상을 닦느냐고 걸레 들고 왔다갔다 하나'고 하는 거예요.(C씨)

상사는 책상 닦는 일은 꼭 해야 되지만 근무에는 포함되지 않고, 근무 시간에 하면 안 되는 일이며, 더구나 사람 앞에서 하면 실례되는 허드렛일이라는 모순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처럼 비공식 업무의 첫 번째 특징은 공식적으로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에 따라 대가 없는 노동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은 주로 여성 노동자만이 비공식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담당하는 비공식 업무는 주로 여성적 서비스로서 무보수 노동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며 경시받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가사 노동과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가사 노동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담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인식이 조직 사회에 내재해 있다.¹⁶⁾ 이것은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가 직장 내에도 그대로 적

16) 대졸 사무직 여성의 비공식 업무 부담 양상은 회사의 규모와 성격, 분위기와 그 속에서 여성 노동자의 위치와 업무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민우희의 조사에 의하면 고졸 여성의 경우 대기업에서는 업무의 분화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본무라고 할 만한 것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일의 단조로움에서 오는 고통을 안겨주는 반면, 중소 업체에서는 업무 미분화에서 오는 업무의 과중함, 피곤,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한국여성민우회, 『사무직 여성의 현실과 운동』, 서울: 석탑, 1989, p.47).

용된 것이다.

이와 같은 대졸 여성의 비공식 업무의 부담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대졸 여성은 비공식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자신이 고유의 업무를 지닌 어엿한 직장인이라기보다는 '여직원'으로서 필요에 따라 비서에서부터 청소부, 커피 마담, 회계, 타미핑, 수위, 사환 노릇을 무보수로 기꺼이 해야 하는 다목적·다기능의 직원임을 깨닫게 된다.

회사의 경비 절감 노력과 경영 합리화 전략의 부단이 곧바로 비공식 업무로서 여직원에게 전가되기도 한다. 회사는 여직원이 하는 일이 별것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경영 합리화의 일환인 인원 감축을 여직원부터 시작하여 비서나 서무 인원을 줄이고 그 일을 다른 여직원에게 겸임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비공식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노동량이 많아지고 노동 강도가 강화되며, 비공식 업무를 주로 맡게 되는 여성은 본무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들어 일의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 그러나 비공식 업무를 노동으로 인식하지 않는 회사측은 업무 처리 속도의 저하를 여성 노동자의 업무 능력 부족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평가 절하'를 야기한다. 여성 스스로도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서 대가도 없는 비공식 노동에 전심 전력으로 매진할 리 없다.¹⁷⁾

한 여성이 "개인적인 심부름 때문에 업무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업무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상사는 "개인 심부름도 공적인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회사 내에서 비공식 노동은 공식적으로

17)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편견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에서 제2 금융권 남녀 1천6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의 책임감과 직업 의식에 대해 남성은 각각 68.3퍼센트, 84.1퍼센트가 여성의 직업 의식이 없다고 부정적 평가를 한 반면 여성들은 각각 69.7퍼센트, 41.0퍼센트가 긍정적 답을 함으로써 남녀가 정반대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별 능력의 차이라는 신념으로 재생산되어 '남성과 동등한 교육 훈련이 여성에게 주어졌을 때 여성이 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성은 96.5퍼센트가 긍정적 대답을 한 반면, 남성은 51.0퍼센트가 부정적 의견을 표현했다(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조합원 고용 실태 및 의식구조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1991).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동시에 노동 통제의 대상이 되는 공식적 노동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업무 내용이 소위 '여성적'인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노동 통제는 동시에 여성다움에 대한 통제와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직원 전체를 모아놓고는 상사가 시키면 불평불만 많다는 표정을 짓고 행동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말예요..... 가끔 보면 내가 너무 바쁠 때 심부름을 시키면 얼굴에 약간 심은 표정을 지었는데 심부름을 시킬 때 싫고 종고의 표현이 얼굴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 그런 게 불쾌하다고 하고..... 그것도 예외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근무 시간 중에 커피 달라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C씨)

문제는 사적인 일이건 공적인 일이건 일의 성격과는 상관 없이 여성은 표정과 행동에서도 여성스럽기를 기대받으며 때로는 강요받는다는 점이다. 커피를 타다 주는 여성 노동자는 심은 표정을 지으면 안 되고, 다방의 여종업원과 같이 그들의 '피곤한 심신'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상냥한 표정과 태도를 보여야지만 여직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한 것이다. '나중에 느낀 거지만 회사에서 원하는 여직원은 결코 똑똑한 여직원이 아냐. 멍청해도 자기의 말에 순응해 주는 여직원을 원하는 거야'라는 한 여성의 말처럼 여직원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여성적 순종이다. 비공식 노동에 의한 업무 속도 저하를 고려하지 않고 능률적 일처리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비공식 노동을 얼마나 상냥하게 잘하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호 모순된 이야기이다.

이와같이 여성 노동자에 대한 노동 통제는 직접적인 노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녀들의 표정, 행동, 상냥함까지 포함한다. 여성 노동자는 직장 내의 여성성 강요에 대해서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성다움¹⁸⁾을 몸에 익혀

18) 여성다움이란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성역할로 이는 도전적이지 않음, 감정적, 순종적, 상처받기 쉬움, 의존적, 부드러운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A. G. Kaplan & M. A. Sedney, *Psychology and Sex Roles: An Androgeous Perspectiv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0, p.4.

야만 하는 것을 알게 된다.¹⁹⁾

여직원의 단점은 뭐, 허드렛일을 너무 많이 해요. 남자들에 비해서, 허드렛일 같은 거 당연히 여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커피 심부름이나 복사라던가. 한 신입 남자 사원은 내가 복사하기 싫다고 불평하니까 나한테 하기 싫다고 딱 얘기하래요. 그러면 안 시킨대요. 자기는 그랬었다고요. 내가 하기 싫다고 그래 봐요. 난리나죠. 여직원, 남직원(차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B씨)

이 여성은 노동 경험을 통해 자신이 저항하면 '난리'가 날 것을 잘 알고, 거기에 적응하고 있다. 이제 여성에게 생존 전략은 순응하여 여직원의 위치에 체념하여 적응하거나 전직이나 퇴직 등의 방식이 된다.

이렇게 비공식 업무에 의해 대졸 여성 노동자들은 커다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단순히 노동 강도가 증가되고 대가 없는 비공식 업무를 맡게 되었다는 불만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다. 조직 내 개인의 무력함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분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여성인 한 능력이나 야망과는 상관 없이 우선 '여직원'으로서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서 오는 좌절감이다. 더군다나 이들의 취업 동기를 생각해 볼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보수 가사 노동과 비슷한 비공식 업무를 강제로 맡게 된다는 것은 사회적 노동에 걸었던 의의가 사장되는 것이며, 노동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기존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연구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처럼 비공식 업무는 여성들의 노동 경험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대졸 여성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노동통제는 주로 비공식 업무에 대해 이루어진다.

19) 여성다움이 노동 통제의 수단이 된다는 일반적 지적(P. Thompson, *The Nature of Work*. 김문중 외 역, 1987. 『노동사회학』, 서울: 경문사, 1982; 이진정, "생산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노동통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1991)과는 달리 비공식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는 여성다움이 통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비공식 업무 분담이나 이러한 평가에 대한 여성 노동자의 저항은 조직의 특성과 그 속에서의 업무,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고졸 여성과 대졸 여성의 차이가 나타난다.

나름대로의 야망과 책임감을 지닌 대졸 여성 노동자들은 본무는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 자기의 일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공식 업무에 대해서는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제는 역설적으로 비공식 업무의 공식성을 증명하고, 여성 노동자는 단순한 일만 하고 있다는 회사의 인식이 얼마나 기만이며 모순적인가를 보여 준다. 한편 비공식 업무를 둘러싼 갈등 과정을 통해 여성 노동자는 회사 내에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배우게' 되며, 결국 어쩔 수 없이 '여직원'으로서 길들여진다.

사소한 차별

자신이 '여직원'임을 깨닫는 과정은 노동 과정에서뿐 아니라 회사 생활의 매우 사소한 일에서부터 노동자 간의 관계, 인격적 대우에 이르기까지 남성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과 주변적 존재임을 철저히 느끼게 되는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여성들이 회사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사소한 차별'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 경험들이다. 이 경험은 노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 즉 노동자 간의 일상적 관계라든가, 무심히 지나치는 대화 등 비공식적 회사 생활이라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겪는 사소한 차별이 여성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는 그 사소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 연구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대졸 여성은 회의나 모임에서 여성이라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적인 모임에 참석해도 주로 고졸 여사와 같은 모임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대졸 여성은 '여직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고졸 여사원에게는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동시에 자신의 준거 집단인 남성 노동자들로부터는 주변인으로 취급받음으로써 사내(社內)에서 매우 소외된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런데 대졸 사무직 여성들이 드물지 않게 겪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게 되는 사건'이 있다. 사소하다면 너무나 사소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자리 배치'에 관한 일이다.

나는 항상 노력했고, 밤 늦게까지 일한 적도 굉장히 많고, 일요일에도 자주 나왔어요. 그런데 나보다 늦게 입사한 남자 사원을 더 좋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한테 자존심을 굽히고 딱 애걸 했어요. "나는 기분이 나쁘다. 과장님이 항상 나보고 남자들한테 뒤지지 않게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른쪽 왼쪽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은 그냥 거기 앉힌 거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자리 배치가 변하면서 이제는 앞뒤에 앉게 된 건데, 과장이 나를 부르더니 "지금 최○○ 씨가 A씨보다 실력이 모자란 것을 누구나 보면 아는데 A씨보다 더 낮은 자리에 앉히면 나가라는 소리나 똑같은데 A씨가 더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우리 과장이랑 나랑 회의실에서 대판 했어요. 울며불며 싸우고 난리쳤죠. 평소에는 항상 남자들한테 뒤지지 않는 자세로 일하라고 해 놓고는 어떻게 과장님까지 이럴 수가 있느냐? 왜 그 사람이 나보다 상사 자리에 앉느냐.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는 식으로 말했어요. (A씨)

A씨에 대한 격려와 능력 인정과는 달리 과장은 자리 배치에서는 남성 사원이 여사원보다 뒷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사고 방식을 고집한다. 사회에서의 '남녀의 권력 관계'를 인지하고 이를 그대로 회사 내의 남녀 노동자의 관계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아무 상관 없다'고 얘기되지만 자리 배치는 직원 간 권력 관계의 위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공간적 배치도인 것이며, 그 자체가 힘을 지니는 것이다.²⁰⁾ 권력 관계의 위치를 상징하는 자리 배치 사건을 통해 여성 노동자는 경력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주변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비록 사소한 차별이라고 하지만 사소하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저항하기가 더 어렵다. 더구나 이런 '노동과는 무관한 일로 보이는' 일은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고, 거기에 일일이 항의하다 보면 '사소한 일'에 집착하

20) 헨리(Nancy Henley)는 일상의 사소한 행위들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 강조하면서 공간과 위계 체계 서열 간에 상관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N. Henley, *Body Politics: Power, Sex, and Nonverbal Communication*. 김태상 역, 『몸의 사회심리학』, 서울: 일월서각, 1984, pp.43-57).

는 소심한 여직원으로 낙인찍혀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고 만다. 결국 대개는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체념하는 방법이 그 해결책이다.

이러한 사소한 차별이 대졸 여성 노동자의 노동 경험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까?

내가 여태껏 도저히 회사 못 다니겠다, 아니면 결혼하고 싶다는 욕구를 제일 크게 느낀 적은 꽤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리다툼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기 와서는 처음에 그 때 전표 치는 잡무 배치를 맡았을 때…… (A씨)

사소한 차별의 경험을 통해 대졸 여성 노동자는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간파²¹⁾하게 된다. 이 경험을 통해 여성은 경쟁적인 사회 조직 내에서는 자신이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에 자신의 앞날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 회의가 밀려오며 처음에 지냈던 의욕은 퇴색되고 노력도 시들해진다.

차별 임금

대졸 여성들은 "일한 것에 대해서 가장 단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성취감을 단적으로 주는 도구"라며 임금에 대해서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생계보다는 성취감을 주는 도구라는 면에서 임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21) '간파(penetration)'란 한 문화적 형태 안에서 그 구성원들이 처한 삶의 조건과 전체 사회 속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꿰뚫어보려는 충동을 가리킨다 (Paul Willis, *Learning to Labo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1981. 김찬호·김영훈 역, 『교육현장과 계급재생산』, 서울: 민맥, 1989). 반면 '제한(limitation)'이란 그러한 충동의 충분한 발전과 표출을 혼란시키고 방해하는 이런저런 장애 요소와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가리킨다. 윌리스는 '부분적 간파(partial penetration)'를 약간 어색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엄밀한 용어라고 하면서 간파와 제약이 구체적 문화 속에서 상호 작용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새로 수출 수당이 3만 원인가 생겼어요. 그런데 나만 그게 안 나온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왜 나만 이게 안 나오냐"고 따졌어요. 게다가 월급 명세서를 따져 보니깐 남자들보다 되게 조금 나와요. 왜 차이가 나는지 인사과에 알아봤더니……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또 남자들은 본봉과 시간의 수당 합친 것에 대해 보너스가 계산이 되고 여자들은 본봉에서만 보너스가 계산이 된단나? 그런 식이에요. (A씨)

중소 기업체에 취업한 A씨는 처음 1년간 매달 30여만 원을 받았다. 임금의 절대 액수가 매우 적었지만, A씨는 임금의 절대 액수가 아닌 남성과의 차별 임금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항의할 수 있었다. 대졸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 학력의 소지자이며 동등한 조건하에 채용되었기 때문에 차별 임금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회사에 항의할 수 있다. 특히 대졸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은 임금을 성취감이나 자존심과 관계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차별 임금에 더욱 예민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절대 액수보다는 임금의 차별적 성격에 더욱 주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여성 노동자는 자본주의적 노동 착취를 구체적으로는 가부장적인 성차별로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은 노동 과정에서 분명한 착취를 느끼지 못하거나, 착취조차 차별로 경험한다.²²⁾ 남녀 차별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으로 다가오므로 여성들은 그 부당함에 분노한다.²³⁾

여성들은 계속해서 직장 내 성차별에 저항하지만 개별적인 여성 노동자

22) 이는 필립스(Anne Phillips)와 테일러(Barbara Taylor)가 성적 위계와 무관한 순수한 '경제적' 요소라는 것은 없다고 지적한 점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N. Sokoloff, *Between Money and Love: The Dialectics of Women's Home and Labor Market Work*, 1980. 이효제 역, 『여성노동시장 이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0, p.258에서 재인용).

23) 이들의 분노를 더욱 크게 하는 것은 이들이 회사에서 매우 의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이라는 점이다. 대개가 "우리 부서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늦게 간 사람이 나왔어요"라는 말을 할 정도이므로, 남성 사원보다도 더 적은 월급은 분노를 야기할 것이다.

들의 저항이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노동조합에서조차도 여직원이 겪는 성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여성 노동자는 심한 좌절감을 느낀다.²⁴⁾ 차별 임금에 대해 개별적으로 저항하여 일정 정도는 성공을 거둔 A씨도 자신의 저항 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왜 나만 이게 안 나오냐고 따졌어요. 그런 것 하나하나 따질 때마다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것을 받으면서 너무 자존심 상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매달 그걸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죠. 수당 하나 뭐 하나. 그게 한꺼번에 보이지 않고 한 달마다 풀린 게 보여요. 매달 한 번도 인사과에 드나들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달이 상무한테 말하고, 상무는 또 인사과에게 말하고, 너무 지긋지긋하고 너무 치사하죠. (A씨)

돈 문제로 따지는 것이 치사하게 느껴지고, 이러한 것을 일일이 매달 따진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지긋지긋한'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저항과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 여성들은 임금 체계를 구조적인 한계로 받아들이며 체념하게 된다.

승진 장벽

소위 '비전'은 대졸 사무직 여성 노동자가 노동을 계속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앞날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노동에 뛰어들었으며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다.

비전이 없다는 게 회사 생활의 의욕을 꺾는 거죠. 승진이 비전이죠. 뭐, 회사 생활에서 자기가 일한 것을 보답으로 받는 것은 월급하고 승진밖에 없어요.

24) 노조 내에서의 성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혜성, "사무직 노동조합운동과 성별 위계구조"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1993)와 최성애, "여성 독자노조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일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1994) 참조.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다른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사무직이 박봉에도 버티는 것은 높은 지위,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 대한 욕구 때문이죠. (A씨)

이들의 노동 동기가 단순히 돈만 벌겠다는 것이 아닌 이상 결국은 승진 가능성이 핵심 문제인 것이다. 한 대졸 여성 노동자는 고졸 여성 노동자와는 달리 승진 승급의 길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것만은 아니고 능력도 인정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승진 과정에서 '칸칸이 한계'가 있다는 말로 집약될 수 있다. 내부 노동 시장이 여성에게는 발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²⁵⁾ 이들의 기를 가장 먼저 꺾어 놓는 것은 선례(先例)가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회사가 설립된 지 벌써 20 몇년이 됐는데도 선례가 없었어요. 그 많은 여직원 가운데 한 명도, 단 한 명도, 그 중에 분명히 능력 있는 여직원도 있었을 거예요. 한 명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어요. 그건 결국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그런 의견이 좌우한다는 걸 말해 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구요. (C씨)

제도적인 제한은 대졸 여성 노동자를 노동 시장에서 축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선례가 없다는 사회적 관습들은 제도적 한계 못지 않은 실질적 힘을 가진 장벽이 된다. 여성들은 주변에서 듣는 사례를 통해 아무리 뛰어난 여성도 '인정을 받는다고 다 승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결혼, 임신한 여성에게 유언·무언으로 가해지는 압력이나 회사의 불

25) 1995년 상반기 현재 국내 40대 그룹사의 여대생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그룹의 과장급 이상 여성 간부 비율은 1.05퍼센트. 또 이들 그룹의 총 여성 임원 숫자는 모두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업의 별이라 불리는 임원급 가운데 여성이 있는 경우는 태평양 1명, 삼성 2명, 금호 1명, 동양 1명, 한라 1명 등 5개사에만 포진하고 있을 뿐 나머지 35개 그룹사에는 여성 임원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간 『인턴』, 1995).

문물은 여성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것이다.²⁶⁾ 이런 관례상의 난관들을 간접적으로 목격하면서 여성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다니고 싶진 않다'는 생각을 하여 알아서 스스로 포기한다.

또 다른 원인은 대졸 여성들이 간파한 여성 관리자로서의 한계이다. 여성들이 관리직에 종사할 경우 대부분 지휘 계통보다는 힘이 없고 낮은 봉급을 받는 참모직을 담당하게 된다. 여성이 남성 지배적인 조직에서 관리직에 종사할 경우 거의 권위를 갖지 못하며, 진급 대열에 끼지 못하면서도 조직에서 요구되는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여성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나름대로 개별적인 저항을 시도해 온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

조직이란 건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싫으면 나가야 해요.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지 절을 옮길 수 없거든요.…… 여자는…… 관습의 벽이 너무 높고 관례가 없어요. (A씨)

이 말은 인터뷰를 한 거의 모든 여성들이 한 말이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조직의 완고함을 느끼며 '여자들은 승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고, 이는 노동에 대한 의욕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영향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먼저 비제도적 성차별이 대기업에 비해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소기업에 근무하는 B씨의 경우는 선례가 없다는 사실이 곧 제도적인 한계나 마찬가지로 지이다. 사규에 성차별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녀는 결혼한 여성을 소장이 '들들 뉘아 내쫓는' 것을 보아왔다.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 그녀는 애초에 포기하고 즐겁게 적응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26) 결혼이나 임신한 여성의 경우 상사가 '사무실 분위기를 해치고 보기도 흉하고 두 달 동안이나 그 자리를 비워 둘 수 없다'고 압력을 주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노골적인 모욕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진급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처음에는 진급할 욕심을 가졌었는데……. (다른 대화 중에 아주 즐겁다는 듯한 어조로) 나는 진급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진급 안 해도 좋으니까 월급 많이 주고, 편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B씨)

그녀는 승진에 대해 진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며, 이를 자신의 선택으로 여기고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 제도적 성차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제도적 성차별, 즉 관습과 이데올로기, 선례가 없는 상황, 차별에 대한 직·간접 경험도 제도와 비슷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승진이 좌절됨으로써 생기는 의욕 좌절은 개인적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여직원이 좌절을 겪음에 따라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고 결국 퇴직하는 모습은, 여성은 직업 의식이 없고 결혼 후 퇴직하기 마련이라는 기존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여성들에게 '그 정도'의 대우만 해 주면 된다는 인식을 형성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를 정당화한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평가와 대우가 악순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직업 의식에 대한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남자들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언젠가는 보상이 되죠. 나중에 상사가 그 사람을 알아 준다거나, 혹은 승진이 된다거나 호봉이 올라간다거나. 여직원은 평생 그냥 남의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끝나는 거라는 거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상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모르죠, 이렇게 해서 내가 승진을 할 수 있다가나 했으면 정말 이를 악물고 혹시 참았을지도 모르겠어요. (C씨)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대졸 사무직 여성이 결코 직업 의식이 없어서 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업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런 보상과 전망 없이는 직업 의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에 대

한 의욕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때 강화되며, 이는 주로 승진에 대한 전망과 관계된다. 그러나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은 '어차피 더 나은 대우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왜 열심히 하나 싶은 생각'으로 이어지고, 노동 의욕이 저하되며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된다. 또한 이미 노동에 대해 과거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결국 점점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관둬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여성 노동자들은 차별 임금을 받고 있으며, 노동 과정에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 노동자가 직장에 아무런 전망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거기에 더 이상 노동 의욕이 남아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는 여성의 노동 경험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남성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태도와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반면, 좀더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회사에 다니는 이들은 비교적 희망을 걸고 노력해 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A씨는 "승부를 하기로 했어.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최대한 노력해 보겠어"라며 '순간 순간 승부' 하는 자세를 가지고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부정적이고 불투명한 전망에 자신의 미래를 모두 바치려고 하겠는가. 대졸 여성 노동자들은 구조적인 차원의 한계를 간파하고 끊임없이 다른 길을 모색하려 한다. 그들이 찾는 새로운 길이 무엇이 될지는 노동 경험을 더 추적해 가야 알 수 있을 것이다.²⁷⁾

현실 적응하기

대졸 사무직 여성 노동자는 사회 현실에 어떤 식으로든 적응해 나간다. 이는 여성들이 사회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따라야만 하는 강제적인 적

27) 이와 같은 현상은 아직까지도 현재의 대졸 여성 노동자들이 선구자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생기는 측면이다. 긍정적인 '선례'들이 생겨나고, 노조의 여성부 활동이 활성화되며 경제 구조와 직장 문화에 변화가 일어날 경우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아마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용 과정이다. 이 결과 이들은 초기에 노동에 대해 지녔던 태도와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저항 양식의 변화: 순응 혹은 이탈

대졸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 과정에서 수동적인 존재로 있지 않고 끊임없이 저항을 시도한다. 그러나 개별 노동자가 행하는 저항은 분명한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들의 저항 양식은 변하게 된다. 또한 사안별, 개인 성격, 조직의 특성에 따라 저항 양식과 그 결과가 다르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몇 번의 좌절을 통해 '체념하고 순응하는 형식'이다. 저항의 좌절 경험을 통해 여성 노동자는 퇴사를 극단적인 저항 방법의 하나로 파악하며, 그 전까지는 침묵 속에 침잠하게 된다.

나는 여자라고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 주로 복종하면서 해 왔어요. 반발하고 그런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아이 내가 참아야지.' 불만 있으면 나날 때 얘기하지. 기분 나빴다. 그리고 난 이래서 못 다니겠다'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요. (B씨)

그 결과 여성 노동자에게 노동 과정은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고 참아야 할 뿐인 고통의 과정으로 인식된다. 이는 노동 경험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들로 하여금 노동으로부터의 탈출²⁸⁾을 원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상대적으로 좀더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대기업의 여성들은 사안에 따라서는 '더 적극적인 저항'이 가능하다. 예컨대 단도 직입적으로 '나 죽

28) 허쉬먼(Albert O. Hirshman)은 일차적으로 경제학을 대상 영역으로 해서 탈출(exit)과 저항(voice)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탈출'의 개념은 일차적으로는 고객 이 어떤 회사의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불만의 표시로 그 물건을 사지 않는 다거나 조직원이 그 조직을 이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정치경제학 등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 사용할 수 있다(A. Hirshman, *Exit, Voices, and Loyal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pp. 3-4). 이 장에서는 '탈출'의 개념을 확장하여 노동자가 조직에 충성(loyalty)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고 스스로 조직에서 나가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어도 그 일 못하겠다. 내가 그만뒀으면 뭘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공법(正攻法)은 조직에서 눈 밖에 나기 쉽고, 개인적인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조직 전체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커다란 불만은 남겨 있는 상태에서 작은 불만을 터뜨릴 뿐이지. 내가 직급이 차별 있다고 매일 외치고 다니면서 나 그거에 불만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전체적으로 인사 문제인데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 받아 하고, 여사원들을 모아서, 뭐, 데모를 하느니 마느니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불만은, 조직 전체에 대한 불만은 남아 있는 거고, 내가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한계는 내 말을 최소한 감정적으로는 아니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 한해서예요. 나이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이랑 부딪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부장이나 실장에게 대놓고 그렇게 말은 못하지요. (A씨)

사실 그녀는 불투명한 전망과 소외된 노동 경험으로 인해 그럴 의욕도 없다. "이제 그렇게 지난 동안 싸운 것만 해도 아주 지긋지긋하고 힘이 빠졌어. 달라진 것은 별로 없고, 거대한 조직을 깨뜨리기엔……"과 같은 좌절만 진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저항의 또 다른 형태로 끊임없는 저항이 감정적인 갈등을 야기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순간적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에 대해 오래 저항한 끝에 최대, 최후의 저항 표시로 '퇴직'이라는 카드를 내놓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성차별 등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굴욕적인 순응과 타협을 끝내 거부하기 위해 내놓는 마지막 카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여성들의 변화된 모습은 '여직원으로 길들여지기'의 막바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경험에 대한 평가 변화

여성들이 초기에 지녔던 노동에 대한 의욕과 기대는 매우 컸다. "처음 한

일 년간은 일도 재미있고, 사람들도 좋아서 회사를 위해서는 진짜 뭐든지 몸과 마음을 바쳤죠"와 같은 의욕은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변한다.

맨 처음에 의욕을 갖고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꿈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오는 좌절감 같은 것도 컸고. 나 처음에 너무너무 희망에 차고 그랬는데 끝이 안 좋다는 게 슬퍼요. 지금 난 완벽하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C씨)

일 그것만 딱 떼어서 생각하면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도 있고, 희망 없는 사회 생활 때문에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여자에게 사회 생활이 좋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A씨)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왔을까? 첫째, 기대가 사라진 데서 오는 좌절감이다. 남성들 또한 자본주의 체제의 승진 사다리 속에서 좌절을 겪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같은 좌절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기제를 성차별적인 것으로 경험하므로, 자신이 겪은 '비전 없음'의 좌절감을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것으로 해석한다. 사실 여성들은 그 열등한 위치로 인해 남성들이 겪는 것과 같은 경쟁에서의 좌절감은 느낄 겨를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²⁹⁾

노동 경험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두 번째 요소는 소외된 노동 과정과 착취에 대한 회의이다. 대졸 사무직 여성 노동자는 노동 경험을 통해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의 소외된 본질을 간파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신의 착취와 소외의 경험 중 상당 부분이 성차별과 관련된 것들이므로 노동의 본질을 성차별적인 것으로 해석하며 예민하게 반응한다.³⁰⁾

29) 남성들은 직장에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불안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특별히 무능력하지만 않으면' 직장 조직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고 정규적인 승진 코스를 밟을 수 있다(김효선, "회사원 생활을 통해 본 한국 남성의 적응과 소외,"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1987, p.48). 그러나 대졸 여성들은 정반대로 '특출나지 않은 한' 단순히 열심히 일함으로는 어느 한계 이상으로 승진이 어렵다.

세 번째 요소는 노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신의 변화이다. 예를 들어 회사 다니면서 성격이 많이 변했다고 하며 '사람 상대하다 보면' '약지 않으면 안 된다. 착하면 바보 소리 듣는다'는 것 때문에 이상해진다'라든가 '화나더라도 뒷사람 앞에서는 웃어야 되니까'라며 사람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는 말들이다. 이러한 '직장 생활' 결과로 생긴 성격 변화에 대해 대졸 여성은 위선적이 되고 순수함을 잃었다며 부정적 평가를 한다. 여성 노동자는 어느새 여직원으로 길들여지는 자신의 모습과 살아남기 위해서 비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나아가 추상적인 차원에서 '여성 노동'의 의의에 대해 과거와는 다르게 생각하게 된다.

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안하면 뭐가 모자라는 여자로 생각했죠. 배워서 뭐해요? 집에서 놀면 뭐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배운 걸 다 활용할 수 없다면, 결국 단순 사무직에 머무를 거라면, 그런 대졸 여사원도 무척 많아요. 그러면서 회사 다니는 게 자기 능력 발휘예요? 그리고 여성 해방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 안해요. 차라리 자기가 배운 것을 온전히 갖고, 자기는 그래도 '잘난 여자'다. 나는 좀 편찮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있는 게 낫죠. 그런 쓸데가리 없는 일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난 참 안 풀렸다.' 이런 생각하는 거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A씨)

이들은 노동 경험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평생 노동과 경제적인 독립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노동 경험을 통한 '현실 파악'은 평생 노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로 변한다. 이것은 노동 경험을 통해 사회적 성차별 구조와 소외된 노동을 간파한 데서 비롯된다.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조직적 힘이 없이 무기력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개별 여성 노동자에게 노동은 더 이상 '여성 해방'을 가능케 하는 무엇이 아니며, 오히려 억압과

30) 남성 역시 소외를 겪지만 이는 승진을 위한 소외이기에 참는다. 또한 소외된 관계에 익숙해져 있기도 하다(김효선, 앞의 책, pp. 47-64). 그러나 여성은 주변적 존재로서의 소외감이 더 큰 원인이다.

소외의 경험으로 인식되어 여성의 사회적 노동 참여의 의미 자체를 부인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 설계를 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회사에 적응하고 앞날을 개척하려고 하는 여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³¹⁾

이러한 인식 변화는 애초에 여성들의 직업 의식이 부족하며 노동을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기존 논의와는 전혀 다르다. 폴러트(Anna Pollert)는 여성 노동자를 적극적인 존재로 보겠다고 하면서, 여성들이 결혼을 대안적 노동으로 인식하고 노동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주된 이유를 학창 시절 외부로부터 습득한 결혼에 대한 신화와 여성다움에 관한 이데올로기로 보았다.³²⁾ 결국 폴러트는 여성 노동자를 한 주체로서 보고자 한다는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여성성을 습득하여 그대로 내면화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여성 노동자를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학교에서 형성된 여성적 자아 인식을 강조함으로써 여성들이 노동 경험을 통해 지니는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여성들이 처음부터 내면화한 여성성으로 인해 노동을 일시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최소한 대졸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그렇다. 어떤 대졸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을 '여가 선택'의 차원으로 여기며 경제적 독립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여성성을 내면화하여 노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동 경험을 통한 저항과 좌절의 혹독한 경험 속에서 강제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이러한 변화를 스스로는 '깨달음' 또는 '획득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31) 전직이나 새출발에 대한 욕구는 직장인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갖는 욕구지만, 특히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일을 찾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싶어하는 것은 여태까지 안정되게 앞만 바라보며 살아온 여성들에게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직이든 '현실 초월'이든 이러한 희망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직의 문제는 우선 이들을 받아 줄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도 이들의 나이와 결혼에 대한 주변의 압력으로 위위 보이지 않는다.

32) A. Pollert, 앞의 책 참조.

위험한 기대: 연애와 결혼

대졸 사무직 미혼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 경험을 통해 노동에 부여했던 의미가 축소되는 대신 무엇인가 다른, 자신을 실현할 방법을 찾는다. 이제 이들에게 연애와 결혼은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³³⁾ 대졸 여성 노동자가 초기에 노동에 부여했던 의미는 변질됐고,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며, 그것은 노동과는 별개의 것이다. 실제로는 노동 경험이야말로 시간적 비중이나 의미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노동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여긴다. 자신을 실현하는 것은 노동이 아닌 회사 밖 생활, 곧 여가이고,³⁴⁾ 그 중에서도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친구와의 관계들이다. 이 때 대화의 주된 내용은 '남자 문제'로서, 이를 통해 연애와 결혼을 당면시키는 분위기에 함께 휩쓸리게 된다.

먼저 연애³⁵⁾에 대한 여성 노동자의 태도를 보자.

33) 월비(Sylvia Walby)는 노동에서의 가부장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이성애의 제도화가 중요하다며, 이것이 여성을 가정으로 묶는 중요 요인이라고 하였다(S. Walby, *Patriarchy at Work: Patriarchal and Capitalist Relations in Employment*, Cambridge: Polity Press, 1986). 그러나 그는 두 요인 간의 관계를 밝히기보다는 단순히 요소로서 언급하는 데서 그치고 있다. 폴러트(A. Pollert, 앞의 책)와 같은 다른 경험 연구들은 낭만적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이 역시 노동 과정과 연결시키기보다는 분리되어 있는 현상으로만 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노동 과정 속에서 연애와 결혼이란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4) 여가에 대한 박우성의 연구는 남성 노동자는 일 중심형, 여성 노동자는 여가 중심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박우성, "산업 사회에 있어서의 집단 여가의 선행에 관한 연구," 연세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1983). 그러나 왜 여성이 여가를 중시하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 단순한 남녀의 기질적 차이로 제시되고 있다. 앞에서 밝힌 여성 노동의 성질과 여가의 기능을 고려할 때 여성이 여가를 중시하게 되는 기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남성 역시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보이지만 부여하는 의미와 비중이 여성과는 다르다.

35)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연애'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여성 노동자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구체적인 남녀의 관계, 즉 '만남', '전화', '기다림'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포괄적인 뜻을 지닌 '사랑'이라는 용어보다 어느 정도는 결혼을 염두에 두며 사귀는 행위를 포함하는 '연애'가 적합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지금 생활에서 주(主)는 직장 생활이죠, 시간을 제일 많이 뺏기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회사 생활은 부(副)죠, 부! 다른 것 생각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정신적인 주(主)는 내 인생이죠.....연애가 지금은 삶의 낙이죠. 스트레스가 풀려요. 연애가 현재 생활에서 주(主)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남자가 없으면 아마 다른 사람 좋아하려고 노력했겠죠. 스트레스 해소에 진짜 좋아요. (B씨)

연애는 소외된 노동 속에서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중요한 장치이다. 또한 "사랑하는 순간만은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 같다"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여성 노동자는 연애를 소외된 노동 과정에 적응하기 위해 상실한 자아와 인간다움을 회복시켜 주는 장(場)으로 여긴다. 결혼 또한 입사 초기와는 달리 그 중요성과 의미가 높게 평가된다.

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안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이제는 결혼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떠나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거 있죠. 왜, 너무도 안일하게 돼 버린 거예요. (B씨)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의 탈락과, 이어지는 결혼은 사실상 강제적인 추출 과정이다. 그러나 사회 활동과 결혼 생활을 병행할 것이라고 굳건히 마음먹고 노력해 온,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진보적' 여성이었던 이들이 어느새 결혼을 '도피처'로 여기며 하나의 '선택'으로 여기고 있다. 심지어 도피할 곳이 있는 여성은 남성보다 더 행복하다는 생각까지 하는 '보수적인' 여성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역전'은 노동, 경험과 그를 통한 사회에 대한 부분적 간파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대학 때는 집안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했는데 회사 다니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일하는 여성의 지위라는 게 몇몇 뛰어난 여성들, 백도 있고 실력도 있는 여성들을 빼놓고는 (강조하면서) 굉장하! 하잖거든요. 희망도 없는 직장에서 평생 일하느니 차라리 자기 가정 환경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집에서 편안히 애들 잘 키우고, 남편한테 봉사하고, 자기네 집 화목하면 그것도 굉장한 성취 아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죽여 가면서까지 일한다는 것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씨)

이러한 간파는 '집안 일은 썩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졸 여성, 노동자로 하여금 "집에서 편안히 애들 잘 키우고, 남편한테 봉사하고, 자기네 집 화목한 것도 굉장한 성취"이며 "굉장히 가치 있는 재생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일차적 원인이다. 그런데 여성 노동 현실에 대한 간파가 어떻게 대졸 여성 노동자로 하여금 또 다른 여성 억압과 소외가 존재하는 장(場)인 결혼과 가사 노동을 매력적인 대안으로 여기도록 이끌어 가는가? 또한 소외된 노동에 대한 분노는 어떻게 해서 결혼, 좀더 정확히는 중산층 전업 주부식 삶에 대한 '선택'으로 바뀌는가?

윌리스(Paul Willis)는 간파의 순수한 논리는 지면 위에서만 설명될 수 있을 뿐 실제로는 왜곡과 제약, 그리고 현혹하는 힘이 동시적으로 작용하여 부분적 논리로 분해된다고 지적한다.³⁶⁾ 실제로 대졸 여성 노동자의 사회 현실에 대한 간파는 여러 가지 왜곡과 제약, 유혹적인 요소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분해되고 만다. 결혼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환상도 그 요소 중 하나이다. '결혼을 했다면 지금보다 나을 것 같아'라는 결혼에 대한 환상은 여성에게 내재화된 면도 있지만, 이보다는 노동 시장에서의 열악한 자신의 지위를 간파하고 결혼에 기대를 건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또한 소외된 노동 경험과 비교할 때 결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런 점에서 이를 단순히 내면화한 결혼에 대한 환상만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기대'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막막한 현실로부터의 돌파구인 것이다.

또 다른 제약은 역설적으로, 가사 노동에 대한 간파이다. '노동은 소외된 것'이라는 간파의 의의는 사회적 노동과 가사 노동이 똑같다는 판단으로 이

어진다. 어차피 사회적 노동이 소외된 것이라면, 오히려 가정은 적어도 사회처럼 소외되고 착취받는 곳이 아닌 그나마 인간적인 곳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대졸 여성 노동자는 현재의 사회 문화 속에서 결혼 후 자신이 가사 노동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이 결국 '혼자서 1인 2역, 아니 3역'을 해야 되는 부담 증가로 연결됨을 간파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는 이들이 가사 노동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 간파가 된다.³⁷⁾

이렇듯 대졸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이 결혼을 선택하는 것을 단순히 이데올로기의 내면화로만 볼 수 없다. 주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결혼이란 여성의 노동 현실과 이중 노동 부담에 대한 간파와 더불어 현실적 계산이 뒷받침된 선택으로, 삶의 전략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졸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적 노동 현실에 대한 간파와 저항은 항상 회의를 동반하며, 아주 가까스로 현재 상태에 적응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들은 현실을 꿰뚫어보고 있으며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믿고 있다.³⁸⁾ 이는 여성들이 끊임없이 결혼에 대해 기대를 하고, 노동에서 탈출하는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즉, 여성 스스로 그것을 뭔가 유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졸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의 간파와 그들이 어떻게 내적인 '제약'을 통과해서 '결혼'에 대한 긍정이라는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는지를 보았다. 이러한 과정의 전반에 걸쳐 사회적 이데올로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³⁹⁾

37) 가사 노동 역시 고립된 착취적이며 소외된 노동이다. 또한 가사 노동은 결코 편안하거나 쉬운 노동이 아니다. 결혼에 대한 한 경험 연구를 보면 가사 노동만을 하는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외로움에 시달려 분노와 같은 정서를 느끼게 된다고 한다(이화여대 여성학과 여성학 연구모임, "끝나지 않은 이야기", 미간행, 1992, p.172).

38) P. Willis, 앞의 책, p. 215.

39) 여성과 관련된 결혼 이데올로기,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여성다움 이데올로기 등은 직접·간접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과 결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대졸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 자신이 처음에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거부

36) P. Willis, 앞의 책, p.215.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이 결혼에 대해 '순진무구한' 환상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대다수 여자들에게 결혼이 도피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회사 생활이 힘들고 지겨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확실한 도피처는 못 되죠. 문제도 많고'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보다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데에는 결혼을 당연시하는 이데올로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데올로기의 가장 중요한 일반적 기능 중 하나는 불확실하고 취약한 해결과 결과들을 자연적인 것으로 바꾸는 데 있다.⁴⁰⁾ 결혼에 대한 대졸 여성 노동자의 태도를 형성하는 또 하나는 '생계 책임은 여성의 몫이 아니다'라는 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 사회의 인식은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과는 달리 결혼을 도피처로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점이다.⁴¹⁾

이상에서 결혼과 더불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이 실제로는 '축출' 과정인 것을 대졸 여성 노동자 자신은 '도피처'로 여기며, 대안으로 인식하여 '선택' 하는 과정을 보았다.⁴²⁾ 이처럼 '반박-저항-좌절-순응'이라는 일련

하였다. 대개 대졸 여성 노동자들은 이러한 직접적인 압력, 부모의 권유 등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저항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란 외부에서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식으로만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전달 방식이 직접적일수록 반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부의 강압이 아닌 '내가, 혹은 우리가 생각한' 것이라고 믿는 경우 이데올로기는 더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40) P. Willis, 앞의 책, p. 237.

41) 남성 역시 소외된 노동을 하기는 마찬가지이고, 그들에게 노동이 즐거운 경험만은 아닌 것 또한 사실이다. 한 남성 사무직 노동자는 자신이 계속 노동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는 책임감(생계 책임)이고, 둘째는 비전'이라고 말한다. 생계 책임은 남성들로 하여금 아예 다른 길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동시에 비전은 그들을 노동으로 유인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 이는 여성 노동자와의 분명한 차이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효선, 앞의 책 참조.

42) 이상의 논의는 대졸의 미혼 여성 노동자로서 경제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사제의 특수성을 지닌다.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혼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계속 일하고 싶어도 육아와 모성 보호의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여성의 직업 의식이 낮다는 편견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의 과정을 통해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이 지녀 왔던 인식들을 재수정하게 되고, 그 속에서 여성에 대한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여성 노동자의 노동 경험은 퇴직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른 여성에 대한 성차별 대우를 정당화하며 사회적으로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맺는 말

우리 사회에는 '여성들은 직업 의식이 없다'든가 '여성은 직장을 쉽게 그만둔다'라는 말이 하나의 진실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결혼하면서 노동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직업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편견에 근거한 단순한 논리이다. 이러한 여성의 행동 뒤에는 노동 경험에 얽힌 다양한 변화가 있다.

대졸 여성들은 사회적 노동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며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여한다. 이들은 대학 시절 보수적 여성관에 반발하고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평생 노동과 평등 노동의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고등 교육에서 배운 '진보적' 여성상은 사회적 노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이 여성 노동자의 특성으로 흔히 지적되는 여성다움이나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수동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현 사회의 노동 현실은 소외와 착취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좌절을 안겨 준다. 특히 이들에게 좌절을 가져오는 직접적 원인은 성차별적인 노동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대졸 사무직 여성 노동자의 노동 경험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는 성차별이라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여태까지 간과된 비공식 업무와 '사소한 차별,' 승진 장벽과 같은 문제는 여성들의 노동 경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대졸 여성들의 노동 참여 동기 가운데 하나는 일을 통한 독립성과 주체성

의 확보이다. 그러나 실제 노동 경험은 주체성의 확보나 자아 성취의 경험 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성'을 끊임없이 강요받으며,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성차별적인 사회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자아 소외의 과정인 것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노동 현실에 대한 '간파'를 통해 여성들은 가사 노동과 사회적 노동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스스로 결혼을 통한 노동으로부터의 탈출을 원하게 된다. 결혼과 더불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노동 시장으로부터의 '축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자 자신은 결혼을 '도피처'로 여기며 소외된 노동으로부터의 돌파구로 인식하고 삶의 전략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노동 현실에 대한 간파와 이데올로기가 제약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동에 대한 여성 노동자들의 인식 변화는 여성들이 처음부터 노동을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가 여성성을 내면화하고 있다고 하는 기존 논의와는 다르다. 또한 직업 의식의 부족이라는 평가는 더욱 적절치 않다. 이러한 여성의 태도 변화는 어디까지나 여성들의 노동 경험을 통한 저항과 좌절의 경험 속에서 강제되며 변화된 것이다. 이것은 최소한 어려운 취업 난관을 뚫은 대졸 여성 노동자들에게서는 그러하다. 소위 '직업 의식'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을 때만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노동 현실에서의 각종 성차별은 여성들에게 기대할 만한 보상이나 전망을 주지 못하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간파를 통해 노동은 더 이상 매력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이 연구는 이제는 여성 고용에 대한 논의가 그 양(量)적 확대 못지 않게 노동의 질(質)의 확보에도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존의 논의는 여성에게 노동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주로 대졸 여성의 취업난과 고용 창출 부분에 관심을 쏟아왔다. 그러나 일단 취업한 대졸 여성들의 경우 아무리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이라도 성차별에 대해서 개별적인 저항에 그치므로 좌절하게 되며, 노동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고용 창출이 진정한 의의를 지니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용 창출에

만 그쳐서는 안 되며 대졸 사무직 여성들의 소외의 주요 원인인 노동 현장에서의 성차별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여성 노동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노동에서의 소외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노동이 인간의 삶에 유의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집단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집단적 활동이라 함은 대개 노동조합의 형태를 의미하지만 단순히 노동조합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연구 대상 중에 회사 내에 노동조합과 여직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례도 있었지만 그것이 대졸 사무직 여성의 경험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는 조직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성격이 민주적이며 성 평등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업체 내의 대졸 여성들의 독특한 위치가 높은 불만족을 야기하며 문제 의식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의 원인인 성차별에 관심을 쏟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 구성이 시도된다면 높은 의식과 조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노동조합 내에서 여성 조직 활동이 활성화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레마을 여성들과 '갯벌' 새만금 그곳엔 여성들이 있다 -1

<여성주의 저널 일다> 윤박경

<새만금 간척개발과 관련된 사안들은 최근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였다. 그러나 새만금 반대 삼보일배 행렬과 서울행정법원의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 등이 부각되는 동안에도 정작 새만금 지역에서 '갯벌'과 함께 살아왔고, 간척개발에 몸을 부딪혀 저항해 온 여성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 없다. 새만금 지역 여성들의 삶과 투쟁을 드러내는 것은 기존 환경운동과 개발-보전 논쟁이 갖는 남성중심적 시각을 뛰어넘어 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과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만금 지역 여성들의 갯살림과 갯벌이 여성에게 갖는 의미, 새만금 간척사업이 생태계와 여성들의 갯살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여성들의 저항의 과정 등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됐던 부안 '그레'마을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갯것 뜯어먹고 산다'거나 '갯살림'이라고 흔히 표현한다. '갯살림'이란 용어는 삶의 물질적 토대로서의 바다와 갯벌이란 구체적인 장소와, 생명이 태어나고 양육되고 성장하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이뤄져야 할 경제적 활동으로서의 '살림'이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갯살림'은 새만금 지역 주민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접근을 가능케 한다. 또한 지금까지 삶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여성들의 경험을 부각시키는 데 유용하다.

갯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여성들의 삶은 바다의 생태적 순환주기인 '물 때'에 따른다. 갯벌에 나가 조개를 채취하는 '그레'마을 여성들에게 '물 때'는 자신들의 노동공간인 '갯벌'의 드러남과 사라짐을 뜻하며, 갯벌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레'마을에서는 각 가정마다 물 때(조석시간)가 적힌 달력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촌 지역에서 '물 때'를 알려주는 달력은 여성들의 삶과 노동을 구성하는 원리이자, 삶의 일기다. 어촌지역의 삶이자 자연환경의 생태주기인 '물 때'는 갯벌에서의 여성노동은 물론, 가정 내 여성들의 생명 재생산 활동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여성노동력 위주의 '갯살림'

어촌지역의 삶과 일은 흔히 '어촌=어업=바다=어부'라는 등식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등식은 어촌지역의 남성의 삶과 일, 그리고 생산공간을 상징화하는 것으로, 공동체 내 여성들의 노동과 기여를 비가시화 시키곤 한



Photo by 이진균

다.

'그레'마을에서 여성들은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고, 남성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다. 전통 어촌에서는 '배를 지켜주는 수호신인 뱃서남이 질투한다'거나, '여자가 배에 오르면 부정 탄다'고 하여 여성을 회피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런 문화적 금기는 어촌지역의 여성과 남성의 일과 역할을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때는 여그가 섬이라 장사가 안들어 와. 갯일 해갔고 얼른 집에 와서 아들(아이들) 밥 챙겨주고는 그 길로 부안으로 나가. 저그 중리에 다리 있잖아. 거그가 옛날에는 나무여. 거그서 배타고 갯포망(갯골) 건너서 창북리로 가지. 곧 물이 들어온 게 빨리 가야 허. 갯바닥이 미끄러운 게 밭에다 이렇게 새내끼(새끼줄)로 감고, 고개 젓 이고 부안에 가면 밭보리 한 되나 받아가고 저녁 늦게나 집에 와." (이복순, 78세)

'그레'마을 여성들은 가사노동 및 양육은 물론 갯일과 밭일, 뽕감 구하기 그리고 고기와 조개를 팔아 보리와 쌀을 사오는 교역까지 담당해 왔다. 이와 달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마을로 돌아온 남성들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남성들의 고기잡이는 각종 위험과 죽음의 공포를 자신들의 근육과 감각으로 이겨내야 하는 일이다. 이런 작업환경에서 오는 힘들음 남성들은 육지에 와서 술과 노름 등으로 풀어냈다.

"남자들은 술 먹고 허문은 자기가 벌어 갖고 자기 똥구멍도 처리 못 허. 술 먹고 노름하는 사람들은. (할아버지는?) 아휴!...말도 못허. 술 아조 약질이었어. 약질. 말도 못허. 말도 그냥 놀고 놀아. 술 먹고 집의 와서 자고. 우리는 밤이두 생합 잡으려 덩기거든. 물만 있으믄은. 밤에 갔다가 집에 오면은 어쩔 때는 새벽(새벽) 2시까지 되기도 허." (A씨)



Photo by 윤박경

바닷가 남성들의 일상적 삶과 문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가구의 생계와 소득의 일차적 책임을 담당하게 했다. 가정에서 이뤄지는 임신 출산 양육 그리고 가사노동과 같은 생명 재생산활동 역시 여성들의 몫이었다.

"저 갯바닥이 우리 새끼들 8남매 다 키웠어. 아들이(아이들이) 율랑줄랑 애틀(어릴) 때는 방에 놓아 두고는 문꼬리에 순구락 찢어서 갯일 허로 갔어" (이복순, 78세)

뿐만 아니라 그레마을에서 '누구네 집이 제일로 좋게 만들어지는가는 누구네 집 여인이 조개를 제일로 잘 캐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레마을을 지탱하는 데 있어 여성들의 일과 수입은 매우 중요한 경제활동이었

다.

이처럼 그레마을 공동체내에서 여성들은 생산자이자 재생산자로서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주생활자로서 살아왔다. 그레마을 여성들은 가정은 물론, 마을 공동체 그리고 인근시장과 농촌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활동했으며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 '갯살림'을 유지한 주요 원동력이었다.

여성의 노동과 갯벌의 관계맺기

"우리가 벌면은 한 달이면 사리가 두 사리가 들었거든. 많이 덩기면은 (한 사리에) 11일, 12일 이렇게 덩겨. 그러면은 우리가 전표를 다 따거든. 보통 여자들도 5-60만원, 7-80만원, 8-90만원 다 그렇게 허. 한 달이면 사리가 두번인데, 한번 계산해 봐. 그것도 한 달이면 160만원, 170만원이여. 그렇게 안 따올 때 (새만큼 방조제 공사 이전)에는 한 사리면 200만원까지 벌었어." (B씨)

그레마을 여성들이 생합만 캐서 벌어들이는 한달 평균 소득은 최하 1백만원, 최고 2백만원 이상이며 일년으로 계산하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레마을과 같은 어촌 지역에서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 일찍 바닷일을 그만두는 것에 비해 여성들은 60-70대가 넘어서도 갯일을 지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레마을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갯벌이 있기 때문이다.

"바다 가서 일하는 것은 고되기는 해도 내가 일을 하고 그만만큼의 보수가 있단 말이여. 누가 주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내 힘만큼 넘 눈치 안빠가면서 내가 힘들면 힘든만큼 그냥 하다가 월수 있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내가 어떤 보상이 있는거지. (갯일은) 진짜 최고로 좋은 건데. 나이 제한 없고 학력제한 없고." (C씨)

그레마을 여성들은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며 독립적으로 생활을 해나갔다. 그래서 여성들은 아무리 힘든 갯일이지만 '자신이 번다'는 보람을 느끼며 당당하게 삶을 살아냈던 것이다.

1년 365일 매일 반복되는 갯일은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갯벌과 만나는 과정'이자, 물 때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갯벌의 환경과 생합의 서식 특성을 몸으로 알아가는 '알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채득된 갯벌 생태계에 대한 여성들의 체험적 알은 생산성의 토대가 되며, 삶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으로 노동과정에 다시 반영되는 순환구조를 반복하게 된다.

자연환경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지속시키는 토대는 자연환경이다. 그레마을 여성들에게는 생합을 잡을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원칙은 백합의 어린 새끼는 절대 잡아서 안 된다는

것. "키워야 또 잡어 먹잖아...아예 씨가 말라버리면 생합이 없어져 버려서 안된다"는 한 할머니의 말 속에는, 그레마을 여성들의 뎀손어업에 있어 갯벌 생산성의 유지가 곧 삶의 지속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포돼 있다. 몇몇 여성들은 생합이 자신들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고, 생합이 나오면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 번째 원칙은 '물 때에 순응, 협력하기'다. 여성들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생합 입자가 들어온다"고 표현한다. 생합의 주인은 바다와 갯벌이고 자신들은 잠시 한 물 때 정도를 갯벌과 바다에게 허락을 받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그만쯤의 생합을 캐서 가져갈 수 있을 뿐임을 알고 있다. 이렇듯 바다의 순환주기인 물 때에 따른 여성들의 갯일은 갯벌에서 자라는 생합을 채취, 소비하여 삶을 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생합이 자랄 수 있도록 바다 생태계의 재생과정에 협력하는 방식이라 하겠다.

여성화된 공간, '갯벌'의 의미와 가치

"나? 육남매. 생합 잡아서 다 먹고 살고. 그것(생합) 아니면 죽었지. 여그는 그것 아니면 죽어, 여그가 생금밭이여. 날마다 캐도 또 가른 또 있고, 또 가른 또 있고. (...) 진짜 여그 사람들은 이것이 황금밭이거든." (A씨)

A씨의 말처럼 그레마을에서 갯벌은 다이아몬드 광산보다 더 좋은 '생금밭'으로 통한다.

"내가 그냥 집에서 이것저것 스트레스가 쌓였다가도 바다가론은 그 넓은 바다 가서 마음 두-육 터여 가지고 진짜 생합 잡는 재미로 거기에 몇 시간 진짜 정신 쓰이고, 안 나오면 먼 바다, 먼 산 쳐다보고." (D씨)

그레마을 원주민 여성들에게 갯벌은 '생금밭=목숨'과 같은 삶터로서 힘든 갯살림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희망을 주는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레마을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억압과 고통을 갯벌에서 일하면서 풀어냈다.

"인자 바다는 나의 행복이라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바다 덕이라고. 정말. 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 우리 신앙이 완전히 미쳐버려 갖고 인자 날마다 집의도 안 들어 오고 돈 벌어 갖고 전부 술 먹고 바람피고 노름하고 그냥 미쳐 갖고 다니네. 그러니 나는 어떡짓는가. 잉? 신앙이 집의를 안 들어오니깐 인자 우리 시누들이 나를 볶아 먹어서. 날마다 두들어 맞고 살고. (...) 우리 신앙이 6번을 살림을 망해 먹은 거야. 그래 갖고



©Photo by 윤박경

고 14년 동안을 내가 생과부 생활을 했어. 14년 동안, 그 세월을 그니까 바다 때문에 살았잖아. 바다 나가면 편안해. 너무 편안하고 평화로워. 딱 5 시간 동안, 그때는 진짜로 행복한 시간이야. 밤에 잠잘 때 하고. 그래야 바다 가서 웃고 그러지. 집에서 웃을 수가 있잖아?"(E씨)

힘든 삶을 살아온 그녀에게 갯벌은 '행복의 공간'이었다. 이렇듯 그레마을 여성들에게 갯벌은 '생계 터전이자 마음의 안식처/치유의 장소'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여성들에게 갯벌은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주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공간이었을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을 풀어내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다.

여성들의 생명 감수성



"나는 이 생합 나오는 것이 그렇게 사랑스럽다구. 이상하게 생합만 나오면 그 소리가 전 그렇게 사랑스럽게 들리는 이유가 생명이잖아요? (...) 나는 생합 나오면은 '아휴, 너밖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나와줘서 고맙다.' 내가 그래유."(F씨)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가장인 그녀에게 당당하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의지와 희망을 준 것은 다름아닌 갯벌이었다. 남편의 죽음으로 생계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낀 이 여성에게 갯벌에서 나오는 생합은 단순한 생계 수단만이 아닌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사람을 다 죽이는 거여.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고, 우리 갯벌 그...저기들도 다 죽이는 거고, 여러 목숨이 다 죽어가는 거여. 어쨌든 안 막아야 할텐데..물라, 중단만 시켜 갖고 이대로만 있어도 그냥 밀려가면서 그냥 사람 목숨도 부지하고 우리 좋은 그 조개, 고기들 목숨을 부지하고 서로 의지하고 살 판인디..아휴, 갯벌 없으면 못 살아." (G씨)

갯벌에서 나오는 생합과 더불어 살아왔던 여성어민들의 삶에서 새만금 간척 사업은 생명들을 죽이는 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여성어민들이 뭇 생명들에게 경외감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갯벌과 자신의 삶을 일체시켜 살아왔던 '갯살림'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어민들은 가구의 생계와 소득을 위한 생계유지적 생산활동과 가정에서

의 임신, 출산 및 양육 그리고 가사노동과 같은 생명 재생산 활동을 하며 살아왔다. 갯살림을 유지하기 위한 여성어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은 갯벌과 뭇 생명들에 대한 경외감/존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체득된 생명감수성과 삶에 대한 책임감에 기반해 여성들은 갯벌과 동반자적 관계를 맺어왔다. 여성어민들의 위치에서 보면, 새만금 간척사업은 갯벌과 뭇생명을 죽임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생명(생존)까지 죽이는(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간척사업으로 파괴된 여성들의 갯살림 새만금 그곳엔 여성들이 있다 -2

<여성주의 저널 일다> 윤박경

"쓸모없는 땅이라니..."

간척사업을 간단히 정의하면, 갯벌을 '쓸모없는 땅', '황무지', '저개발', '무가치', '생산성이 낮은' '낙후'된 것으로 여겨 이를 메워 더 높은 생산성과 상업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공장부지나 농경지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정책에 내재된 문제점은 바로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이에 적응하며 살아온 주민들을 선별적으로 희생자와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간척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황무지'로 전락한 갯벌과 함께 가치가 절하되고 비가시화된 집단은 갯벌 자원에 의존해 살아온 가난한 여성들이다.

"아, 지금 생명이 살아 있는데 쓸모없는 땅이라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땅이지. 우리는 그걸 먹고 사니까, 이런 뽕땅을 왜 저렇게 해놓는 거야? 우리가 거서 돈을 벌고 농사지어서 돈을 벌 뜻이 조개 잡아서 돈을 버니까 (농지와) 똑같은 땅이지." (A씨)



그녀에게 있어 갯벌의 의미와 가치는 '조개나 몇 개 캐먹고 마는 죽어있는 황무지'가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갯벌을 '뽕땅' 혹은 '뽕밭'으로 부르며 육지의 농경지와 똑같은 생산공간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갯벌에 자신과 가족의 생계와 생존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삶터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온 것이다.

가부장적 보상체제에서 배제된 여성들

그레마을에서 댜손어업 종사자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이 주로 종사해 온 댜손어업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쟁점들은 보상자격의 확인과 기준, 그리고 보상(액) 수준이었다. '댜손어업보상에 대한 등급별 기준'을 살펴보면

그 기준은 재산정도와 댜손어업의 종사여부, 조업실적 등으로 여기에는 '실제 댜손어업을 하느냐' 보다는 가구단위의 재산정도와 겸업유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자원/재산에 대한 접근기회와 통제권이 성별에 따라 불평등하게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가부장제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토지와 양식장, 배와 같은 개별가구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갖는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레마을 주민 여성들 대부분은 재산정도와는 무관하게 갯벌에 나가 조개를 채취할 뿐만 아니라, 남성을 도와 개맥이 어장과 김 양식 및 가공공장에서 일하거나 농사일을 병행하고 있다.



이런 여성들의 현실에 비춰볼 때, 개별 가구의 재산정도나 겸업유무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차등적으로 보상액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기준에 의해 받은 보상금은 삶의 터전인 갯벌을 포기하면서 받은 액수치고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을 뿐 아니라 여성들이 갯벌에 나가 벌어들이는 1년 소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새만금어업 피해보상은 토지, 배, 양식장면허권과 같은 남성의 소유권과 생산성에 기반한 가부장적 원리에 의해 이뤄졌다. 이 결과 댜손어업에 종사해온 여성들은 보상체계와 의사결정과정 모두에서 체계적으로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여성노동의 가치절하

"근데 여자라는 것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결정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 보상문제로 저기 몇번 데모를 했었고요.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건 포페업(댜손어업)이었고 포페업하면은 남자보다 여자였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여자들이 사실은 끼어야 하는데 모든 거기에서 중심으로 한 것은 남자들이었거든요. 남자들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뭐, 유지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관하고 이렇게 서로 개입이 되어 가지고는 흐지부지해서 그냥 끝낸 거예요. 그냥, 뭐 시멘트 바닥에 다 드러누운 것도 다 여자고, 시위하느라고, (여성들이) 전부다 스크랩하고 쪽 누고, 하여간 용감했어요. 진짜 큰 일 같은 것은 여자들이 하고 (...) 근데 결국 그게 실패했던 게 뭐냐면은, 남자들이 밭이 넓다 보니까 연줄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뭐 압력을 넣었다든가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사그라진 거예요."(B씨)

'먹고 살기 위해 생계보장'을 요구하며 시작된 집회에서 여성들과 일부 남성들은 현실적인 생계보장을 받을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것을 주장했으나 "밭이 넓은", 즉 관공서 공무원들과의 친분과 인맥을 가지고 있던 보상대책위의 남성들은 시위를 잠재울 목적으로 남발한 공무원들의 말에 타협하고 시위를 중단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여성이 배제된 채 보상대책위가 마련한 보상 중재안에는 여성들의 이해와 입장이 반영될 수 없었다. 여성들의 댜손어업은 가정과 그레마을을 지탱하는 주요한 경제활동이었음에도 보상과정에서는 공식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보상과정에서 여성들의 일이 가치절하되고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게 되는 원인은 여성들의 댜손어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와 인식상의 문제점, 그리고 남성 생계 부양자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가족'을 보상 단위로 파악하는 국가의 보상정책이 갖는 가부장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가족을 바라보는 국가가 어린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할 때, 일차적 대상은 남성 가장이 된다. 그 외에 가족들, 특히 여성들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홀히 취급 받게 되는 것이다.

생태계 변화에 따른 여성들의 고통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진행과 함께 그레마을 여성들이 느끼는 일차적 변화는 갯벌 생태계의 변화다. 방조제로 바닷물의 유입속도가 느려지면서 조금 때는 육지 근처의 갯벌까지 바닷물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갯벌은 말라가는 한편 소금기가 올라왔다. 게다가 갯벌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고 시커멓게 색깔이 변해갔다. 그레마을 주민들의 표현대로 "뿔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갯벌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바다와 갯벌 속에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어업 활동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바다가 이미 조업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 버렸어요. 사람은 늘어나고 작업할 수 있는 장소는 좁아지니까 이제는 무쟁밖에 안 되는 거죠."(C씨)

어획량이 감소되면서 주민들은 유일하게 남은 생합(뱀합)과 숭어잡이로 물리게 됐고, 이러한 집중화 현상은 갯벌 생태계의 변화와 어패류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했을 뿐 아니라, 주민들간의 경쟁과 갈등을 초래해 마을 공동체를 분



열시켰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갯벌 생태계가 변화하고 이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되면서 그레마을 주민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생계수단은 바로 생합과 숭어였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그나마 나오던 숭어마저도 급격히 수가 줄면서 배를 가지고 숭어잡이를 하던 남성들도 생합을 잡으러 다니게 되었다. 이제는 갯벌 속의 조개들, 특히 생합이 그레마을에서 유일하게 남은 생계수단인 것이다. 이 결과 그레마을에는 생합을 잡는 '그레꾼'들이 증가하게 됐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그들과 배로 생합을 남획하는 행위가 늘어나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레마을로 생합을 잡던 여성들은 생합을 채취할 수 있는 공간, 생산공간을 침범 당하게 되었다.

그레마을의 어업활동에 있어 생합채취(맨손어업)는 주로 여성들이 해온 일이다. 그레꾼의 증가와 그들 및 배의 조개남획은 여성들의 생산활동을 축소시키고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생산활동(생합채취)은 갯벌 생태계와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발의 팽창에 따라 여성이 생산적 활동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은 대체로 개발 계획이 생계와 생존을 위한 자연자원의 토대를 강탈, 혹은 파괴하는 방식에서 연유한다. 자연의 생산성과 재생가능성이 손상된 만큼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 자연자원에 대한 여성적 관리와 통제를 제거함으로써 여성의 생산성을 파괴한다.

위협당하는 '갯살림'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후 갯벌의 변화에 따른 생합 채취량 감소는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여성들에게 다가온다. 이러한 소득감소는 여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짐을 의미한다. 생합채취로 가구의 생계와 소득을 유지했던 이 여성들에게 생합 채취량의 감소는 갯살림을 갈수록 위협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아휴. 덩크차가 자갈을 실어다 막 철철 부셔.(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하는 거여. 그 붓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 '아휴, 이거 어떡하나...저거..하루하루 죽음이 닥치는데..' 저것 진짜 아찔하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

자갈 붓는 소리에 내 몸이 섬뜩섬뜩 막 몸서리쳐져. 저것 어떡하나..."(D씨)

갯살림을 유지해온 여성들에게 '돌 붓는 소리'는 자신들의 삶터인 갯벌이 닳히는 것을 의미한다. 바닷물이 들어와야 갯벌과 조개들이 살아갈 수 있고, 이들과 더불어 자신들의 삶이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생명을 실어 나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가로막고 서있는 방조제가 죽음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다와 갯벌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여성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구성해왔던 정신적, 물질적 토대였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초래하고 있는 해양 생태계의 파괴는 갯벌의 수산자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온 그레마을 여성들에게 있어 물질적이고 문화적인 생존의 문제다. 갯벌생태계 악화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원주민 여성들은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갯벌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여성들의 '갯벌=생계/삶'에 대한 절박한 태도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갈수록 파괴되어 가는 갯벌을 살려내기 위해 갯벌을 관리하고 지키는 집단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게 된다.

생존을 위한 여성들의 저항 새만금 그곳엔 여성들이 있다 -끝

<여성주의 저널 일다> 윤박경

그레마을 여성들의 갯벌 지키기는 2001년 여름, 하리갯벌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여성들의 '갯벌 지키기'는 외지인 갯벌출입 통제, 그물철거 사건, 그리고 조개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방배출입 통제 등으로 이뤄졌다. 또 2002년 6월에는 생합(백합) 생산자들이 그레마을 생합 소매상을 상대로 '생합가격 보장'을 요구하며 생합의 채취와 판매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기도 했다.

새만금 반대운동과 여성들의 만남

하리마을 여성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갯벌 지키기'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해 갯벌 생태계가 악화되어감으로써 생계위협을 느낀 여성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갯벌 지키기'가 지역 새만금 반대운동과 결합돼 새만금 방조제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확장되었다.



부안의 지역문화운동을 하던 사람들로 구성된 '부안사람들'이 진행했던 지역 새만금 반대운동은 새만금 갯벌과 바다를 살터로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생존권 운동이자, 못 생명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생태운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새만금 갯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갯벌에서 생명을 느끼고 그 생명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성을 이야기한 분도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 갯벌이 어머니의 자궁이다'라고 이야기 한 분도 여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갯벌이 누구의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한다고 말씀하신 분도 여성이에요. 새만금 반대운동의 본질, 뿌리는 이 여성한테 다 나왔어요. (...) 저는 여성어민들이 이 새만금 반대운동의 주역이라고 봐요. 또 진짜 그분들이 바다와 갯벌에 가장 애절하기 때문에." (A씨)

'부안사람들'의 활동가인 A씨는 지역 여성어민들로부터 새만금 반대운동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관점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었다고 밝힌다.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훨씬 쉽게 받아들여요. 남자분들은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면 '야, 저 넓은 땅 그냥 두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군(郡)에서, 여기 면(面)에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면 직원이나 군 직원들을 만나서 술 한잔 하든지 하는 식으로 만날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믿는 거죠. 근데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데 접하는 기회가 없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접 생활을 잡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이죠. 실제로 남자들은 돈을 벌든지, 안 벌든지 사실 그렇게 집안 가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여자들이 이렇게 벌고 그러니까." (B씨)

주민들을 새만금 반대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B씨의 말은 가정이나 마을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이 새만금 사업의 진실에 더 근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새만금 갯벌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생존이 달린 목숨과도 같은 삶터인 셈이다. 이런 갯벌을 지키기 위해서 여성들은 "죽고 살기로 갯벌을 못 막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이해는 '새만금 갯벌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것으로 모아질 수 있었고 그 결과, 여성들과 새만금 반대운동 간 연대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지역 새만금 반대주민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

던 것이다.

여성 주도의 저항



©Photo by 김복선

2002년 4월,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70% 이상 진행된 상태였다. 새만금 방조제를 쌓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토석이 필요했다. 이러한 토석은 새만금 지구내의 산을 깎아 충당하게 되는데 그레마을 주변의 해창산이 바로 토석 채취를 위해 깎여 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안사람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저지하기 위한 '해창산 토석채취를 반대하는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해창산 농성의 주요한 참여집단은 하리마을 여성들이었다. 농성기간 중에 치러진 '새만금 사업 장례식'은 여성들이 주도한 집회였는데, 이는 여성들이 지역의 새만금 반대주민운동에 본격적으로 결합하게 됨으로써 새만금 반대운동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농성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반에 접어들면서 몇몇 여성들은 아예 생계도 포기한 채, 매일같이 농성장으로 달려와 공사를 저지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시공업체 인부들에 맞서 덤프 트럭 앞에 드러눕거나 포크레인 위에 올라타기, 트럭 앞을 가로막기, 공사 진입로 한 가운데에 앉아 있기 등 온몸으로 저항했다.

해창산 농성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태도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은 몸으로 맞서는 여성'과 '뒤통지고 서있는 남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아주머니들이 더 바다 가보면은 그렇게 생겼으니까 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아주머니들은 우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우선 현재 바다 가야 돈을 버는디 바다가 이렇게 후딱 막아 버리면은 못 살게 생기니까 그렇지. 안 그러? 밥을 굶고 갈치던 자식을 못 갈치게 생겼잖아." (C씨)

여성들에게 바다가 막히는 것은 생계터전을 잃어버리는 일이며 가르치던 자식을 못 가르치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와 달리 과거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았던 남성들은 수협에서 제공하는 면세유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이런 남성들은 면세유를 팔아 한 달이면 100만원이 넘는 돈을 벌고 있었다. 해창산 농성장에는 군의 수산과 직원들과 경찰, 새만금 사업단 직원들이 농

성하는 사람들을 사전으로 찍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대부분 농성장에 오지 않으려 하거나 오더라도 '뿔뿔'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남성들 모두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갯벌에서 주로 댜손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남성들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성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해창산 농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그레마을에서 성과 계급에 따른 노동분업의 구조 속에서 재산과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주변화된 집단'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생명을 살리는' 여성

농성중반에 접어들면서 싸움은 더 빈번해졌다. 농성으로 몇 주 동안 공사를 못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던 시공업체 측은 공사를 방해하는 농성단원들을 검부방해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여성들의 분노는 더해만 갔다. 여성들이 느끼는 분노의 근원에는 자신들이 살기 위해 살터를 지키겠다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에 대한 부당함과 억울함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런 부당함과 억울함은 여성들로 하여금 '왜 자신들이 여기에서 공사장의 인부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죽기살기로 해창산을 지키려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계기로 작용했다.



"차 못 다니게 차 길에가 앉아 있었더니 나를 막 쫓고(붙고) 다니길래 차 앞에가 누워버린 거지. (...) 경찰도 안 무섭고 어떤 놈도 안 무섭고. 인자 대통령이 와도 안 무서울 정도야? 왜 막었냐? 나 먹고 살라고 막었다. 니네들은 다 배우고 똑똑하고, 권력 있으니까 돈 벌지만 우리는 뿔 모르고 가서 하루 벌어 하루 살은게 그게 우리의 만족인데 그것마저 뿔어 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진짜 우리 목숨을 끊은 거나 다름 없는 거지. 뿔 살인이 달리 살인이여." (D씨)

D씨는 여성가장으로 많은 빛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다. 황폐화된 시화호를 다녀온 후 새만금 반대운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강한 확신과 정당성을 갖고 있었다.

"나는 보상 얘기를 잘 안 쓰는 게 이 자연을 보호하고 이 생명을 살리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운동을 하잖아. (...) 왜그냐면은 생명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리고, 참 하느님이 정말로 귀한 걸 주셨는데 사람의 힘으로 파괴시키고 이걸 막는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 뜻은 그거여. 나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자." (D씨)

그녀는 해창산 농성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갯벌을 자신의 생명줄로 여기며 살아온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생명은 갯벌과 바다의 생명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갯벌을 지키기 위한 해창산 농성은 '갯벌의 생명을 살리는 운동'인 것이다. 농성 단원들과의 상호작용과 저항 경험의 의미화를 통해 그녀는 자신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러한 생명들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체화하게 된 것이다.

'갯살림'은 지속되어야 한다



여성들의 '갯벌 지키기'와 '해창산 농성'은 갯벌과 자신들의 삶이 맺어온 연결(관계) 고리를 다시 잇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과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자신들의 삶과 갯벌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것은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현재의 개발을 다시 보고, 갯벌을 다시 회복하는 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여성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잔인한 짓"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신들은 갯벌 속에서 자라는 생명들에 의존해 갯벌과 더불어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이 여성들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는 인간 스스로의 목숨을 단축시키는 행위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간척사업은 마을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한다. 새만금 방조제로 갯벌이 막히게 되면 마을 주민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고향을 등지고 사람들이 떠나면 그레마을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들은 생계가 막연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바닷길 이외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이들은 도시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해도 '노숙자'나 '도시 빈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바다와 갯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자신들의 살길이자 마을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일임을 여성들은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토대인 갯벌을 파괴하면서까지 지역이 발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역의 발전은 갯벌을 보존함으로써 가능한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갯벌을 지키고 보존할 때, 자신들의 마을이 발전할 수 있고 전복이 발전되며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여성들은 말한다.

갯벌에 의지해 삶을 살아온 여성들에게 '갯방'은 단순한 생계수단, 돈벌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 새만금만류의 갯벌이 있는데다가 나를 그냥 아주 이주만 시켜줬으면 쓰겠어. (아, 새만금...) 갯벌만류만, 이 갯이 있는 데만류만, 거그다 나를 이주만 시켜주면 나는 더 이상...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현금도 필요 없고... 진짜 나는 그러고 싶어. 그래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바다에서 그냥 조개 잡고 그것 먹고, 나 그러고 살고 싶어. 아무 필요 없어. (...) 진짜 바다하고 같이 뭐 대답은 못 들어도 그냥 바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냥...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러고 살고 싶어서...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속에서 살다가 죽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E씨)

삶의 결박함을 넘어 비장함이 느껴진다. 남편의 죽음으로 혼자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식들을 가르쳐야 했던 막막한 상황에서 갯벌은 그녀에게 삶의 의지와 희망을 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주는 마음의 안식처였다. 이 여성에게 갯벌은 자신의 삶 그 자체, 그리고 살아갈 의지와 힘을 주는 그런 공간인 것이다.

여성들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새만금 갯벌 '살림'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부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의 살터인 갯벌(자연환경)을 지키고 파괴된 갯벌을 보살피며 가꾸는 것임과 동시에, 이제까지 인간-자본-남성의 이해에 가려 억압당하고 가치 절하됐던 자연과 여성을 비롯한 '타자화된 것'들이 갖는 긍정성과 가치를 살려내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새만금 갯벌 '살림'은 단지 여성들의 책임과 실천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자연과 인간의 삶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리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 실현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7강

가족을 넘어선 페미니즘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미래

박혜경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화여대 여성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공저인 『여성학』, 『새 여성학 강의』,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이 있으며 『페미니즘』, 『페미니즘과 과학』(공역)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한국의 페미니즘은 가족을 넘어서는가?

오늘은 이론적인 논의보다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페미니스트들에게 가족이 하나의 난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아는 것이 많아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난제인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고민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답을 드리기보다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강의 제목을 '가족을 넘어선 페미니즘'이라고 붙였지만, 더 정확하게 하자면 "한국의 페미니즘은 가족을 넘어서는가?" 혹은 "넘어서야 할 것인가?"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과연 넘어서고 있는가?" 그리고 "왜 넘어서야 하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질문인, "무엇을 위해 넘어서며, 어디로 향

해 넘어서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과연 던져진 적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서기’가 맹목적인 구호로 굳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이 ‘넘어서기’ 속에서 고민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유교적 가족 질서에 넉더리를 낼 만큼 냈고, 가족법 개정을 위해 오래 싸워왔고,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가족 질서 속에서 만난 남자들의 권위를 비웃기도 해온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에게 가족이 또다시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얼핏 보기에는 가족의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넘어서기 위해 모색하고 있는 모양은 투쟁이라기보다는 당황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그간 가족에 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오랫동안 가족에 대한 투쟁을 해왔다고 하지만 가족법 투쟁 외에는 개인적 간과에 머문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가족을 간과해 버린 것을 가족을 무너뜨리거나 넘어서는 것으로 착각해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 가족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한국의 여성운동은 가족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왔는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둘러싼 담론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페미니즘에 대한 역공을 불러일으킬 만큼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고, 페미니스트들은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가족을 넘어서는다고 할 때 가족은 상상의 산물로서, 결국 넘고자 하는 것은 이 가족에 대한 상상입니다. 소위 ‘정상가족’이라는 것은 상상해낸 지식이고 신화라는 말입니다. 정상가족 신화는 중산층 이성애 핵가족을 보편적인 가족이라고 믿는 관념입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해마다 전국여성대회를 주최합니다. 2005년 전국여성대회의 주제는 ‘인력은 국력이다. 출산이 애국이다’였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는 이 대회에서 발표된 주장을 실었습니다. “결혼이 선택이 될 수는 없으며, 출산이 여성의 창조적 의무라는 점을 재인식해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을 저지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며 “육아를 사회 참여의 장으로 인식해 독신과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젊은이의 사고를 불식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결혼 중심적 사고가 여성을 일차적으로 가족 안에 속한 존재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보고 강제적 모성 제도를 비판해왔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위와 같은 주장이 천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지역사회의 여성 지도자 또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으로서 곳곳에서 많은 여성들을 대표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여성의 이름으로 권익을 주장하며, 자주 여성의 이해에 충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과연 여성은 하나의 이해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성을 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국 여성운동과 가족 문제의 관계를 다루려면, 상당히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주제가 가족법 개정 운동의 역사로만 채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의식과 여성운동이 접목되었던 1980년대까지만 거슬러 오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의 비판적 여성운동과 가족 문제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런 거친 스케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엄밀한 자료 분석에 의한 평가라기보다는 저의 경험에 의존한, 다분히 인상비평적인 내용입니다.

1980년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82학번으로서 1980년대를 겪은 세대입니다. 1980년대에는 가부장적 가족 질서가 비판되었고, 그것은 주로 부르주아 가족 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반대였습니다. 정치적 신념에 대한 세대 갈등이 가족 내부에

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당시 세대는 이전 세대와 가장 불화했던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적으로는 혼전 순결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대가 이념적으로 존재했고(물론 혼전 성관계 경험은 확산되고 있었지만 아직은 은밀한 문제였습니다. 여자 친구들끼리도 그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풍토였던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가족 문제가 여성 문제로 이슈화된 것은 아내 학대에 대한 고발과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의 한 예가 1983년에 창립된 '여성의 전화'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 여성운동 내부에서 이 문제는 줄곧 주변적인 이슈에 머물렀습니다. 당시에는 민주화운동을 더 중요시했는데 한국여성단체연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아내 학대 문제를 제기했던 단체의 상근 활동가로 일하고 있었지만, 1987년에는 일 년 내내 거리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기억할 정도로 민주화를 위한 시위 참가가 많았습니다. 활동가들과 상담원이 집회에 참여하느라 상담 전화를 받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매 맞는 아내들은 연결되지 않는 전화기에 매달려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겠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법 개정 운동이 지속되면서 유교적 가족 질서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시에 가족법 개정 운동은 아들딸 차별 없는 균분상속을 핵심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계층의 여성과는 관련 없는 부르주아 여성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의견에 동

의하지 않습니다. 상속 재산 지분과 관련된 이슈가 부르주아 여성들과 한층 밀접한 이슈임에는 분명하지만, 부르주아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들딸 차별 상속의 이유는 단지 성별 때문이며, 결혼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제외시킨다는 관념을 반영합니다. 또 그 밑바탕에는 남성을 부양자로, 여성을 피부양자로 보는 관념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고 여성의 저임금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즉 여성이 경제력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 여성에게도 적대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딸 균분상속제를 위한 노력은 여성에게 경제력을 거부하는 상징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당위로 보는 시각에 대한 의문과 문제 제기는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 사회의식을 가진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동지적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상화가 팽배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읽었던 성과 결혼에 대한 책으로 아우구스트 베벨의 『여성과 사회』, 백산서당 편집부의 『아름다운 성과 사랑을 위하여』 등이 있었는데, 평등한 남녀 간의 배타적 이성애를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

• 이 책들은 영결스의 평등한 남녀의 일부일체제의 이상과 제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런 관점 속에서는 남녀를 부양자와 피부양자로 나누는 성별 분업은 비판되지만, 남녀의 차이는 존중되고 이성애는 당연시됩니다. 이런 논 의 속에서 이성애의 제도화가 전대 구조와 맺고 있는 관계는 질문되지 않습니다.

당시 여성운동가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는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여성단체에 있다가 여성 노동운동 조직에 들어간 한 친구가 결혼을 해야겠다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민중 여성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민중 여성 속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여성운동가는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말에 따르면 싶지는 않지만 저 역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의 인식 속에서 민중 여성은 가족제도와 관련된 위치를 가진 것으로 표상되었던 것입니다. 민중 여성을 결혼제도에 편입된 여성, 즉 기혼 여성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기혼 여성이라는 가정은 또한 섹슈얼리티 정체성에 대한 가정, 즉 이성애자라는 가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민중 여성은 이성애자 기혼 여성으로 동일시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성적 정체성은 고사하고 결혼제도에서의 위치를 가진다는 문제가 여성들 사이의 차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지요.

그때에는 사상적 동지와 사랑과 평등에 기초한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기대했고, 그래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위적 생각에 대해 의문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개 사회운동과 결혼생활을 병행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지 가부장적 결혼제도에서의 여성의 지

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당연히 사상적 동지, 즉 평등에 대한 이념으로 무장한 동지와의 결혼이 전제되었고, 그것으로 가부장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선배들이 결혼생활에서 겪는 문제, 예를 들어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풍토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다른 여성들의 문제를 돕는다는 식으로 여성 문제에 접근한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저마다 할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자신의 가족 경험을 여성 문제 인식의 자원이거나 운동 역량을 높이는 재료로 쓰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부부평등에 대한 관심, 가부장적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결혼을 당위로 보는 사고가 의문시되고, 이혼이 선택지로 제시되고, 여성의 혼외정사가 변호됨으로써 일부일처제의 당위성이 질문에 부처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 시기에 발표된 어느 페미니스트 작가의 소설에서는 남편에게 구박받던 전업주부가 집안일에 익숙해진 자신의 손에 반한 어떤 유부남을 만나 사랑에 빠져 남편과는 나누어보지 못한 상호적이고 자유로운 성 관계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들롱나 매를 맞고 그 남자 품에 안겨 집을 떠납니다. 이성에 제도나 결혼제도에 대한 비판을 남편 개인에 대한 비판과 혼동하면서 제도를 비판하지 않고 남편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성별 분업 구조에 대한 도전은 없습니다. 단지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의 가

치를 알아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만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보듯이 여성의 자율적 섹슈얼리티가 강조된 것도 하나의 풍조가 되었습니다. 혼전 순결 이데올로기가 약화되면서 개방적인 성 풍조가 확산되고, 그러면서 이성에 실천이 강화되었습니다. 연애란 일생에 몇 번 할까 말까 한 무거운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되었죠. 동시에 젊은 세대에 의해 성정치 논의가 일면서 결혼제도의 이성에 중심주의에 대한 도전이 제기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에는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주장이 전면화되었습니다. 높은 이혼율, 저출산 현상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고, 결혼, 이혼, 출산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김대중 정권 때 여성부가 생겼는데 여성운동의 성과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여성운동 단체들은 제도화의 물결 속에서 비판 세력으로서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혼란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통합적 가족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족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여성가족부가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정책은 명시적이든 그렇지 않든, 통합적이든 분산되어 있든 간에, 언제나 국가정책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신설 이후 여성운동은 여성가족부 정책과 가족관련법의 입법 운동을 통해

국가의 가족정책에 깊이 관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가족 문제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안팎의 중압감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왜 페미니즘의 이슈가 되는 것일까요? 가족 제도에 대한 페미니즘의 대안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일단 쉬운 대답은 '가족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의 이슈가 되고/대안은 평등한 부부관계에 기초한 민주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대 이전의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대의 성별 분업의 강화와 공사 이분법의 논리에 의해 여성은 일차적으로 가족 안에 속한 존재이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가족 안에서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여성의 할 일, 여성의 가치도 가족 안에 있는 것으로 다루어 집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 여성은 출생 시부터 가치가 낮고, 결혼하면 친정에서는 출가외인이요, 시집에서는 '남의 집에서 들어온 사람'으로, 평생 남성과 같은 진정한 가족의 성원권 membership을 누리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가족의 일상사는 여성의 노동에 맡겨져 있고 가족관계도 여성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큰데도 가족 안에서 여성의 지위는 안정되지 못하고 가족 경험은 분절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결혼하면 시집 식구와의 관계를 일차적 관계로 여겨야 한다는 규율이 주어집니다.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문제

중의 하나가 서로 집안을 들먹일 때입니다. "당신 어머니, 너네 어머니" 운운하면 남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위는 백년손님인데 며느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낯선 이들을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여기며 낯선 문화를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친정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출가외인이니 나서지 말고 손님처럼 굴라고 합니다. 남성은 결혼했다고 해서 이런 식의 관계 분절을 겪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여성은 남편 가족의 문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결혼하면 시어머니에게 남편 식성이 어떠한지를 듣고 시집 음식 맛을 배워야 합니다. 여성에게 결혼은 일종의 타향살이인 셈입니다. 옛날에는 더했죠. 친정 나들이 한번 제대로 못 했으니까요. 처가와 변소는 멀수록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도 시집 식구나 남편은 여성이 친정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딸은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 싫어 시집 안 간다고 울었으니, 그런 딸을 시집보내는 친정어머니도 울고 혼례식 전에 여자들의 눈물 바람이 일었죠. 그러니 가족 문제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할 말이 많고, 평등한 부부관계와 민주적 가족이 여성운동이 말하는 가족 대안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여성 문제를 알까?

그런데 이런 대안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은 가족 수업 시간에 중산층의 성별 분업에 바탕을 둔 핵가족의 부부관계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나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이성애 핵가족에 관한 논의에 나는 관심이 없다.” 물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성의 가족 경험에 관해 말할 때 중산층 이성애 핵가족을 전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날 그런 경험 바깥에 있는 여성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 가족의 경험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나는 왜 나의 가족 경험과 관련이 없는 가족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가족 다양성 논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 다양성 논의 속에는 여성들 사이의 참여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가족제도와 여성이 맺고 있는 관계는 다양합니다. 가족제도 속에서 여성의 위치, 여성의 정체성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을 여성의 경험이 일어나는 일차적 공간이라고 말하면서 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잘 이해해야 한다

고 할 때, 가족과 여성은 어떤 가족이며 어떤 여성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한 페미니스트 동료는 결혼하지 않은 어떤 페미니스트가 가족과 남성에 대해 경직되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더라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가족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

저는 이 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고, 그래서 두 시간 정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동료는 가족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을 잘 알아야 한다는 소박한 지적을 했는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냐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의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가족은 하나의 텍스트이니 가족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가요? 이런 의미라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충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동료의 전공이 섹슈얼리티였다면, “너는 섹슈얼리티 전공이니 섹슈얼리티를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너는 가족 전공이니 가족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 동료는 결혼을 한 사람이니까요. 따라서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다고 가정되기 때문입니다. 동료의 말은 제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 즉 결혼제도에서의 저의 위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합니다. 결국 결혼하지 않은 사

람은 가족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는 가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의미를 가집니다. 결혼한 사람에게 섹슈얼리티 전공이니 섹슈얼리티를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이 내포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사람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에 대해 잘 알 수 없다는, 즉 가족에 대한 인식에서 제도 내부에 있는 위치가 특권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성의 문제가 여성 문제를 대표한다고 가정할 때에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여성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앞에서 결혼하지 않은 페미니스트에게 "너는 가족을 전공하니까 가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진술이 의미를 발생시키는 것은 위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가족제도에 대해서 갖는 위치는 다양하며 결혼한 사람만이 그것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 돈에 대해 잘 아는가?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매사를 돈과 연결하여 보게 됩니다. 반면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돈 때문에 발생했는데도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족의 경계는 불분명하며, 가족은 다양하다고 이야기해왔으면 서도 경험 연구를 할 때에는 항상 중산층 핵가족을 대상으로 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중산층 핵가족의 변화가 가족 전체의 변화를 대표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가족의 변화 자체를 보려는 것이 아닌 바에는 항상 핵가족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저는 제도의 주변에 있었는데 그 위치에서 가족제도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자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가족제도와 맺고 있는 다양한 위치에서 가족에 대해 인식합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나온 지식 주장들이 가족에 관한 지식을 만드는 장에서 민주적으로 토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제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가족제도와 나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제도를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특권적인 위치가 있다는 가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가족제도 안에 가장 규범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위치입니다. 결혼한 사람만이 가족에 대해 잘 안다고 할 때 그것은 부부가 함께 사는 가족을 보편적 가족 경험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화 논의에서 서구 중산층 여성의 경험이 여성 전체의 경험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비판은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 사회 안에서도 가족제도에서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여성의 경험이 여성의 경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다루어지지 않았는지 생각

해 봐야 합니다. 이런 식의 논법이라면 정당정치에 입문하지 못한 여성의 입장에서 정당정치의 문제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군대에 가보지 않은 여성이 군대제도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여성이 모성 경험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성 경험이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경험만이 아니라 여성이 어떻게 어머니가 되는가에 대한 경험까지 포함합니다. 어머니가 되지 않으려는, 또는 되고 싶었으나 그렇지 못한 여성들이 어머니 되기에 대해 또한 많은 이야기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혼 여성 및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 연구를 한다니까 한 여성단체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여성들의 문제도 연구해야죠." 여기에서 일반적인 여성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노동자가 아닌 여성, 즉 전업주부입니다. 기층 여성이 아닌 여성, 즉 중산층 여성입니다. 레즈비언이 아닌 여성, 즉 이성애자 여성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여성, 즉 비장애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비장애 중산층 이성애자 전업주부가 일반 여성이고, 다른 여성들은 특수한 여성들이 됩니다. 이성애자, 비장애 여성, 전업주부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는 위치이므로 일반적입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런 위치를 한 번쯤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 일생에 한 번도

전업주부도, 유부녀도, 중산층도 되어본 적이 없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취업 경험을 가지고 있고(노동자 여성), 아니 엄격하게 말하면 취업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일생 비취업 여성은 오히려 드물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늙어가면서 혹은 생애 과정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모호한 채로 살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다른 여성으로 인해 가슴 설레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여성에 대한 가정 속에서 가족제도와와의 관계가 일반 여성이라는 위치를 만들어내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누구보다도 일반 여성이라는 표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으로서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실이 우리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특수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며 타인의 경험 이 나의 모든 경험을 대표하지는 못합니다. 차이의 문제는 이런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일반 여성, 보편적 여성, 전형적인 여성의 경험과 위치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가정과 지식 그리고 권력이 존재할 뿐이므로 여성들의 차이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과 연대해야 한다는 말

그런데 왜 가족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경험들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가족 문제를 이야기할 때 레즈비언 여성의 문제에 공감해야 합니까? 성 정체성에 대한 억압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동성애에 대한 인정이 굳이 페미니즘으로 설명되어야 할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즈비언도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레즈비언 여성과 연대해야 한다." 레즈비언이 여성인 것은 맞습니까? 페미니스트는 여성입니까? 스스로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갖지 않아도 사회에서는 우리를 여성으로 취급합니다. 젠더 체계가 우리의 위치를 만들어줍니다. 레즈비언, 장애 여성, 이주 여성의 위치와 경험 속에서, 젠더 위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는 페미니스트의 이슈가 됩니다. 레즈비언의 위치는 젠더 체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레즈비언의 경험은 여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모든 여성의 경험을 옹호하고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위치를 만들어내는 젠더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성들의 위치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차이는 평화로운 조화를 뒤흔들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차이는 자주 투쟁의 문제가 됩니다. 문화적 차이나 취

향의 차이와 달리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 인종주의와 반인종주의 사이의 차이는 투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착취하는 자본가 여성과 착취당하는 노동자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두 지지해야 합니까? 여성 유권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정치가를 지지해야 합니까? 우리가 차이를 말하는 것은 그저 "우리는 다르다. 그러니 너의 방식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차이의 정치는 차이를 계속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투쟁과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투쟁과 갈등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일어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차이를 말하게 되면 불편해지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장애 여성의 경험 속에서 발견하는 젠더 정치는 비장애 여성의 경험을 일부 설명해주면서도 비장애 여성의 상대적 특권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이성애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단지 동성애에 대한 허용을 구하는 데서 그칠 수 없는 정치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성애, 이성애자라는 경계를 불분명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가족 다양성 논의는 한부모 가족의 복지에 집중함으로써 마치 다양한 가족은 한부모 가족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가족 다양성 논의는 섹슈얼리티, 친밀성의 문제 등 차이의 정치를 유발하는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

게 이야기하면 '아, 가족 다양성 논의는 동성애 가족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가족의 다양성 논의에는 급진적인 토론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지도 않고 법률적으로도 양부모나 양자 관계를 맺지 않은 채 이웃의 노인이나 어린아이를 보살피고자 할 경우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혈연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보살피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고 싶어도 간병 휴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근을 해야 합니다. 법정 상속인이 없는 독신자가 가난한 후배나 이웃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려 해도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되며 가족이 상속받을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면, 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 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요? 제도 가족의 경계를 넘어선 보살핌은 왜 지지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상속의 권리를 내세워 국가에 문제 제기를 해본다고 합시다. 결국 가까운 사람이란 누구인가? 무엇이 인간관계의 친소를 결정하며, 그 결정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개인인가, 국가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와 가까운 사람으로서의 제도적 권리를 얻기 위해서 그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그 사람과 성적인

(혈연) 보살핌의 의무(권)
결론) 상속
개인의 권리(상속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그리고 국가에 나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고지해야 할까요? 성적인 관계도 법적인 관계도 없는 사람을 보살피는 것은 왜 지지받지 못할까요? 가족의 경계를 넘어 보살핌이 소용되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까요?

가족 다양성 논의는 서로 다른 것들이 갈등하고 투쟁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지 않고 탈정치화하기 때문에 가장 급진적인 잠재력을 희생하면서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는 만민공동의 안락한 우산이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족 다양성 주장의 정치적 차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젠더로서의 여성이 만들어지는 데에 가족제도와 맺는 관계 또는 가족제도적 위치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들이 깊이 성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가족제도는 우리를 부엌데기 며느리로, 섭섭한 딸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며, 여성으로서의 몸과 심리를 만들어내는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족 다양성 논의에서 이성애 중심주의를 문제 삼으려면 동성애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성애 중심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젠더 재생산 기계로서 이성애 중심주의를 문제시해야 합니다. 가족 다양성 논의에서 이성애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골장 레즈비언 이슈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레즈비언 이슈는 단지 동성과 성애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페미니스트로서 이성애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성애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위치에서보다는 이성애 제도와 젠더 체계와의 관계에 개입하는 위치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즈비언이 여성이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연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그들의 위치가 젠더 체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앞의 문제로 돌아가볼까요. 가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 이혼 여성, 동성애 여성의 경험과 위치에서 가족을 보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언젠가는 결혼할 사람으로, 미혼자로 호명되면서 겪는 경험을 통해 결혼제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지식을 갖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언젠가부터 노처녀로 불리며, 또는 어린아이 같거나 이기적인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때문입니다.

지식이 권력 투쟁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이런 지식이 왜곡하고 있는 경험과 위치에서 비롯된 또 다른 지식이 당연히 이런 지식 주장과 각축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혼 여성, 노처녀의 위치도 이렇진대 이혼 여성, 동성애 여성의 경험과 위치는 가족이 우리에게 어떻게 상상(인식)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마땅히 가족 지식 주장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업주부가 '여성'을 대표하는 문제

이제 가족을 페미니즘의 이슈로 다루고자 할 때 가족제도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본 여성은 누구인지를 생각해볼까요? 앞에서 민중 여성, 일반 여성 모두 이성애자 핵가족의 기혼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운동이 1990년대 이래 중간 계층의 여성을 포괄하고자 했을 때에는 사무직 여성과 전업주부가 포함되었는데, 이때 가족 안에서 여성은 전업주부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앞에서 레즈비언이나 장애 여성이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이들과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한 논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는 여성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전업주부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은 페미니즘 정치로서 어떤가요?

1990년대 이래 한국 여성운동에서 전업주부가 '여성'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성운동은 중간층을 포괄하는 운동, 기층 민중이나 노동자 계급 중심의 여성운동에서 벗어나고자 중간층, 일반 여성, 비노동 여성으로서 주부라는 주체 위치를 강조했습니다. 재산, 상속, 세제 등에서 이야기되는 가사노동 가치에 관한 논의에서도 여성의 위치는 전업주부로 대표됩니다.

우리말에서 주부¹⁾는 주인 여자, 또는 안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안주인이나 바깥주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안주인이라는 의미로 주부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영어의 'housewife'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우스와이프는 집에 있는 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내*도 남성과의 관계, 즉 가족 안에서의 위치인데, 그것으로도 모자라 '집부인^{housewife}'이라고 부릅니다.

주부, 가정주부, 전업주부라는 위치는 근대에 성별 분업이 강화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전적으로 가사노동만 담당하는 역할이 생겨난 것입니다. 영어권에서는 'full time housewife', 또는 'professional housewife'로 표기합니다. 1990년대 여성운동 단체들이 벌인 사회주부 운동 등에서 가사노동자도 하나의 전문적 직업이라는 담론이 확산되었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와 가사노동을 통한 전업주부의 기여를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지만, 결과적으로 전업주부를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위치에 만족하는 여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는 근대의 성별 분업은 과도기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목적사관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우에노 교수의 분석은 현대사회의 성별 분업 약화를 지적하는 다른 논자들의 주장과 같습니다. 울리히 벡^{Ulrich Beck}과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Elizabeth Beck-Gernsheim}이 현대사회만큼 남녀가 많이 싸웠던 시대도 없다고 말할 만큼 젠더 갈등은 오늘날의 사회 특징이 되었

* 우에노 치즈코 저, 이송희 옮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북두출판사, 1994년

습니다. 이런 갈등으로 인한 가족의 변화는 성별 분업 체계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국내 가족 변화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성별 분업의 약화가 가족 변화의 핵심으로 언급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성별 분업은 노골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가사노동만 하는 여성, 돈벌이만 하는 남성이라는 위치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이 바라는 사회도 성별 분업이 해체된 사회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돈벌이는 할 줄 모르고 가사노동밖에 못 하는 여성이나, 밥 짓기도 아이 돌보기도 할 줄 모르는 남성을 바람직한 성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능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녀는 전통적 성역할을 고수하는 상대에 대해 매우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갈등합니다. 자신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해서는 상대가 나누어주기를 바라면서 상대의 역할을 분담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여성들은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남성을 비난하지만, 직업을 가진 여성을 배우자로 고르려고 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여성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처럼 봅니다.

더욱이 한 사람이 벌어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리려면 지금처럼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가정생활을 희생하면서 엄청난 일매달려야 합니다. 때로는 가정생활이 거의 불가능

할 정도가 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야근과 특근을 하고, 일요일에는 집에서 잠만 잡니다. 그런 생활이 갈등을 불러일으켜 성 역할이 이분화된 사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노동 시장에 참여한 여성들도 가정에서 누군가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면제된 남성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남성 중심의 노동자 모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 중심의 세계에 반대하는 것은 여성이 전통적인 모성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노동 중심의 세계 조직이 남성 위주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자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평생 설 새 없이 노동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자라는 예쁜 모습도 보고 안아주고 아이와 접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기자기하게 살려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지,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도 없이 평생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결혼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여성이 전업주부로 남아 있으려면 남성은 평생 돈 버는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자 혼자 벌어도 가족 전체가 먹고살 수 있는 계층에서나 가능할 뿐입니다.

성별 분업을 해체하지 않은 채 임금노동이 가사노동보다 더 우월하게 평가되는 평가의 위계만 없애면 되는 것일까요? 기혼 여성의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성이 노동시장을 아주 떠났다가 경력 단절이 일어난 상태에서 재취업

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은 노동시장을 떠나는 이유가 됩니다. 기혼 여성의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흔히 기혼 여성을 실망 실업자로 재현하지만, 여기에는 사회 계급계층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혼 여성의 노동력 공급 행태에 대한 조사들은 남편의 소득 등 경제력에 따라 여성의 취업 의사가 탄력적이라고 보고합니다. 남편의 벌이가 좋으면 아내는 취업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혼 여성의 취업 의사를 묻는 조사들에서 취업 의사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는 여성이 일정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들을 모두 실망 실업자로 재현하고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성별 분업 체계를 유지하는 데 여성들이 연루되어 있음을 말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전업주부 전체를 부불 가사노동자 또는 실망 실업자로 재현하면서 사회구조의 피해자로서 그 지위에 보상해야 한다는 관점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여성들을 전업주부인 채로 두고 그 지위를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노동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취업 단절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성별 분업에 대해 그것이 구조적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즉, 선택에 의한 전업주부 위치는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

다. 성별 분업구조가 여성에게 가사노동과 어머니 노릇을 강제함으로써 여성 삶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비난에는 그런 식의 사유가 들어 있습니다. 성별 분업은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는 인식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진술도 있습니다. 이성애 중심주의가 왜 문제인가, 그것은 개인의 성적 자유와 선택을 저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성애를 선택했다거나 전업주부를 선택했다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주체들이 '나는 선택했다'고 이야기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스스로 전업주부를 선택했으므로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은 개인의 힘을 제도와 구조적 제약을 뛰어넘을 정도로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행위성을 배제한 채 구조의 힘만 강조하는 논리를 비판해야 하지만, 개인이 구조와 협상할 때 절반의 힘을 가지는 것처럼 다루어서도 안 됩니다.

성별 분업 체계는 여성 억압을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것으로 지적되어왔습니다. 성별 분업은 해체되어야 하는 것이죠. 더욱이 그것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없어져야 하는, 또는 약화되고 있는 성별 분업 제도에 기초한 여성의 위치와 연대해야 할까요? 여성운동은 여성을 여전히 일차적으로 가족적 위치로부터 호명해내고, 성별 분업 체계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 수행자로 여성을 주체화해야 할까요?

가사노동 가치 평가라는 문제는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 남편의 부양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구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급여나 수당 또는 세제가 남편을 통해 지원되도록 구상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근대 이원화된 성별 분업 체계가 가사노동을 여성의 노동으로 만들었다는 개념적 설명은 개별 가족 안의 가사노동이 모두 여성 혼자의 노동으로 처리된다는 경험적 사실을 주장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개념적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대부분의 가족 속에서 여성이 가사노동의 일차적 또는 전적인 책임자로 여겨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사노동은 여러 가족원, 친척, 파출부 등의 고용 인력까지 참여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취업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중산층 전업주부들의 존재를 알면서도, 전업주부는 항상 가사노동자로, 가사노동자는 피해자로 재현됩니다. 전업주부라는 위치는 사실상 기혼 여성이며 비취업자라는 사실에서 유추된 것입니다. 비취업 기혼 여성이 전일제로 가사노동을 혼자 담당하는지 파출부를 일주일 내내 고용하는지는 공식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취업 기혼 여성을 전업주부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여성들의 삶이 비교적 동질적일 때에는 여성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했기 때문에 비취업 기혼 여성은 전업주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사노동의 수행 방식도, 그것에 대한 관념

도 달라져서 주부 혼자 떠안은 노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서는 주부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사노동 중에 더러운 노동이라고 불리는 노동, 손에 물을 대야 하는 일들은 파출부를 고용할 수도 있고요. 사실상 이 가사관리 노동자들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입주 가정부가 더 많았고요. 그런데 이들의 존재를 배제한 채로 가사노동자를 전업주부와 동일하게 재현해왔습니다.

서구에서는 경제적 빈국 출신의 이주 여성들이 부유한 나라의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가사노동자를 주부와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이주 여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미 계급 문제였고, 지금의 이주 여성의 돌봄 서비스 노동자화 문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계급이 인종과 교차하면서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가사노동자를 비취업 기혼 여성과 동일시하는 담론들이 지배적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이 때로는 기존의 가족제도, 성별 분업 체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별 분업 해체를 지향하지만 전업주부가 여성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어서, 그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전업주부, 또는 가족 속에서의 여성을 다른 논의에서는 제도의 희생자

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위치로 규정하는데, 그런 식의 사유는 단순한 희생자화가 아닌가요? 그런 기획 속에서 주변적인 위치에서 가족제도를 만나고 있는 여성들의 삶이 간과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을 일차적으로 주부로 호명해내는 페미니즘은 가족의 다양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요?

돌봄의 가치를 지지하면서 가사노동, 모성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출산정책은 모성에 대한 가치 인정입니까? 아니면 출산장려 정책으로서 성통제의 일환입니까? 셋째아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많은 여성이 국가가 당연히 출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셋째아를 출산하는 사람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면 셋째아를 낳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 두 아이를 잘 기르기에다 벅찰 테니까요. 자녀 셋을 둔 여성은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취업해서 두 자녀를 잘 길러야 하는 여성이 셋째아까지 낳으면 취업도 못하고 육아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보육료 지원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장려 정책은 출산율은 높일지 몰라도, 금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결과를 낳거나, 취업해서 두 자녀를 기르며 미래에 대한 경

제적인 대비를 해야 하는 여성들을 출산과 육아에 묶어두는 결과를 갖습니다.

앞에서 여협 대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듯이 출산장려를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모성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인구정책에 따라 휘둘리지 않게 할 논리를 개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시책에 따르는 것입니까? 과연 한국의 페미니즘은 '가족'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까?

::대안, 참을 수 없는 관계의 가벼움

다양성 주장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족 다양성 논의만으로 가족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가족 다양성 논의는 가족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통적 가족 옹호론자들은 가족 다양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가족을 완전히 해체해버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해체하는 것은 전통적 가족에 대한 이념과 전통적 핵가족 관념의 지배이지 가족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여 살고 친밀성을 나누고 보살피면서 가족 정체성을 가지는데 그 관계들을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누구와 가족이라는 가족 정체성을 가지는 한

가족은 해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는 있겠지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건, 다른 사람과의 친밀성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재구성될 것이며, 그것에 이름 붙이기와 의미 부여가 달라질 뿐입니다.

어쨌든 인간의 삶에서 타인과의 돌봄과 교류는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의존적인 시기를 겪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국가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은 명민한 일입니다만, 관계의 윤리를 구상해야 하는 지점에서마저 국가만을 행위자로 등장시키는 것은 너무 힘없는 대안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영역이 비대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잘해도 인간관계의 문제는 남습니다. 다양성이 다양한 불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다양성 주장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좋은 삶, 좋은 관계에 관한 적극적인 추구가 만나야 합니다. 여기에서 관계의 윤리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가족의 붕괴를 우려합니다만, 사실 이웃이 붕괴되었고, 마을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웃이 만나는 골목이 사라졌습니다.* 도시 공간은 사실상 이웃 간에 돌봄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 사이버 공간 등에서 다른 방식의 연대를 실천하고 있기는 합니다. 친밀성은 물리적 거리의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관계 또한 원하기 때문에 만남과 접촉의 방법도 구상해야 합니다.

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는 두 명의 어른으로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됩니다. 사회적 보육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와 여성 사이에 또는 국가와 핵가족 사이에서 돌봄을 누가 얼마만큼 책임질 것이냐 하는 논의로 국한되는 것이 문제라고 느낍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이웃과 마을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동네 어른들의 눈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았습다. 요즘에는 폐쇄된 공간에서, 어른의 보호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놀다.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가족이 아니어도 이웃이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돌봄을 어떻게 소통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구상하는 데에 단지 국가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성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관계의 문제에서 출발해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즘 세태를 비판하게 됩니다. 이성애 핵가족제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족의 다양성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옹호됩니다. 물론 우리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것이 때로는 자기 파괴를 포함하더라도 그 권리가 옹호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애 핵가족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관계에 대해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일부일처제에 대한 기왕의 비판을 무시하고 다시 새로운 커플 맺기(이성과의 동거, 동성과의 결혼) 등으로 들어가려는 것은 아닌가요?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필요한 때에만 타인의 정서적·성적 에너지를 인출해 쓰는 것이 바람직한 삶일까요? 저는 「섹스 앤 더 시티」라는 드라마를 볼 때, 소비중심 사회에서 엄청난 구매력을 가지고 있고 성적 매력이 넘치는 독신,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들의 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바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원을 가진 개인은 드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바람직한가, 그 끝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가족제도의 유령을 만납니다. '과연 결혼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계추처럼 양극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청춘과 중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원리와 윤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가족제도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을 기억하면서도, 또 여전히 친밀한 관계에서 정의와 바람직함에 대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돌봄의 원리를 살려내는 것, 돌봄을 생동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독립과 자율, 프라이버시를 억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겠지요.

관계의 윤리는 단지 연인관계나 특정한 소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맺는 관계의 상호 의존성에 관한 성찰을 포함해야 하며, 더 넓은 범위의 인간들(또는 존재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윤리의 발견으로 통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바로 이것이다.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동인지 기획서를 쓸 때만 해도 이 문장의 '누구'는 선택의 의미였다. 세상도 많이 달라졌고, (어느 시대에도나 유포되는 소문이지만) '신인류,' '신세대'가 등장했으며, 이들은 점점 더 미세한 차이들을 동원해 서로 구별짓고 있으니, 이제 정말 획일화된 '가족'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지 안 그러면 미래는 더욱 암울해지고 삶을 지탱해 주는 관계들은 파탄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 듣고 보니 그도 그런 것 같아 많은 이십대들이 좌담을 하기로, 글을 쓰기로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에서 '누구'는 선택의 의미였다.

그러나 기획 회의, 좌담, 글쓰기 작업을 통해 나름대로 한 발 깊게 생각을 진행시키고 난 지금, 그 '누구'는 불가능을 앞에 둔 '잠깐 놀람'으로 바뀌어 있다. 결혼을 통해 만들어지는 가족이라는 절대 답안을 깨고, 함께 살아갈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그에 걸맞는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면 과제. 그러나 우리의 모색 작업은 가장 중요한 문제

함께 살 수 있을까

이십대

얼어붙은 페미니즘과 조우하고, 스물둘에 첫 소실에 마침표를 찍었다. 스물다섯에 「하자 센터」 창립 멤버가 되어 3년간 「만들」 생활을 했는데, 이때 청소년, 문화, 교육, 세계화, 정보 사회라는 키워드를 얻었다. 지금은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고 정보 사회 연구에 관심이 많다. 가족을 주제로 책 만드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다 보니 편집장의

'사람이 있는가?'에서 막히고 말았다. 가족의 틀을 깨는 것도 좋고,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도 좋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함께 할 사람은? 그간 이런 저런 사람들을 겪으며 개인적으로 탐색이라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해 보았지만 대부분 공통된 결론은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랑으로 끌고 가기에 사랑은 너무 빨리 식었고, 생활에서 만날 때 함께 있는 풍요로움보다 서로 맞지 않는 거슬림이 무궁무진 샘솟았다.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럼 저 사람은? 아아 저 사람도 아닌가 보다, 그럼 또 누구? 여러 번의 시행착오는 자신감을 금세 소진시켰다. 그간 이 자신감 결여를 '나만 억세게 운이 나쁜가 봐'로 결론지어 가슴속 깊이 넣어두었는데, 가족에 관한 책을 쓴다고 여러 사람들과 모여 보니 그게 아니었다. 열이면 열, 같은 문제를 호소했다. 그렇다면 그 '누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인가? 함께 살 그 '누가' 있기는 한 것일까? 그 '누구'에 대한 소망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 책은 어떻게 써야 하나?

그리하여 선언문 형식으로 쓰기로 한 세대별 논설, 그중 이십대 편을 여는 외침은 이렇게 시작한다.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누구'는 어디에? 그 '누가' 있기는 한 건가?"

'누구'들이 사라지고 있다 1 : 애인형 '누구'

함께 살 누군가를 상상할 때 이십대에게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다. 애인, 친구, 기존의 가족. "도대체 함께 살 그누구는 어디에 있는 나?"는 외침이 나오게 된 맥락을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중심으로 하나씩 따져 보자. 우선 애인형 '누구'들은 왜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이십대에게 결혼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 버린 지 오래지만 연애라면 다르다.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되는 밀고 당기는 연애 게임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 팍팍한 인생에 수분을 공급하는 은밀한 에너지원으로 모양새를 다듬어 가다가 아이 취급을 면하는 고등학교 졸업에 성공하고 취직하거나 대학에라도 들어가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합법적인 사업이 된다. 일도 좋고 공부도 좋지만 인생을 뜨겁게 달구어줄 사랑에 대한 갈망은 그가 찾아질 때까지는 찾기 위해, 찾고 나면 더욱 뜨겁게 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종목이 된다. 사랑은 이미 초등학교 시절부터 육성된 욕망이며, 욕망을 충족시킬 각종 테크닉은 대중 매체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연마되어 있다. 바야흐로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사랑이 만연하는 것에 반비례하여 책임의 강도는 약해졌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지만 삶을 함께 꾸리는 데 필요한 다른 요소들, 책임을 진다거나 약속을 지킨다거나 하는 고리타분한 가치들은 사랑과 함께 유행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연애는 쉬워도 지속성을 갖기는 힘들다. 약속을 어긴다는 건 얼마나 간단한 일인가? 그냥 어겨 버리면 되는 것이다. 사랑의 특권상 '사랑 때문에' 라고 말하면 '웬갓' 종류의 배신 행위가 모두 용서되고 각종 고통은 배신당한 쪽의 정서적 문제로 치부된다. 오래 아파하고 있으면 결국 아파하는 쪽만 바보가 된다. 하소연일랑 짧게 끝내고 툭툭 털고 벌떡 일어나 다른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한다(이것 역시 매우 중요한 종류의 훈련이 된다). 첫사랑이라 그렇겠지, 아직 정말 내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겠지, 마음을 달래며 몇 차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지만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은 '당최' 만날 수가 없다. 다들 불평하는 것처럼 '준비된 선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함께 살기' 종목에서는 더 그렇

다. 이제 어느덧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머리부터 저절로 돌아가게 된다. 언제 배신을 때릴 것인가? 어쨌든 배신 때리는 쪽이 배신당하는 쪽보다는 감정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이다. 연애가 이렇진대, 장기간 함께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판돈이 걸린 게임인가? 연애보다도 더 베풀을 잘해야 하며 만약의 경우 상대가 판을 걷어치우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한다. '함께 살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배신할 누군가'를 찾는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누구'들이 사라지고 있다 2 : 친구형 '누구'

친구와 함께 살기 역시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친구와의 거리는 가족이나 애인과 갖게 되는 정서적 거리보다 훨씬 멀고 예의 바른 것이다. 가족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못 볼 꼴 보이기도 언제 그랬더니 안면을 바꾸지만, 애인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웬만한 감정적 난리들을 덮어 주게 되지만, 친구와의 거리는 좀 더 '쿨한' 것이다. 막무가내로 굴거나 우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거리 덕분에 생활 공동체는 감정의 배출로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혼자서도 잘살 수 있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낯설고 정서적 충족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십대에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함께 살게 되면 장점보다는 주로 단점 찾아내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십대에는 정서적으로도 복잡다단한 상태에 있게 된다. 본인의 신경질을 참아 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똑같은 이십대가 신경질과 예민함으로 가득 차서 주변을 서성대고 있다. 서로 위로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오기보다는 우울함이 증폭된다. 또한 이십대는 불안정한 미래를 놓고 인생을 설계해 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대부분 같은 그림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인생 설계는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기보다는 생활 패턴을 띄그덕거리게 만든다.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면 서로를 보살피는 데 할애할 시간적·정서적 여유는 감소하게 된다. 연애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성애적 사랑과 연애가 여타의 관계 맺기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취급되는 사회에서, 친구와 함께 사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진짜' 가족을 꾸리기 전의 임시 방편으로 생각되기 십상이다. 친구끼리의 동거에서 한쪽이 연애를 시작하면 다른 한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함께 사는 공간과 시간에 연인이 라는 제3의 인물을 당연하다는 듯 끌고 들어오게 되면, 친구라는 마음 좋은 배역을 맡은 쪽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간을 할애해 연애 보고를 들어주어야 한다. 연애 관계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관계의 서열은 꼭 함께 살지 않더라도 가까운 친구, 선후배 관계에서 수시로 적용되고 폐해도 크다.

어떤 문제에서 시작했건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친구 관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통합하게 하는 동인이 매우 약하다. 혈연이나 사랑처럼 거창한 대의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경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전에 잠시, 친구랑 함께 살았던 적이 있죠." 그렇다. 잠시 겪어 가게 된다. 내 존재를 받아 주고 장기적인 삶을 함께 하기에 친구라는 이름은 너무 약하다.

'누구'들이 사라지고 있다 3 : 가족형 '누구'

함께 살 누군가로서 가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띤다. 가족 내 유대가 약화되고 핵가족 모델로 이동하게 되면서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든지 하는 식의 세대 간 결합, 특히 정상 가족 형태를 보존하는 결합은

약화되고 있는 추세다. 자녀를 둔 부모도 그렇고 부모를 둔 자녀도 그렇고, 자녀의 결혼 후 함께 살지 않겠다는 사람이 90% 이상이라니 대단한 수치다. 반면 가족 외의 대안을 만들지 못해 함께 사는 경우나 선택적으로 구성된 비정상 가족 형태는 늘고 있다. 독립을 못/안 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얹혀 산다든지, 시집간 딸이 혼자 힘으로 버거워 남편, 아이를 모두 끌고 와 친정 엄마에게 붙어 산다든지, 문제 많은 가장을 축출하고 어머니와 미혼의 딸들이 함께 산다든지 하는 경우들이다. 가족의 성역은 무너진 지 오래고, 마지못해 참아 주거나 더 이상 못해 먹겠다며 특정 부분을 과감하게 절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여전히 '함께 살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 형태를 '사라지고 있는'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함께 살고자 하는 욕구나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함께 살고 싶은 '아버지,' 함께 살고 싶은 '남편,' 함께 살고 싶은 '아내' 같은 인물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제도와 관습이 느리게 변하는 와중에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무수한 변종을 만들어 내며 변하지 않는 구조를 소화해 낸다. 이 시스템의 막강한 힘은 유구한 전통에 있다. 기보다 다른 대안이 부재한 환경에 들어 있다. 힘들게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려다 결국 손해만 왕창 보고 대부분 피곤에 지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십대들의 선택지 속의 가족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다르게 살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현실은 막강한 부모에게로, 결혼이라는 상상적 탈출 쪽으로 등을 떠민다. 진심으로 함께 살고 싶은 '가족'은 사라지고 있는데, 이나마도 없으면 어찌나 하는 불안이 '가족'이라는 빈 개념을 꽉 채워 살아 있는 척하게 한다.

'누구'들을 기른 것 1 : 길러준 가족, 최고의 반면교사

함께 살 수 있는 누군가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다름 아닌 이 누군가들 속에 실은 나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함께 살 누군가를 찾을 수 없다지만 나 또한 누군가와 함께 살 생각을 하면 선뜻 내키지 않는다.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제 함께 살 수 없는 식으로 진화한 새로운 종족이 아닐까? 우리를 기른 것은 무엇일까?

함께 살기 학습이 시작되는 곳은 가족이다. 운 좋게(?) '정상 가족'에서 출생했던 '비정상 가족'에서 출생했던 가족 밖으로 버려졌든 모든 아이들은 '함께 살기=가족'이라는 개념을 통해 또는 그 외곽을 빙빙 돌며 '함께 살기'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엄마, 아버지, 형제자매, 엄마의 엄마·아버지·형제자매, 아버지의 엄마·아버지·형제자매... 또는 이 역할들의 부재를 통해 함께 살기는 이루어지며 함께 살기에 대한 개념 형성과 훈련이 진행된다.

그러나 온 사회를 점령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이 형태는 '족수' 면에서는 여전히 공고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긴 시간에 걸쳐 몰락해 왔다. 이제껏 우리를 길러준 가족은 함께 살기에 대해 초창기 훈련을 맡은 교사임에는 분명한데, 그 교사는 주로 나쁜 본보기의 역할을 했다.

부부 관계의 허상을 학습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보여 주는 부부 관계는 애정에 기초하기보다는 생계라는 실리에 기초하고 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사랑을 하기는 했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한 이 두 남녀는 무성적 존재인 양 돈을 벌어들이고 살림을 꾸리는 등 생계를 책임진다. 둘 사이에 불명등하고 불합리한 부분도 셀 수 없이 많고 지긋지긋하게 싸워 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식들은 부모를 통해

사랑하는 관계의 결혼형 결말이 어떤 것인지 학습하게 되고, 양쪽 모두 나름의 이유로 속 끓이며 고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며, 그 차이가 합리적으로 좁혀지지 않은 채 그저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 역시 싫지만 인정하게 된다.

부모 역할에 대한 공포를 학습한다. 이러한 부모들은 결혼 생활이 불만족스러워도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산다. 너도 언젠가 네 자식을 낳으면 부모 맘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너도 맛 좀 봐라'는 것인지 공포스럽기 짝이 없다. 뽀 뽀지게 일해 뽀 뽀진 독에 물 붓듯 자식에게 퍼부으며 인생을 허비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그걸 한다고 그 아이가 고마워할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자신의 부모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혹시 부모님이 아이까지 다 길러 준다고 하면 모를까, 자신의 힘으로 부모 역할을 할 엄두는 나지 않는다. 덕분에 최근 들어 늙으신 부모들이 늙둥이를 얻는 것은 필수 코스가 되었다. 자식 배 아파서 낳았지만 육아의 책임은 고스란히 넘어오는 말 그대로 늙둥이다. 첫째는 필수, 둘째는 선택이다.

늙음에 대한 염오를 학습한다. 대부분의 가족에서 노인은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대상이라고 암암리에 배우게 된다. 실상 자식에게 손이 가는 것에 비하면 그리 공이 드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다는 느낌, 피곤하다는 느낌이 완연하다. 노인들과 함께 사는 경우가 아니라도 이야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생활비를 보내거나 특별한 날에 찾아가거나 하는 과정들도 모두 '일'이다. 가족 내에는 나이 서열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할머니·할아버지보다는 엄마·아빠가, 엄마·아빠보다는 그 자녀들이 더 우대 받는다. 어릴수록 젊을수록 좋다. 늙는다는 건 혐오스럽고 서러운 일이라고 가족 내 나이 서열을 통해 배우게 된다.

무임승차의 기술을 학습한다.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기대는 부담스럽기

도 하지만 반향도 한두 번, 대략 적용해서 살게 된다. 결국 고생하는 것은 부모 쪽이며 그들은 애초에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거나 하게 된다.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때, 자신은 절대 부모처럼 살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혹시 별로 능력 발휘를 못하게 되는 경우라도, 그간 시키는 대로 해왔으니 부모가 어느 정도 '애프터서비스'를 해 줄 거라 기대한다.

각종 이기주의를 학습한다. 가족 내부의 관계에서는 주로 한 사람에게 회생을 강요하는 식으로, 가족 외부와의 관계에서는 가족이 누리는 특권을 통해 이기주의를 학습한다. 선 안쪽에 있는 사람은 그리 아쉬울 것이 없다.

관계의 피상성을 학습한다. 애정은 사라지고 문제만 가득한 관계를 분명 목격하고 있는데도 '소중한 가족' 또는 '가족 사랑' 같은 식의 입장 표명이 지속됨으로써,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덮어 두는 태도를 기르게 된다. 내용이 따라오지 않아도 형식적 틀은 유지된다는 것을 배우며, 문제 해결의 감각을 상실한다.

이 외에도 가족에게 배울 수 있는 교과 과정은 매우 다양한 선택 코스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열이면 열, 잘못된 답안을 가르쳐 주는 반면교사들의 수업이다. 출생과 함께 시작해 20여 년, '가족'이라는 모델을 통해 받게 되는 '함께 살기 수업'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많은 예시들을 남겨 주지만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원천 봉쇄한다.

'누구'들을 기른 것 2 : 연습 기회의 부재

연습 기회의 부재 역시 이십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결혼 전까지 미성

년으로 간주하는 전통 덕분에 함께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 생겨도 신주 단지처럼 쫓겨 감금된다. 애인과 함께 살기는 물론이거나 여자인 경우 친구와 함께 살기도 자칫 나쁜 길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권장 사항이 아니다. 웬만큼 천재가 아니고서는 단 한번의 연습도 없이 '함께 잘! 살기'에 성공할 리 만무하다. 그래서 만나는 족족 사람들은 서로간에 연습이 덜 된, 또는 안 된 상태이고 고전 끝에 실패하기 십상이다. 그나마 이 기회 역시 흔치 않다.

물론 연애를 통해서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나 함께 살기 연습을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부분적이다. 관계 맺기 총론에 대한 연습은 어느 정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생활에서 맞닥뜨렸을 때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면역력을 길러 주지 못한다. 그러나 이 연습이나마 많이 한 사람들은 조금 나은 편이다. 이들을 실제로 함께 살게 내버려 둔다면 학습 효과가 매우 크겠지만 이십대의 독립은 흔한 일이 아니다. 특히 애인이나 친구와는.

연습 기회의 부재는 사람들을 결국 '배운 도적질'인 가족으로 환원시키는 데 일조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즘은 가족에 관해서도 연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딸이 엄마 역할을, 아들이 아빠 역할을 잘 배워서 스스로 가족을 꾸리게 되면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그대로 답습하며 살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일단 부모가 된 자는 평생 부모 역할을 하고 자식인 자는 내내 자식 노릇을 하며 새로운 역할로 이행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 갈수록 높아지는 결혼 연령, 무병장수 시대로 진입, 자식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막대한 투자 등이 한데 어우러져 만든 현상이다. 그 결과, 함께 사는 연습이라고는 가족 내에서만, 그것도 자식이라는 역할만 해 본 게 전부인 대책 없는 '누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미우나 고우나 이들을 받아주는 것은 여전히 가족, 더 정확하

‘누구’들을 기른 것 3 : 페미니즘과 각종 대안들

페미니즘의 수고 덕분에 우리는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섬세해진 비판의 언어를 갖게 되었고 다르게 사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상상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 제도 안에 있어도 가족의 어떤 부분이 비판받아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고 어떤 부분이 나에게 유리할 수 있는지를 재며 게임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결혼이 아닌 동거, 독신, 그리고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 류의 새로운 확대 공동체 등 상상의 폭도 넓어졌다. 가능한 비판과 가능한 대안이 모두 제시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이 역시 이십대의 ‘누구’들을 특징 짓는 요건 중에 하나다. 극소수만 페미니즘을 접할 수 있던 시대를 지나, 부지런히 대안을 찾는 이들에 의해 페미니즘이 확산되는 시기를 거쳐, 이제 대중화된 페미니즘을 교양의 일종으로 섭렵하는 세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답안지를 손바닥 안에 놓고 보게 된 세대에게도, 인생은 간단치가 않다. 비판은 현실적인 문제들, 예컨대 제도와 같은 물리적인 부분의 변화를 쉽게 끌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려는 개개인에게 비용을 모두 떠넘기게 된다. 가장 저렴한 비용만을 지불하고 물질적·정서적으로 자신을 재 생산하고자 하는 대다수에 의해 가족 가치관은 쇠퇴하면서도 가족 제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지금 이십대들은 이러한 과정을 전부 지켜본 세대다. 육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거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 결혼과 가족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가족을 뒷받침하는 제도는 백년, 천년 바뀌지 않는 철

밥그릇인데?

비용 문제를 차지하더라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 글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듯, 함께 도모해 볼 사람도 별로 없다. 의지만이라도 충만한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지만 이리저리한 대안적 모델을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은 더욱 없다. 결국 상처를 주고받으며 연습하고 새로운 방식을 훈련하는 것이 방법이라면 방법인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정말 의문이다. 세련의 극치를 달리게 된 머리는 저 앞에 가고 있고, 전근대적으로 굳어진 몸은 저 뒤에 낙오되어 빌빌하고 있는데 말이다. 열심히 살아낸 오십대 페미니스트들의 결론을 또 한 장의 답안지로 받아들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면, 얼마나 운이 좋으면 이렇게 풀릴 수도 있나 생각한다. 이걸 정말 노력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시대적·개인적 운이 따라 줘야 한다. 우리 세대는 그리 운이 좋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노력해 보아야 하는 것일까?

‘누구’들을 찾아서 1 :

누가 꼭 함께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이 선언문을 마무리해야겠다. 누구랑 함께 살 거냐는 걱정스러운 질문은 이제 사절이다. 우리는 서로 함께 살기에 적합하게 길러진 재목들이 아니다. 누군가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길이 정녕 어렵고 힘들다면 안 가겠다. 아니, 못 간다는 냉혹한 현실을 감히 받아들이겠다. 미래에는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현실을 인정하고 주제 파악하는 것이 첫 단추가 아닐지? 게다가 이 일 말고도 할 일이 첩첩으로 쌓여 있고, 각자 갈

길도 아직 멀다. 그 일부러 잘하고 싶지, 함께 살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데 함께 살기를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함께 살 소양도 못 갖춘 채 딱히 함께 살 만한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데, 남과 함께 살겠다고 매달려 봤자 서로에게 '민폐'다. 서로 불편하게 찌적거리고 에너지를 소모하느니 차라리 독신 가정을 이루며 따로따로 모여 사는 식의 온건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작업 공동체를 잘 꾸릴 수만 있다면 퇴근 후 돌아온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그리 나쁠 것 같지도 않다. 자기만의 방이 자기만의 집으로 확대되는 형태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삶의 어느 부분을 함께 사는 것인가 하는 기준도 대폭 바뀔 필요가 있다. 지금껏 길러진 자질이 사적인 공간에서 함께 살기보다는 함께 살지 못함을 더 선호하게 한다면 따로 살면서 함께 살지 못함에 대해 성찰해 보는 편이 정신 건강에 유익할 것 같다. 사회는 갈수록 개인주의를 조장하고 기존 공동체들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재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급히 해결책을 찾으려 말고 문제 상황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좀 더 내버려 두는 편이 나을 것 같다.

그때까지는 각자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절대 혼자 살기 싫은 사람들은 열심히 누군가를 찾아내고 개조해서 데리고 살아도 좋겠고,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지는 않지만 혼자 사는 것도 썩 내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부모님에게 잘 붙어 살다가 부모님마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홀로 되어 다시 해결책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적극적으로 독신을 선택해도 좋고, 아이를 하나 낳아 파트너 삼아도 좋다. 서로가 함께 살기에 그리 적합하게 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각자 덜 불행해지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러다 보면 다시 몇 번 세대가 바뀌면서 함께 살기에 적합

한 형태로 새로운 진화를 해 낼지도 모르는 일이다. 물론 각자 돌파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가족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대 투쟁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손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이라는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누구’들을 찾아서 2 : 경험자 우대

언제가 되었든 함께 살 누군가를 찾게 된다면 절대 원칙 중 하나는 '경험자 우대' 정책이다. 함께 살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든지, 혼자 사는 동안 삶을 풍요롭게 잘 꾸린 이력이 있든지, 동거를 통해 함께 살기 연습을 많이 했든지, 하물며 연애라도 많이 해서 인간사에 대해 한 깨달음 했든지 하는 식으로 스스로 훈련한 경험자를 절대 우대해야 한다. 관계에 대해 순진 무구한 것은 절대 자랑이 아니다. 여러 관계를 경험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한 사람, 자신의 생활 스타일이 어떤지, 함께 사는 파트너는 어떤 사람일 때 성공 확률이 높은지, 어떤 상황은 절대 못 참는지 잘 알고 있는 상대여야 함께 살기가 즐거운 작업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험을 많이 할수록 위기 관리 능력이 커진다는 점이다. 미래는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워질 텐데, 예측할 겨를 없이 닥친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풍부한 삶의 경험뿐이다. 경험은 절대 에너리가 없다. 그러니 빠르게 인생 행로를 달려가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만나 잘살아 보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쪽 분야의 커리어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지.

‘누구’를 찾아서 3 : 사랑은 이제 그만

결혼이 가장 대표적이겠지만 함께 살 누군가를 연애 상대 중에서 찾는 것은 이제 유행이 지나간 것 같다고 조심스레 진단해 본다. 지금까지야 이성애적 사랑을 바탕으로 가족이 성립하고 자녀를 통해 사회 재생산의 기능을 수행하느라 함께 살기와 사랑이 짝지어 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미 기존 모델을 따르다 실패한 사례들이 이혼을 급증으로 드러내고 있다. 연애 과잉의 사회라 사랑을 소비하는 기간도 훨씬 단축되었고 다 소비했다 싶으면 책임 같은 데 묶여 있으려 하지도 않는다. 새 사랑이 찾아오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사람들. 그래서 연애 상대는 장기간 함께 살 파트너로 적합하지 않다. 번번이 찾아오는 감정의 격랑을 온 생활로 치르며 살겠다는 열정 남녀가 아니라면 말이다.

사랑이 더 이상 장기적인 소일거리가 아니라면 이제 좀 다른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미 활발히 활동 중인 독신자들의 취미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작업을 함께 해 가는 파트너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살 수도 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용감하게 아이를 낳는다면, 아이 한두 명을 어른 네댓이 모여 품앗이로 기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예 기숙 학교를 공동체 형태로 만들어 다양한 세대가 배움을 나누면서 살 수도 있고, 같은 지향을 가진, 소위 ‘운동권’들이 모여 동네 단위부터 바꾸는 식의 실험을 하며 살 수도 있다. ‘고전적인 형태’의 가족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도, 함께 사는 데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살기에 대한 다양한 상상도 이제 다 경험해 보았다. 우리 세대의 ‘누구’들을 기른 조건에서부터 돌파구를 찾는다면 다른 형태의 함께 살기를 현실화하는 것이 점차 가능해지지 않을까?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은 파트너 후보들과 요즘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비엔비(Bed & Breakfast)를 차리는 것이다. 비엔비는 둘이나 셋, 주로 은퇴할 시점의 사람들이 낙향하여 집을 짓는데 자신들이 직접 살면서 방을 몇 개 더 만들어 손님을 받는 것이다. 일종의 민박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 민박처럼 단순히 손님을 묵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집에 정말 손님이 오는 것처럼 환대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단거나 장기로 거주하는 단골들이 있지 않고 찾아오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고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공동체의 구성이 변하는 것. 우리 중 비엔비를 처음 구상했고 아마도 우리 비엔비의 사장이 될 친구는 십 년 내에 비엔비를 차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살고 있다. 그 친구의 비엔비에 한자리 마련해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나 같은 사람들도 십 년 후를 생각하며 품앗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 기반은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함께 살기에 대한 훈련일 수도 있다. 십 년간 이런저런 노력과 연습을 많이 한다면 우리 비엔비의 성공 확률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점철된 일부일처제식 함께 살기보다는 훨씬 더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우리가 귀찮음을 극복하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㉔

도시사막 한가운데서

김희수

오늘 아침에는 한바탕 개미와의 전쟁이 있었다. 벌써 삼 일째. 폭신한 이불 속에서 이제 막 깨어나려던 찰나, 함께 사는 친구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사이쯤에서 지르는 비명에 다시 이불을 뒤집어썼다. 굳이 나가 보지 않아도, 사태가 어찌할지 대충 짐작이 간다. 현관문에서부터 벽을 따라 냉장고의 냉동실 문 안까지, 한 줄로 개미들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을 게다. 부모님 집에서 나와 산 지 사 년째. 어지간한 살림과 세금 계산, 부동산 거래, 은행 대출 등에는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출몰하는 개미떼에는 손을 못 쓰겠다. 나는 스물여덟, 미혼의 독립녀이다.

지금 사는 집은 스스로 마련한 두 번째 집이다. 출가한 지는 사 년이 되었지만, 요즘에 들어서야 겨우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처음에는 단지 집을 나오는 것이 곧 자유며 독립이라고 믿고 시작했다. 그러나 길은 그



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나의 독립은 남자친구와의 동거 생활로 시작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남과 다를 것 없이 지내 오던 나는 대학 졸업을 한 해 정도 앞두고 본격적으로 독립을 결심했다. 집에서는 몰랐지만 대학 기간 내내 연애를 했었고, 애인과 자유롭게 성생활 하기에 집은 언제나 방해물이었다. 학교 다닐 때는 경제적으로도 그랬고 미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먼 꿈으로만 독립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자취를 하고 있었고 나도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하자 그와 편하게 한집에서 살고 싶었다. 나를 구속할만한 결혼은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연애는 많이 하고 싶고, 제발 마음대로 편히 살아 봤으면…….

원하는 사람과 편안히 섹스하고, 편안히 잠들고, 편안히 깨어나는 일을 왜 그렇게 힘들게 숨어서 해야 하는 것일까. 이미 성인이고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박을 하려 해도 눈치를 봐야 한다니. 여관·모텔을 전전하는 것도 돈이 아까웠다. 원하는 때에 마음 졸이지 않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유 역시 집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새 집. 그것은 혼자서든, 사랑하는 사람하고 든 쉬고 싶을 때에는 음악을 들으며 담배 한 대를 피워 무는 것 정도의 소소한 일상에 대한 꿈이었다. 머릿속으로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막상 나가 살겠다는 말을 꺼내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두세 달을 계속 그렇게 속으로만 되뇌고 있었던 것 같다.

‘엄마, 나 나가서 살래. 아빠, 나도 이제 성인이니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래요.’

남들은 부모님과 잘 지내는지, 어떠한지 몰라도 나는 오래 전부터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귀찮고 짜증나게 느껴졌다. 중고등학교 때야 사춘기여서 그랬다 치더라도 대학 다닐 때는 집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모님은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 존재들로 변해 버렸다. 언제나 큰 목소리로 서로를 헐뜯는 부부. 그들의 모든 것이 싫었다. 아버지와는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부터 식성까지 달랐고, 밥을 같이 먹는 것도 불쾌하게 느껴졌다.

“팔레미가 있는데,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냐!”

호통치는 아버지는 소름 돋았다. 마루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아버지가 일을 끝내고 들어오면 눈이 마주치기 전에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버리고 혼자 지내는 식으로 몇 년을 보냈다.

반면 어머니는 이중적이었다. 나에게 아버지한테 잘하라고 하면서도 언제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푸념을 쏟아 내었다. 다른 아저씨와 바람도 피우면서 왜 이혼하지 않는 것인지, 왜 나에게 기대려고 하는지 어머니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가족과의 생활을 그렇게 보내며 졸업반이 되자 집에서는 돈을 벌라고 자꾸 재촉했다. 엄마는 세상 모든 일을 불안하게 보는 것 같았다. 한 번은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

“난 배울 만치 배웠고, 이것저것 못하는 것이 없는 데다 팔자와 관상과 손금에도 굿이 죽지 않는다고 나오니, 제발 돈 벌라는 말만은 하지 마세요.”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너는 조금 쓰고 나머지는 엄마 줘라. 엄마는 돈 많은 삶을 살고 싶다.”

엄마의 대답이었다. 젊을 때 돈을 벌어 두어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 체험한 사람의 딸 사랑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

만, 내게는 '가르쳐 왔으니 이제 집에 돈 갖다 바쳐라.'라는 식으로 들렸고 머는 집에 있기가 싫어졌다. 노골적으로 가계의 부담을 털어놓는 엄마의 인격을 존중할 수 없었다.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에겐 가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모든 게 형식적이고 억지스럽게 보이는 이 가족을 내가 책임질 이유가 있는가. 그보다는 솔직히 감정을 나누고 함께 다독이며 살 수 있는 남자친구와의 동거가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다.

부모님을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좋은 직장을 잡았다면 가난한 우리 집 형편에 도움이 됐을지도 모른다. 나 역시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도 했었지만, 집을 나와야 했다. 그건 이미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의 문제나, 남자친구와 편안히 섹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내 꿈을 짓밟고 돈을 벌 수는 없어. 집에 계속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말라 죽어 버릴 거야. 일찍 독립해서 살아 봐야 앞으로도堂堂하게 살아 갈 수 있어. 가난을 감수하더라도 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자기 능력을 계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들어 버리는 거야. 난 엄마처럼 살 수는 없어…….' 등의 말들이 밤마다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

자신감이 있었고 더 미루기가 싫었다.

'그래, 나도 성인인데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언제까지 부모님 눈치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어느 날 밤, 부모님 앞에서 출가 선언을 하였다. 입에서 뱀돌던 말이 순간 밖으로 나왔다.

"엄마, 아빠, 나 정말 나가서 살 자신 있어. 이제 일도 하고 엄마, 아빠가 보태 주지 않아도 내가 먹고 자는 돈 정도는 벌 수 있으니까."

부모님 눈치를 보며 말했지만, 정말이지 절실했다. 집을 나가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았다. 방도 좁고 학교와 집 사이가 너무 멀어 통학하기도 지친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독립하고 싶다. 이미 독립해서 살 곳도 물색해 두었고, 아는 언니가 잘 대해 줄 것이다 등등.

그때 나는 얼마나 떨고 있었던가. 뜻밖에 부모님은 화를 내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말을 잊으신 듯했다. 동생과 같이 쓰는 방은 실제로 좁았다. 초등학교 일학년, 그 집으로 이사를 왔을 때는 동생이랑 한 방을 써도 공간이 남았지만, 그로부터 십칠 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잘 때는 서로 부대껴 칼잠을 자야 했다.

사실 겉으로는 의연한 듯 말했지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는 언니네 집에 가서 월세 주면서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더 그랬다. 가족의 완강한 반대를 예상했었지만, 의외로 그런 것은 없었다. 나중에 엄마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그때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는 내가 며칠 만에 그냥 돌아올 줄 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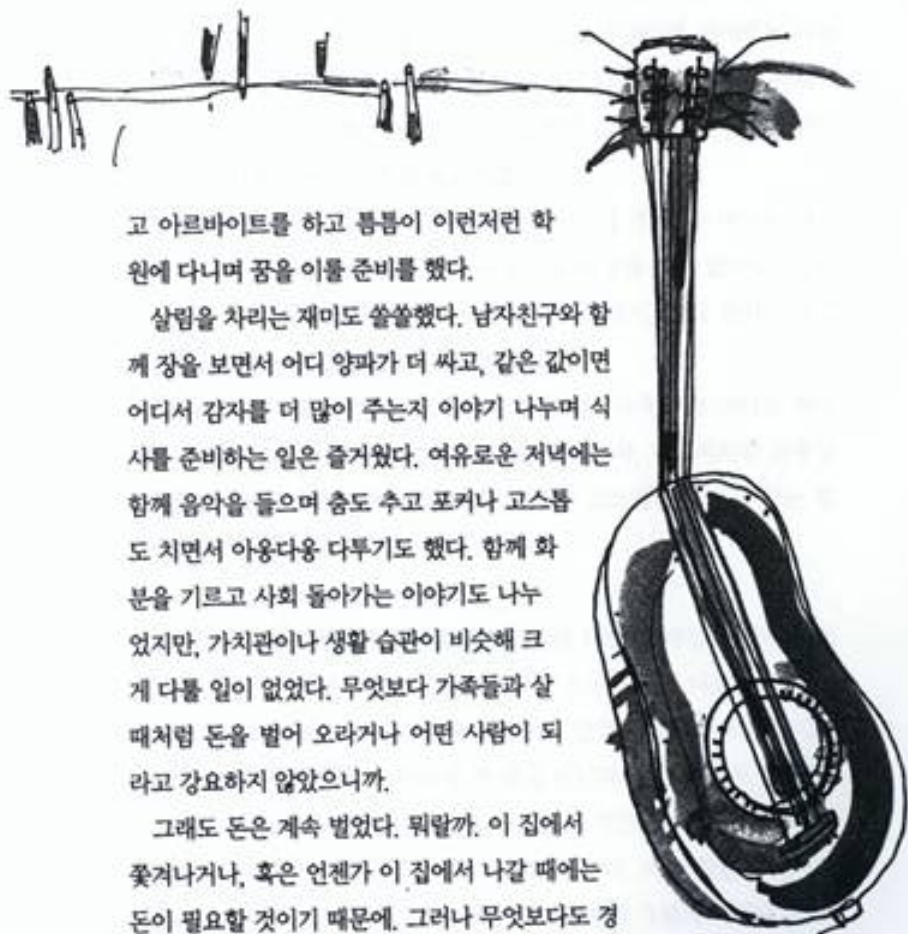
그러나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당시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어느 날 엄마가 내가 사는 집에 찾아오겠다고 할 때 남자친구와 사는 것이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면 그야말로 '머리끄덩이 잡혀' 엄청나게 맞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그건 상상에 불과했다. 이미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었다. 나는 커졌고, 부모님은 그만큼 작아져 있었으므로, 정작 두려운 것은 부모님이 내게 실망하실 것이었다. 부모님에게 별 애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웬지 그런 상황은 스스로 견디기 힘들 것 같았다. 출가 선언 일주일 뒤, 집을 나올 수



있었다.

남자친구의 집으로 짐을 하나씩 옮겨 갔다. 하루, 아홉이 지나도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 아침에 깨어날 때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밤에도 싸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낯설었다. 엄마는 전화를 할 법도 한데 연락이 없었다. 아무튼, 그렇게 첫 출가 혹은 가출이 이루어졌다. 그때는 집만 나오면 내가 대단한 인물이라도 될 줄 알았다. 무려 이십오 년간 의존해 오던 공동체를 벗어나 스스로 삶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이나. 일단 집을 나오니 엄청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 게다가 친구는 내 방을 따로 마련해 주었다. 그 방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갖는 '나만의 방'이었다.

모든 일에 거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밤새 인터넷을 하든, 술을 퍼먹든 상관없었다. 야한 동영상도 보고 한게임 고스톱이나 사천성으로 몇 시간씩 보내기도 했다. 부모님께서 걱정할까 봐 선뜻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행하고 놀았다. 그렇게 일 년 정도는 여유롭고 편안하게 지냈던 것 같다. 생활에 대한 긴장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고, 학교에 다니



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틈틈이 이런저런 학원에 다니며 꿈을 이룰 준비를 했다.

살림을 차리는 재미도 쏠쏠했다. 남자친구와 함께 장을 보면서 어디 양파가 더 싸고, 같은 값이면 어디서 감자를 더 많이 주는지 이야기 나누며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즐거웠다. 여유로운 저녁에는 함께 음악을 들으며 춤도 추고 포커나 고스톱도 치면서 아옹다옹 다투기도 했다. 함께 화분을 기르고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이 비슷해 크게 다툰 일이 없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살 때처럼 돈을 벌어 오라거나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돈은 계속 벌었다. 뭐랄까. 이 집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언젠가 이 집에서 나갈 때에는 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

제적인 것을 기반으로 정신적인 부분까지 남에게 의존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 남자친구와 이견이 생기거나 해서 따로 살고 싶어졌을 때, 돈이 없다면 비굴하게 타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비굴하게 타협하는 것이 너무도 자존심이 상해서, 실제로는 싫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난 이 집이 좋아.'라는 식으로 자신을 기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두려웠다. 결혼해서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아내들이 이견이 있을 때 자기주장을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떠올랐고, 과감히 결단을 내려 이혼을 하더라도 경제적 궁핍 때문에 초라해지는 경우도 떠올랐다.

아,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었다. 주거 공간에선 얌전 살더라도 식비를 비롯한 생활비를 계산해서 매달 친구의 통장에 돈을 넣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학원을 몰색해 다녔다. 그러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했다.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했던 돈으로는 턱도 없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말마다 학원에서 일을 하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선뜻 받아들였다. 남들보다 취직이 쉽게 되었다고 부모님은 좋아하셨고, 나도 좀 안심이 되었다. 난 떳떳하고, 당당하며, 이제부터 진정한 자립을 위한 모든 기반을 마련하였다!

월급이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한데, 그 순간에도 '돈을 벌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골몰했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벌기 싫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떳떳지 못하다는 느낌이 끓이지 않았다. 경쟁에 내몰리는 아이들에 대해 연민이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였다. 적도 많아졌다. 다른 선생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 보였다. 자꾸 치졸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 아무 의미 없는 시절을 보내게 될 것 같았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들 나중에 부자가 된들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돈을 벌려고 직장 생활을 하는 주위 사람들의 지친 눈빛과 아저씨들의 불룩 나온 배, 스트레스에 머리를 쥐어뜯는 사람들. 다양한 방식으로 해고되는 사람들이 넘쳐 나는 시대에 주류 사회로 편입되는 것도 상당히 혜택받은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내내 불안하고 겁이 났다. 젊은 마음은 이렇게 소리쳤다.

'돈을 벌어 무엇 하리. 그저 현재를 즐기며 살 테다. 돈 버느라 버리는 시간과 정력과 내 청춘은 누가 무엇으로 보상해 준단 말이나! 내 하고픈 것 하며 살다 보면 언젠가 뭐라도 되어 있겠지. 그럼 춤이나 추고 노래나 하면서 돈도 좀 만지면서 살아야겠다.'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거나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식도 희미해지고, 그냥 그렇게 쫓 살면 되겠다 싶었다. 결국, 아버지처럼 온종일 텔레비전을 보거나 어머니처럼 종일 한게임 고스톱을 치거나 하는 일에 쉽게 빠져들었다.

편안한 삶, 그것은 기분 좋은 상태였지만 독립도, 타인과 함께 살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 독(毒)이 되어 온몸에 퍼져 나갔다. 문제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깊은 의존의 늪에 빠져 있었다. 연애에 의존적이었고 술에 의존적이었으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디며 한 학원 일도 많이 미숙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남자친구에 대한 의존이었다. 심지어 내가 의존적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더는 학원에 나가지 않았고, 삶의 목표도 호지부지되었다. 언젠가부터 그렇게 되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받아 주고 이해해 주며 위로해 주는 누군가에 의해 독립의 의지를 잃어 버렸다.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내 삶을 꾸려 가겠다고 계획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사는 것으로 불시착해 버렸다. 나는 자꾸 안전하고 온화하며 따뜻한 곳으로 도피하였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고, 그런 시간을 잘 보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더는 집 밖에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배우고 싶었던 것들도 등한시하고, 친구들도 얼마 없고, 언제부터인지 끼니때마다 술을 마시고 있었다. 대학원에 진학한 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하게 비틀어져 있고 많이 멍청해졌고, 세상사에도 무관해져 있는 반면 감정의 기복은 심했다. 그제야,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정말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 년 반 동안 같이 지내던 남자친구도 내 무절제한 생활에 많이 지친 상태였다. 당장 살 집을 구하려고 무작정 돈을 버는 데 모든 시간과 열정을 보냈다.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와 방세를 좀 보태고 나면 늘 남는 듯 마는 듯했다. 보증금 삼백만 원을 다 모으기 전까지 그냥 같이 살자던 남자친구의 권유를 뒤로하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고시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때 느낀 시원함과 피폐함을 뭐라 말해야 할지. 일단, 이제 모든 것을 진짜 혼자서 한다는 것이 편했다. 살림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누군가의 감정에 기대지 않는다는 것은 웬지 모르게 자신이 강해진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마냥 좋을 수는 없었다. 돈이 급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 몸이 망가졌고, 한창 바쁠 때는 밤마다 토할 것 같았다. 고시원 생활도 만

만치 않았다. 쪽방보다는 깨끗하고 그나마 안전해 보여서 선택한 것이었지만 어떤 고시원이든 그 공간을 확보하는 텃새들이 있기 마련이다. 아침 여섯 시에 따르릉 알람을 맞춰 놓는 종족들이 있는가 하면, 원래는 이어폰을 꽂으라고 규정에 나와 있었지만 새벽까지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지 않고 그냥 틀어대는 종족들도 있었다. 그때는 눈 뜨면 일하러 갔다가 눈 감을 때쯤 고시원 작은 방 한 칸에 돌아와 좁다란 슈퍼 싱글 매트리스에 누워 새벽에 텔레비전에서 하는 스타크래프트 중계를 보다 잠들었다. 이때 특히 남성 중심적이고 군사주의적 감성의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다. 아직도 후유증이 많다. 잠은 무조건 차렷 자세로 잤다. 깨어나면 복도 쪽 벽에 있는 조그만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는 게, 비교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수감 생활이 이렇까 싶었다. 나 자신이 기계나 벌레 같았다.

도시 변화가의 소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상가 쪽대기 고시원 방은 그렇게 피폐했다. 일화천금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백마 탄 왕자 따위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한 날이면, 새벽에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며 MP3로 음악을 듣다가 내려오고는 했다. 어느 날 옥상으로 담배를 피우러 올라온 남자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불러낼 친구도 없이, 혼자 고시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젊은 여자를 보고 저들은 뭐라고 할까. 도시의 사막 한가운데서, 번쩍이는 네온사인 간판들 속에서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고 나는 한없이 작았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니 돈이 대충 모였다. 친구들에게 꾸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서 옥탑방을 월세로 구했다. 창문이 벽의 반을 차지했지만, 겨울에 찬바람 들어올 것은 생각하지 않고 탁 트인 시야가 그저 좋아 선택한 방이었다. 겨울에 가스 요금 엄청 나왔다.

그래도 그야말로 독립, 홀로서기가 시작되었다. 계약이 끝나고 입주 날이 되자 당장 근처 재활용 센터에 갔다. 거기서 제일 싼, 내 키만 한 금성 냉장고를 먼저 샀다. 이제는 각종 라면과 인스턴트식품들과 결별이다. 음식다운 음식을 해먹고 인간답게 살아야지. 물론 텔레비전은 사지 않았다. 옷장, 서랍장, 책장을 아저씨들이 옥탑방까지 공공대며 옮기는 동안 집 앞 슈퍼에서 주스를 사와 한 잔씩 따라 주었다. 제법 주인 행세를 하며 “이쪽에 놓아 주세요, 저쪽에 놓아 주세요.” 하고 말했다.

신기한 일이었다. 역시 돈이 있다는 것은 혼자 사는 여성에게 그 무엇보다 든든한 배경이었다. 이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하려면, 그러면서도 비참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으려면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이 일 순위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은 얼마간의 치출함과 스트레스와 피곤을 대가로 지불하고 얻은 것이다. 세상이 치사하게 느껴지고 그것을 평생 감내하며 살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경제적 독립은 중요한 것이었다. 당장 이곳은 내가 누군가를 부르지 않으면 영원히 혼자 있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란 생각에 한없이 들떴다. 내 삶은 비로소 독립적이다. 경제적 독립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독립이다. 기대지 않고 스스로 고민하는 첫째, 부모와 남자친구로부터 탈출하여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첫째.

집들이를 했다. 그 무렵 사람들을 집으로 많이 초대했었다. 내 당당한 독립을 자축하기 위한 마음 한편으로 아직 독립하지 못한 또래들에게 적잖은 과시욕도 있었던 듯싶다.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의

외로 사람들은 ‘그 정도 보증금과 월세에 이렇게 꼬진 방을 구했느냐?’ 싶은 표정을 애써 감추는 분위기였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집의 구조를 신기한 듯이 둘러보면서 밥은 어디서 해먹느냐고 물어 왔다.

“여기, 여기가 욕실 겸 부엌이야.”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서는 더없이 훌륭하고 보기만 해도 뿌듯한 공간이었으니까.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싼 방. 옛날 집이어서, 그리고 옥탑방이라 화장실이든 부엌이든 제대로 된 것은 없었지만 혼자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고시원 생활에 비해 천국이었다. 칠 층까지, 두 다리가 저리저리하도록 계단을 올라가도 괜찮았다. 다리가 건강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부모님을 불렀다. 아버지는 끝내 그 집에 오지 못했다. 두 분이 먹고살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아버지는 계속 운전 일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호프집 운영을 하지 않는 낮에 잠시 들르시고는 했다. 어머니는 계단을 올라오는 사이 벌써 지쳐 있었고, 조금은 실망한 듯했다. 그래도 널찍한 방에 들어서자 곧 기분이 좋아지셨다.

“엄마, 어때? 방 괜찮지?”

“아이고, 좀 더 큰 걸 사 올 걸 그랬네…….”

어머니가 들고 온 카펫은 내 방의 절반만 한 크기였다. 차를 끌어 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주로 마시는 커피 믹스는 없고 원두커피만 있었다.

“엄마, 집에 커피가 없네.”

“차 애써 끓이지 마, 안 마셔도 괜찮아.”

냉장고를 열고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내 드렸다.

“이제 이번에 산 냉장고야? 아휴, 가전제품은 돈이 좀 들더라도 새

걸 사야 하는데…….”

어머니는 냉장고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했다. 내 독립에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 아프신 듯했다.

“이거 남아 보여도 잘 돌아가. 고장 나면 재활용 센터에서 공짜로 A/S도 해 준다고 했어.”

나는 힘주어 말했다. 어머니는 내 궁색한 살림을 뒤로하고 칠 층 계단을 천천히 쉬어 가며 내려가셨다.

그렇게 시작된 홀로서기. 직장도 안정되고, 살림살이할 시간도 늘어났는데 이상하게도 방의 모양새나 생활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았다.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 방은 구했지만, 이전보다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보증금 때문에 친구에게 백만 원을 빌렸고 그것을 갚으려니 살림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내 물건이 필요했고, 벽에 못 하나를 박으려 해도 옆집이든 아랫집이든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내니 드라이버, 망치, 펜치 등을 다 사야 했다.

고장 난 물건들에는 다 돈을 들여야 했다. 동네 재활용 센터에 진열되어있던 냉장고 중에 가장 싼 것을 알뜰하게 잘 장만했다고 믿었는데, 그 냉장고는 계속 고장이 나 음식들이 썩어 나갔다. 온 창문을 다 열어 놓고 썩은 음식들을 음식 쓰레기봉투에 꾸역꾸역 집어넣을 때, 그 냄새! 어머니가 담가 주신 김치가 도저히 먹을 수 없게 쉬어 버려 그 역시 음식 쓰레기봉투에 넣을 때는 어머니가 냉장고를 보며 한숨지었던 일이 떠올랐다. 자취생의 보물인 집 김치를 이렇게 버려야 한다니. 당장 재활용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또 걸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아저씨들은 오지 않았다. 환상이 깨어져 나갔다.

게다가 집은 그 자체로 말썽을 부렸다. 장대비가 며칠째 이어지던 어느 날, 새하얗고 깨끗하게만 보이던 벽지에 곰팡이가 영역을 넓혀 가면서 뚝뚝 물을 떨어뜨렸다. 세숫대야를 물 떨어지는 곳에 받쳐 두고 주변을 걸레로 닦아야 했다. 세상에! 칠십 년대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 구질구질한 처지는 뭐란 말인가. 처음 방을 계약할 때, 독립하는 여성들을 위한 십계명 같은 글들을 보고 꼼꼼히 따져 묻고 똑똑하게 계산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싼 방은 싼 이유가 있었구나. 이 배신감. 완전히 속은 것이었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져 갔다. 들어와 산 지 두 달이나 됐을까. 변기에서 꼴꼴한 냄새가 올라왔다. 분명히 처음 계약할 때는 물도 시원하게 내려가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다. 주인이 있는 앞에서 변기 물도 내려 보고 수도도 틀어 보고 확인을 다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어느 순간부터 불쾌한 냄새가 올라왔다. 주인이 미웠지만, 이 역시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세척제를 넣어 보고, 식초도 넣어 봤다. 잠깐 냄새가 사라지더니 다시 났다. 모든 문제는 그런 식으로 갑자기 터져 나와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살림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혼자서도 얼마든지 척척 해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다. 낡고 좁은 집이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 집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으니까. 그러나 곧 그런 문제가 왜 터지는지 알 것 같았다. 물론 더 비싼 집을 구하면 이런 문제가 덜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 있는 집과 없는 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일과 중에 집을 치우는 시간은 밀린 설거지를 하는 십 분 정도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바닥을 쓸고 겨우 걸레질을 했던 게 생각났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날마다 청소를 잘하고 산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

지 않았다. 탁자에 먼지가 쌓이는 속도를 보고 알았다. 먼지는 정말 빨리, 하루 이틀 사이에도 뿌옇게 쌓였다. 언제나 깨끗한 집은 매일 같이 청소를 하는 집이었다. 빨래는 일주일이면 잔뜩 밀렸다. 좁은 부엌 겸 욕실의 가장 큰 단점은 세탁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손빨래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처에 빨래방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아늑한 공간을 만들기까지 숨겨진 노동이 얼마나 많아야 하는지, 그때는 몰랐다. 가끔 들렀던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설거지부터 빨래까지 싹 해 놓고 가시기도 했다.

부끄럽게도, 내 입는 것과 먹는 것에는 별다른 노동을 들이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을, 언제나 남의 손에 기대어 살아왔다는 것을 그제야 어렵게 알게 되었다. 여성에게 과중한 가사노동이 부과된다는 사실에 발끈해 왔지만, 정작 나는 그런 노동을 해 온 적이 없었다. 지금껏 나 자신의 몸을 간수하는 일조차 동료 여성인 엄마에게, 혹은 동료 남성인 남자친구에게 전가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그토록 아버지를 혐오했으면서도, 그런 면에서 아버지와 똑같았다는 사실에 문득 가슴이 싸해졌다.

아무튼, 집에는 뭔가가 잔뜩 쌓여 가고 손에는 갈수록 잡히는 것이 없어졌다. 월말이면 통장 잔고가 떨어지고 쌀독에 쌀은 금방,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떨어졌다. 그리고 마음이 자꾸 허해졌다. 돈을 벌면서도 하고 싶은 공부나 문화생활을 놓치지 않으려면 두 배 세 배로 더 부지런해야 했다. 물론 나는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말았다. 혹은 그런 생활은 내 경제력에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았다. 생활을 든든히 한 후에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믿었지만, 먹고사는 일만으로도 피로했고 멀어지는 꿈들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자니

사는 게 허무했다.

이런 순간들에 대해 사람들은 외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열심히 살았는데 이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살아도 원하는 삶을 끝끝내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때, 돈벌이에 끌려가느라 꿈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어버린 후, 지나간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을 때, 그렇게, 인생의 한 부분이 텅 비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올 때.

그 후 다시 두 해가 흘렀다. 지금은 모든 가사 일을 그냥 한다. 별 외로움도 느끼지 않는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지만 조금씩 생활을 잘 짜나갔다. 어느 순간 가사 일이 몸에 붙으면서부터는 그것을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 보증금을 조금 더 모아 세탁기가 들어갈 만한 큰 욕실이 있는 월세가 더 비싼 집을 구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재미있는 일은, 일단 집을 잡아 놓고 함께 살 사람을 구했더니, 내가 처음에 집을 뛰쳐나온 것과 비슷하게 처음으로 독립을 시도하는 친구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다. 방이 두 개여서 나는 작은 방을 쓰고, 친구에게는 큰 방을 주어 월세를 함께 부담하며 살고 있다.

친구와 함께 살게 되자 남자친구와 동거할 때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밥도 같이 지어 먹고 청소도 같이 하고, 습관이 되니 청소가 그 나름대로 재미있기도 하고, 안 치우면 더러워서 못 살겠다는 생각부터 드니 일단 다행이다. 친구에게 방 한 칸을 내어줄 때, 어떻게든 남자친구를 만들어 다시 동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 만

한 사건도 벌어지지 않고 그런 사건이 있을 법한 일들도 은근히 피하고 싶은 것이, 스스로 사랑에 대해 정리할 시간이 아직 필요한 것도 같다.

사랑이든 섹스든 꿈을 위한 어떤 활동이든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홀로, 혹은 남자친구와 함께 살아야만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다 사라졌다. 지금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미 자유로워진 것일까. 아니,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살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그냥 친구. 각자의 꿈이 있고 각자의 생활이 있는 그냥 친구가 이 집에서의 생활을 지지해 나가기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은 한다. 설거지든, 청소든, 돈 버는 일이든, 자기만의 꿈이든 그것은 자기의 몫인 만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홀로 서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힘을 얻고 각자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독립적으로 함께 사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아니, 독립적으로 살아야만 가능한 함께 살기라고, 그래서 함께 사는 독립이라고.

얼마 전부터 잃어 버렸던 목표도 다시 세우고 글도 종종 쓰고 혼자 공부도 간간히 하면서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코스를 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다. 이번 집을 구하느라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일할 계획도 세워 두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어머니를 나의 새 집으로 모시고 와 보여 드렸다. 이번에는 아버지도 함께였다. 냉장고도 신형으로 사고, 세탁기도 들여 놓았다. 물론 재할용 센터 출신의 것들이다. 그래도 어머니의 표정이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아버지는 이 방 저 방 욕실 문을 열어젖히고, 뭐 고장 난 곳은 없는지를 살피셨다. 그리고는 부모님 집에 남아 있던 책들과 옷 짐을 다 옮겨왔다. 그 짐들을 그냥 내 옛날 방에 두면 안 되나 싶었지만, 어머니의

계획을 듣고는 당장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이제 너희도 다 나가 살고 하니까, 작은 방을 딱 치워서 엄마 방을 만들까 해.”

엄마만의 방! 이것은 또 하나의 흥분되는 일거리이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내심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엄마가 자기만의 방을 갖는 것은 몇십 년 만의 일일까? 생각해 보니 결혼 전에는 가족들 사이에서, 결혼 후에는 또 다른 가족들 사이에서 엄마는 한 번도 자기만의 방을 가지지 못했다. 엄마는 나와 같은 여성이지만 나보다 훨씬 늦게 첫 독립을 하게 된 것이다. 자식들이 다 홀로 서서 자리를 잡고 나서야 가능한 오십 대 중반 여성의 독립.

어찌 됐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경제적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다시 기대고픈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건 웬지 수치스럽고 두려운 일이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사방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다.

지금 나는 독립에 대해 한 치의 후회도 하지 않는다. 혼란스럽고 방황하던 삶들에 대해서도 후회 같은 건 없다. 그 덕에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엄마가 어느 날 들이닥쳐도 집안은 깨끗할 것이고, 숨겨 둔 남자친구도 없으니 마음이 편안하다. 다만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걱정인 것 같다. 그건 큰 문제는 아니다.

집을 바꾼다거나 혼자 산다고 다 자립은 아니었다. 돈과 용감함만으로는 변화가 오기는커녕 퇴행의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두 가지가 있다면 일단은 시도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나처럼 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독립의 경험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 전체를 돌아보고 새롭게 살아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리라 본다. 그리고 경제력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힘이다. 말 그대로 자립은 스스로 선다는 뜻일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은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있다. 지금의 내 과제는 자신에 대한 애정과 엄격함을 갖는 것, 생활의 기반이 되는 직장 일을 좀 더 안정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제 내 꿈과 돈 버는 일은 굳이 둘로 분리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가 있다. 삼 일 전부터 나타난 이 개미들을 치우는 것. 이놈들은 도대체 어떻게 치워야 하나. 검색 사이트에서 개미 퇴치법을 찾는다. 봉산과 소금, 계란 노른자들로 없앨 수 있단다. 오늘 밤에는 약국에 들러 봉산 한 봉지를 살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개미들에게 저 멀리 어느 땅속으로 주거 이전을 요청할 것이다.

• 김희수

스물여덟, 학원 강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극히 소심하고 평범하나, 남들은 나를 '사고몽치'라 부른다.

이사하던 날

이육임

이사하던 날

이육임

명줄 이어줄 솥단지 하나
그릇 몇 개 수저 몇 개
책 몇 권 그거 챙기는 동안
먼저 떠난 것은 그녀의 마음이다

자신에게서 벗어나
어느 잠에 머물고자 한 것은 아니었는데
떠난다는 것에
그저 떠난다는 것에 전율하며
흠뻑 앞서가는 마음

떠나는 것이 동등 떠다니는 것은 아니련만
다시금 어딘가에 정착해야 하는 것이련만
우선은 멈추지 않는 바퀴인 양 소리소리 지르며 굴러간다

봄에 떠나서 다행이다
지나치는 것마다 봄빛 찬란하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되겠지
새순이 돋고 새 희망이 꽃피겠지

그녀를 주도해 온 과거와의 인연 줄
발목에 친친 감겨있다손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말자
죽기 살기로 치면 무엇인들 못 하리



홀로 강화에 들다

나는 예전부터 서울 생활이 싫었다. 답답한 공기, 흠을 밟아 볼 수 없는 거리, 우중충한 하늘. 어느 곳 하나 맘에 드는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더 나이가 들어 직장을 그만두면, 가까운 시골에 가서 땅 패기 일구며 살겠다는 소박한 꿈을 간직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다. 전에는 같은 생각이었지만, 수술 후 남편은 서울을 떠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자신에겐 최우선이 병원과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다. 큰 수술을 겪은 사람이니 그럴 만도 하다 싶지만 사실 그럴수록 흠과 가까이, 깨끗한 공기와 바람 그리고 맑은 물이랑 가까이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어긋나도 영판 어긋났다. 언제까지고 남편의 마음이 변하기

만 기다리며 살아가기에는 이제 너무 지쳤다. 서울 살이도, 남편도, 숨이 막히게 답답하여 견디기 힘이 들었다. 답답함을 풀어 보고자 잠시 여행을 떠났다 돌아온 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하고 강화도 유람을 하러 나섰다. 하필 꽃샘바람이 불고 날씨가 고약해서 차 밖으로 나가보기가 어려웠다. 아직 꽃철도 이르니 눈으로만 강화 일주를 하다 돌아갈 양으로 광성보를 지나고 함허동천 지나고 동막 유원지에 다다랐다. 군데군데 전망이 좋다 싶은 곳마다 펜션이나 전원주택, 요식업소가 들어서는 것이 하루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며 몇 구비를 더 들었다.

“이런 곳에 집 짓고 살면 절로 살찌겠어잉!”

“그러게나 말이다. 이렇게 전망 좋은 곳에 살아 볼 날이 있을까?”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도 아니게 뭐.”

“느그 형부는 서울 떠나면 죽는 줄 아는 디야.”

“그럼 내가 여기 어디에 터를 마련해 볼까? 비싸서 살 수 없으면 셋방이라도 얻어 살지 뭐.”

이렇게 시작된 말이 한두 집 부동산에 들르게 되었고, 그 중 한 부동산에서 맘씨 좋게 생긴 아저씨가 우리를 손짓해 불렀다.

“강화에서 셋집 찾는 사람 처음 봐요. 일단 한 번 들어와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외지 사람은 집이고 뭐고 살 수가 없구먼요.”

“여기 오셔서 사시게요?”

“지나다 맘에 드는 곳이 많아 살고 싶어졌걸랑요.”

그렇게 얘기를 트고, 아저씨는 여기저기에 전화를 해서 구경을 시켜 주었다. 집 자체는 썩 맘에 들지 않았지만 돌이 아주 예뻐 텃밭 가꾸며 살기에는 안성맞춤인 집 하나를 점찍었다. 인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사 둔 거라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 고쳐서 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연락을 취해 봤더니 내놓지 않는단다. 그 집을 둘러보고, 전망 좋은 곳에 날아갈 듯 환하게 지은 펜션도 구경하고 나서야 슬슬 배가 고파져서 이젠 돌아가자며 부동산을 나왔다. 읍내를 향해 이십여 킬로쯤 갔을까, 유황오리 집에서 오리 한 마리를 시켜 놓고 늦은 점심인지라 허천나게 먹고 있는데, 아까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꼭 보여드릴 만한 곳이 한군데 있다면서, 일이 되려고 그랬던지 돈도 안 가지고 간 주체에 다시 되돌아가서 보았더니, 동막 해수욕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새로 지은 작은집의 이 층을 보여주는데 나보다 언니가 더 맘에 들어 했다.

뒤에는 높고 낮은 산들이 병풍을 두르고, 앞에는 아담한 들판과 그 너머에 바다가 아련한 전망 좋은 집! 딱 한 가지, 길갓집이라는 점을 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집이다. 그래도 마당이 넓고 이 층 창 앞에 소나무 두 그루가 운치를 이루고 있어 두말없이 계약을 해버렸다. 보증금 천만 원에 수도 요금과 전기 요금을 포함해서 월 이십이만 원. 비록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 주머니 사정이 크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어찌어찌 계산 맞추고 알뜰하게 살아가면 될 것도 같았다.

간도 크고 통도 크지. 남편에게는 일전에 몇 차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어디 공기 맑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만 비춘 상태인데, 멀쩡 계약을 해놓고 나니 걱정이 앞섰다. 그래도 뭐, 내 인생 누가 대신 살

아 줄 것도 아닌데 이쯤 해서 ‘나’를 찾아 떠나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다. 아니, 꼭 그래야 할 것만 같았다. 어쨌거나 그 다음 날로 계산을 끝내고 주소도 바로 이전을 하고 저녁 먹는 자리에서 남편에게 이실직고를 했다. 그리고 이사 들 준비를 서둘렀다. 이사라야 일주일의 절반은 서울에서, 절반은 강화에서 보낼 것이니, 아이들 자취하는 수준이지만, 이제 나는 강화인이다. 적어도 만 이 년간은.

꿈을 싣는 교실

“아가야! 엄마가 맛있는 것 사올게 울지 말고 기다려!”

여자아이가 인형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라면 어렸을 때 누구나 해 봤을 법한 말이다. 상상의 세계에서 엄마가 되어 보는 것이다. 어른들이 하는 것을 알게 모르게 눈여겨 봐 두었다가 자신이 엄마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이다. 엄마뿐 아니다. 자기가 읽었던 책 속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한다. 어렵지 않다.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놀이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아이들은 현실 세계와 상상의 세계 두 곳에서 살고 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상상의 세계를 잃어 버리고 현실 세계,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세계에만 집착하게 된다.

상상의 세계는 그 누구도 가늠해 볼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높다. 상상의 세계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넘볼 수도 없다. 상상의 세계는 그 안에 있을 때만큼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충분히 만족스럽다. 사람들은 그런 상상의 세계를 잃어 버리게 되면서부터, 만족이 없는 현실 세계



에서 아동바등 씹박질도 하고 이래저래 고통도 받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한다. 어린 시절 가지고 있던 그 세계는 누가 앗아간 것일까? 아니면 나 스스로 버린 것일까?

초등학교 시절에 <소공녀>라는 동화책을 읽었다. 책 속의 어린 주인공 세라는 아버지의 부(富)로 학교에서 공주님 대접을 받다가, 갑작스런 아버지의 비보로 말미암아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민천 여사와 학생들의 끊임없는 박해 그리고 힘든 일상 중에서도 세라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상상의 세계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소위 '셈치는 것'이다. 딱딱한 빵 한 조각에 차가운 우유 한 모금이 전부인 식탁을 갖 구워낸 말랑말랑한 빵과 푸짐한 과일, 그리고 따끈한 우유가 있는 식탁인 셈 치면, 딱딱한 빵이 말랑말랑한 빵처럼 느껴지고 차가운 우유가 따끈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동화 <소공녀>는 이웃 사람으로 하여금 세라를 돕게 하고 아버지와 다시 만나는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짓는다. 하지만, 내가 지은이라면 얼토당토않게 아버지를 만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라가 계속해서 '셈치는' 삶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나중에 좋은 학교를 운영하는 마음 넉넉한 스승이 된다는가, 자신의 삶을 보란 듯이 개척해 나가는 여자가 되는 것으로 끝을 맺었을 것 같다. 어찌 됐건 그 책의 주인공 세라에게서 '셈치는 것'을 배웠다. 배웠을 뿐만 아니라, 어른이 다 되어서까지 그 책을 읽고 읽고, 또 읽었다.

'셈친다.'라는 것은 곧 꿈을 꾸는 것이다. 상상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상상하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내게 닥친 어려움이나 고통을 극복하고 난관을 헤쳐나간다는

것이다. 말이 씨가 되듯이 간절한 상상 또한 씨가 되어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한다. 뭐가 이뤄보겠다 염원하며 날마다 그 소망이 달성되었을 때를 상상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뤄 나가노라면 안 될 일이 뭐 있겠나. 딱 그것은 아니더라도 그 가까이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상상이 단지 상상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닦치는 어려움을 '셈치는 것'으로 극복하며 조금씩 나아간다면, 마침내 고지에 다다를 수 있지 않겠나.

나는 어려서부터 꿈꾸는 아이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와 내 언니는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홀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책을 많이 읽었다. 특히 고전을 많이 접했다. 그 덕에 상상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상상의 세계에서 꿈을 키워나갔다.

우리 동네는 전남 함평에서도 외지고 고루한 부락이었다. 우리 자매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농사꾼나 짓는 집에서도 딸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자도 거의 없었고, 학교에 보냈다가 언문을 깨우칠 때쯤 되면 자퇴를 시켰다. 그런 동네에서 부잣집도 아니고 더군다나 부모도 없는 집 여자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중학교에서 그치지 않고 고등학교, 나아가 대학교를 졸업하기까지 할머니의 한량없는 사랑을 발판 삼아 우리는 상상 속의 삶을 향해 돌진했다.

가진 것이라곤 꿈 하나밖에 없던 무일푼의 남자를 만나 갖은 역경을 무릅쓰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일이며, 남들이 생각하기엔 답답한 환경에서도 성공하리라는 꿈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잘도 견뎌냈던 시기며, 생활고를 이겨내고자 아이들을 셋씩이나 기르면서도 맞벌이를 하던 일이며……,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지나온 날들이 참으로 대견하다. 언감

생심, 꿈이 없었더라면 고아인 우리 자매가 그 시골을 벗어나 도회로 가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을 것인가! 지금쯤 여느 친구들처럼, 주위 사람들이 그러하듯 시골 농부의 아낙이 되어 있겠지. 물론, 농부가 되는 것이 어떻다는 얘긴 아니다. 지금의 나는 되려 귀농을 꿈꾸고 있으니까.

이십삼 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던 나는 반 아이들과 함께 열세 권의 학급 문집을 만들었다. 문집의 제목은 한결같이 <꿈을 심는 교실>이었다. 햇병아리 시절 두 해 동안은 그냥저냥 교사라는 것에 적응하느라 애쓰다가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은 후에 퇴직을 했었다. 그 후 시험을 치러 복직을 하게 되었고 칠팔 년간은 우리 집 애들 돌보라, 서방 뒷바라지하라 눈코 뜰 새 없이 지냈다. 그리고 한숨 돌리며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된 후부터는 십삼 년간 꾸준히 학급 문집을 만들었다.

학급 문집을 만든 동기는 말할 것도 없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자'는 데 있었다. 그 꿈을 심어주고자 한 달을 주기로 토요일 오후마다 아이들과 함께했다. 첫 주에는 꿈 발표회를 했고, 둘째 주엔 산행이나 고궁 또는 문화재 관람을 했다. 셋째 토요일엔 양로원을 방문하는 등의 이웃 돕기를 했고, 마지막 토요일엔 글짓기를 했다.

아이들이 발표한 자신의 꿈과, 그 꿈을 이루고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글짓기 시간에 지은 글,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혹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주는 편지 등을 문집에 실어 학년이 끝날 때 한 권씩 나눠 주었다.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를 교사인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수시로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대화하는 가운데, 잘하는 일이 있으면 "과연 장래 과학자 김성호답구나!" 라고 말해 주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고, 자신의 꿈을 이뤄 가는 데 도

음이 될 만한 말이었다. 행여 나무람을 받을 짓을 하는 아이에겐 “어라! 변호사가 될 주연이가 그런 행동을 해서는 되겠나!”라고 말했다. 아이가 꾸중을 들었다는 생각에 앞서, 자신의 앞날을 위해 나쁜 행동을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랐다.

내가 꿈꾸는 반 아이들. 내 반 아이들이 꿈꾸는 자신의 미래. 지금쯤 그 아이들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아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꿈을 이루었거나,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리라 믿는다.

나이 순에 이대로 소멸해 버릴 것인가

꿈을 꾸고, 꿈을 가꾸고, 꿈을 이루며 살아온 삶이기에 내 삶을 후회한다든가 돌이키고 싶다는 생각 따윈 거의 하지 않은 채 살았다. 천성인지 나에게는 물욕이나 명예욕이 별로 없다. 먹고 입고 쓰는 데 부족하지만 앓다면, 좋아하는 일 하면서 좋은 벗들 사귀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남편과 함께 산행도 다니면서 오순도순 지내는 것이 지금의 내 꿈이다.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백여 평 남짓한 텃밭에 채소 심고 가꾸어 이웃과 나눠 먹는 일과, 마음에 맞는 벗들이랑 가끔 여행하며 또는 내 집에 초대하여 정을 나누는 일이다. 또 좋은 책을 접하는 일과, 되지도 않는 글이지만 글 쓰는 일 정도이니 이루지 못할 것도 없다.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선이었던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점을 빼면.

1998년. 그해 여름.

남편의 뇌수술로 우리 부부 사이가 이상해지기 전까지, 텃밭 가꾸는 것 말고는 나의 꿈이 곧 현실이었으니 남들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다. 자녀들 제 갈 길 찾아 잘 살고 있지, 주말이면 남편과 이 산 저 산을 섭렵하고 다니지, 친지나 친구들이 많아 모임도 잦지, 어디서나 좋은 사람들이라는 평도 받지, 뭐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삶이었다. 이제 남편이 직장 생활을 마치면 서울 근교에 텃밭이 딸린 집을 장만하여 휴과 생활 하며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마지막 남은 꿈이었다.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조출한 꿈이 산산조각나 버릴 줄 짐작이나 했겠는가! 뇌수술 후의 남편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듣는 것도 싫어하고 보는 것도 싫어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어쩌면 다섯 살 어린아이 같다고나 할까. 남편의 입으로 “예전의 천사 같은 아내가 악마로 보인다.”라고 표현할 만큼 내가 싫다는 걸 어쩌랴. 눈앞에 아내가 얼씬거리는 것조차 싫은 걸 어쩌랴. 아내의 목소리도 모습도 다 싫은 걸 어쩌랴!

그러니 ‘서울 근교에 텃밭 딸린 집’은 물 건너간 일이 되고 말았다. 대화가 단절된 부부. 손은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는 부부. 처음 몇 해는 꿈이라도 꾸었다. 애원도 해 보고 기도도 해 보고 싸움도 걸어 봤다. 그러기를 오 년 이상 넘기고 나니, 이제 더는 꿈이고 뭐고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다. 어느새 ‘내 인생 오십에서 이대로 소멸해 버리고 말 것인가.’ 하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었다.

갈매기

이옥임

그날

내가 얼마나 날고 싶어하는지 단방 알았다

갈매기 한 마리

하얀 자유를 날갯짓한다

바다 한가운데 놀러왔은

유조선까지 내닫기도 하고

돌 섬 나무 꼭대기 넘어

끝 간데없는 바다 위를 비상하다가

곤두박질로 수면에 얼굴을 묻어도 본다

아픈 바람 불어와 눈 감으면

생상사 잠시 비켜서서

끼룩끼룩 울어도 본다

끼룩 끼룩 끼룩

그리움인지

망연한 기다림인지

짜내듯 토하는

갈매기의 울음

갈매기를 보며

내가 얼마나 멀리 날고 싶어했는지

소스라치듯 놀라고 만다

여행을 떠났다. 의사로부터 신장이 칠십 퍼센트 이상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고서, 몸과 마음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릴 순 없다고 생각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처방도 없이 더 두고 보자는 얘기만 할 뿐이었다. 다른 어떤 약도 먹지 말라는 것이 처방이라면 처방이었다. 냉이가 신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서 '이건 약이 아니라 음식이니 어디 한 번 먹어보자.'라며 냉이로 나물을 만들어 먹고, 국도 끓여 먹고, 말려서 차로 끓여 마셨다. 그러기를 삼 개월 정도 했더니 아프고 지친 몸이 조금씩 차도를 보였다.

내 병의 원인이 마음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중세가 호전됨과 동시에 생활에 변수를 만들어 보고자 여행을 시작했다. 국내는 물론, 일본을 필두로 국외로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인터넷 카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 팀을 쫓아 몇 군데 다니다가,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다니기도 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정보를 찾아 여행사와 연결해서 모르는 사람들 틈에 혼자 끼어서도 다녔다. 방학 중에는 학교 동창들과도 어울려 다녔다. 그러던 중에 언니와 함께 강화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예쁜 집 이 층에 월세를 들게 된 것이다.

이사를 들고 보니, 소문을 들은 친구들이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때맞춰 찾아온 봄 마중까지 곁에 놀러 오느라 한 달이 넘도록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병풍 두른 뒷산의 봄빛이며, 반듯반듯 손질이 잘된 자그마한 들판, 그 너머 밀려왔다 밀려가는 바닷물. 그것을 맛보고 가는 친구마다 반은 부러움, 반은 걱정으로 인사말이 한결같았다.

"너무 좋아야!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나? 나 같은 사람은 꿈이나 꾀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런데 혼자 외롭지 않겠어?"

혼자에 이력이 붙은 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어차피 어디 있어도 혼자인 내게야, 오히려 강화에서는 남의 땅이지만 하루에 손바닥만큼씩 일귀서 채소 가꾸며 그것들과 대화하는 맛이랄도 있다는 걸, 해 넘어가기 바쁘게 땀방울은 개구리울음이란 먼 산 소쩍새울음 베풀어 캄캄절벽 같은 밤을 지새우는 맛도 멋이라면 멋진걸. 서울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농촌을 고스란히 맛볼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어 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오르내리며 기름 태우는 것이 아깝고 고달프긴 하지만, 늘그막에나마 이런 맛에 취할 수 있음이 천군만마를 얻은 장군만큼이나 호뭇하고 여유롭다.

마음이 늘 편하기만 한 건 아니다.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나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외도를 봐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자꾸만 시들여가는 몸과 마음을 다잡고 뭔가 이뤄 보리라는 가당찮은 꿈까지 이해해 달라고 하지는 않겠다. 그래도 나 몸져누우면 병원 데리고 다닐 사람이 제 살기도 바쁜 둘째 말고는 없으니, 이렇게 억지라도 부려 건강을 돌려놓아야겠다는 가상함만은 인정받고 싶다.

남편은 이런 나를 두고 '아내가 바람났다.'라고 했다. 둘째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네 엄마가 요즘 바람났다!"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남편 뿐 아니라 시대 쪽 사람들이며, 심지어 큰딸까지도 내 외도를 '바람'이려니 여겼다.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미심쩍은 시선과 의미심장한 말투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다. 내 집(엄밀히 말하자면 내 방)을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은 행여 이 여자의 바람기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은근한 기대를 했을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늘을 향해 고

개 들고 다닐 것이다. 지금의 이 행복한 외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으로부터 한 톨의 생활비도 받지 못하는 내가 나만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 공무원 연금 덕이다. 연금은 이십삼 년간의 교사 생활이 준 커다란 선물이다. 연금이 아니었으면 꿈도 꾀보지 못하고 스러질 뻔한 내게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은 없을 것이다.

복지 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시절부터 일과 취미 생활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다. 아이들 키우랴, 가정 꾸려 나가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없다. 자녀 양육이 끝나고 여우살이 시켜 놓은 후에야 비로소 나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때가 코앞에 닥쳐서야 내 삶을 걱정하고 준비하려 하면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나를 나답게 살아 보겠다는 생각에 날개를 달아주려면 젊은 날에 미리 일거리를 준비해 두어야 하고 어느 정도는 내 주머니를 따로 챙겨 두어야 한다. 건강을 잃지 않으려면 꾸준한 운동도 필요하고,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친구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진정 용기 있는 여성만이 본연의 나를 온전히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 족쇄에 발이 묶이고, 내가 만든 물이 아닌 남편이 만들어 놓은 물을 따르느라 내면의 요구를 눌러두고 사는 것이 현모양처이던 때는 지나갔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둘째가 집을 판 돈으로 김포에 사 둔 땅때기가 몇 평 있어, 요즘엔 날마다 농사짓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해 봐야 돈이 될 것도 아니고 거기 오갈 때마다 드는 기름 값이 만만치 않지만, 값으로

따지기 어려운 그 무엇이 오늘도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흙을 만지는 재미가 글 쓰는 재미보다, 책 읽는 재미보다, 사람들과 접촉하는 재미보다 몇 배 더 낮고 행복하다. 흙은 배신하지 않는다. 나를 속이지도 않고 나를 미워하지도 않는다. 정성을 쏟는 만큼 자라주는 고구마며 고추, 콩, 들깨, 옥수수, 결명자, 딸기……, 와, 세기도 힘들다.

누가 나에게 이만큼의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겠는가!

• 이옥임

선아름, 이십삼 년간 교직에 몸담았고 은퇴한 후 서울근교에 있는 텃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내게 남은 시간을 아쉬워하지 않고, 사를 쓰며 자연과 벗하여 살고 싶다.